

외 문 학

Korean Expatriate Literature
2017 · 봄호 · 통권 제21호



해외문학

.....
본지는 해외동포 문인들의 문학작품 창작을 돕는 대표적인 문예지입니다.

성공적인 한국 시문학의 세계화



김희주

(시인 | 해외문인협회 부회장)

어느 작가가 “시인은 대부분 행복하다. 그것은 용어의 선택이 남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본국에선 2010년도에 이미 한국 시인의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미주 한인시인들도 600여 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라는 기사를 읽었다.

그야말로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시를 쓰겠는가?

그러면 과연 시를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소득 수준은 어떠한가?

2015년 고용정보원이 공개한 한국의 직업 정보에 따르면, 시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위 평균 소득이 2번째로 낮은 직업이며 하위 소득 3위로는 보조 출연자, 소설가, 수녀가 공동 하위 소득자라고 밝혔다.

이렇게 시인과 소설가는 생계와는 무관한 소득 하위 직업을 가진 참으로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일 경우 글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몇 날 몇 밤을 지새우며 선택한 하나의 용어가 문장 전체를 살려 줄 때 그 희열은 참으로 황홀하다. 정신에서 육체로 연결되는 본능적인 리드미컬한 시의 율동이 시인을 춤추게 한다. 이렇게 쓰여진 글들을 하나, 둘씩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며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운호 ‘해외문학’ 발행인은 1971년 미국 이민 길에 발을 디디면서 별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경제적인 풍요보다는 시인으로서 미국 주류 문단에 참여하여 한국문학을 세계화하는 꿈이다.

조운호 발행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시인 랭스턴 휴스의 ‘꿈’이라는 시 “꿈을 잡아라/ 꿈이 사그라지면/ 삶은 날개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이니// 꿈을 잡아라/ 꿈이 사라지면/ 삶은 눈으로 얼어붙은/ 황량한 들판이니/”

이 시를 항상 가슴에 품고 꿈을 향해 달리다가 우여곡절 끝에 ‘해외문학’이란 문예지를 창간하게 되어 벌써 21호를 발간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고심하던 중 어렵게 미국의 시인이자 출판사 대표인 스탠리 H. 발칸과 연결이 되어 연간 30여 명의 미국과 국제시인들의 시를 받아 한글로 번역하여 ‘해외문학’지에 게재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1년 7월 26일 “한미 시문학 교류 기념축제”를 미국시인, 영국시인, 해외문인협회 회원 시인들과 함께 LA에서 가졌다.

또한 올해 ‘해외문학’ 21호엔 국제시인들이 41명이나 작품을 보내와 12명을 줄이는 일까지 벌어졌고, ‘국제 현대시2’에는 50여 명을 청탁해 참여 시인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이유는 막대한 출판비와 국제 시인들의 번역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현대시》가 창간할 당시만 해도 미국 시인들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시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 앤솔리지에 참여하려는 국제시인들이 너무 많아 세계 시인들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국제시전문지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표제 이름도 《국제 현대시2》(BRIDGING THE WATERS=물 위에 다리 놓기)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국제 현대시2’호엔 국제시인 50여 명, 미주 한인시인 28명, 한국 시인 15명 등이 참여하여 650여 페이지에 이르는 국제 현대시 작품들이 실린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일념으로 한국 시문학의 세계화를 이루어 내신 조운호 발행인께서는 해외문인협회 회원들의 요청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시와 수필” 강의, ‘글샘터’에서 시문학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끊임없는 자기 연수만이 좋은 작품을 쓰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 시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노력하고 동참해 주시는 국내외 여러 시인들이 있어 그 꿈이 영어어 이제 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시인이든 시작품을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 주시는 해외문인협회 회원들과 번역 등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한국 시문학의 세계화 꿈 은 세계의 하늘로 더 높이 비상하리라 본다.

초대석 International Poets

- AMERICAN POETS 미국 시인들
- BULGARIAN POETS 불가리아 시인
- CANADIAN POETS 캐나다 시인
- CHINESE POETS 중국 시인들
- GEORGIAN POET 조지아 시인
- INDIAN POET 인도 시인
- IRAQI POET 이라크 시인
- IRISH POET 아일랜드 시인
- ITALIAN POETS 이탈리아 시인들
- POLAND POET 폴란드 시인
- RUMANIAN POET 루마니아 시인

◆ 2016년 「해외문학」 제21호에 참여한 11개국 국제 시인들은 아래와 같다.

▲ POETS LIVING OR WORKING IN: AMERICA, BULGARIA, CANADA, CHINA, GEORGIA, INDIA, IRAQ, IRELAND, ITALIA, POLAND, ROMANIA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Cross-Cultural Communications는 1971년에 Long Island University의 Brooklyn Center에서 27개 국어와 문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시인이며 편집자인 Stanley H. Barkan과 그의 예술가 부인 Bebe가 창립하여 곧 작은 출판사가 설립되었다. 지난 45년 동안 CCC는 소규모이나 독립적인 출판사로서, 번역문학에 있어 가장 고급의 세계문학을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소통이 장벽을 허무는 가장 큰 도구로 믿은 Barkan 부부는 그 동안 40개국의 50개 이상 언어를 통해 세계의 출판사와 저자들과 함께 일해 왔고, 앞으로도 전 세계대륙에서 그가 일으킨 파문은 계속될 것이다.

창립 이후, CCC는 Allen Ginsberg, Pablo Neruda, Isaac Asimov, Louis Simpson, Rainer Maria Rilke의 시집을 포함하여 400권 이상의 시집을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능 있는 무명 시인을 발굴하여 그들의 소중한 작품을 첫 출간하는 진율과 기쁨을 주어왔다. 여러 해 동안 Stanley H. Barkan과 CCC는 전 세계에서 수십 번의 주요 문학 세미나를 열었는데, The International Literary Arts Festival은 1990년부터 10년간 뉴욕소재 UN의 Dag Hammarskjöld 강당에서 열렸다. CCC가 이룬 업적은 무수하여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는데 Barkan과 CCC가 이룬 가장 큰 보상은 세계의 작가, 독자, 문학애호가들에게 시의 세계를 더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만든 것이다.

CCC와 한국과의 인연은 1971년에 시작되어 창간호인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에는 고원 씨의 시가 실렸다. 그리고 CCC는 그의 시집 *The Turn of Zero*를 1971에 출간(2004년 재인쇄)했고, 그와 공동 작업으로 *Cross-Cultural Review #4: South Korean Poets of Resistance* (1980)와 *Voices in Diversity: Poets from Postwar Korea*(2001)를 출간했다.

2005년 이후 CCC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아래 여러 한국 작품을 이중 언어로 발간해오고 있다:

〈돈황의 사랑〉 윤후명 저, 김정년과 Steffen F. Richards 공동 번역(2005). 〈슬픔도 힘이 된다〉 양귀자 중단편집, 류영주 번역(2005) 〈조선 가사문학선〉 이성일 번역(2009). 〈빌라도의 예수〉 정찬 저, 공유정 역(2011)

2011년에 Stanley H. Barkan과 《해외문학》 발행인 조운호는 함께 Korean-American 시인들을 조명하여, 문학잡지인 *Paterson Literary Review*, *Lips*, *The Seventh Quarry*, *Shabdaguchha* 등에 한국 작품이 이중 언어로 실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Korean-American 시인들이 폭넓은 독자를 갖게 되었다. 2013년에는 한-영 시선집 *Bridging the Waters* (한미 현대시)가 CCC와 KEL(해외문학)에 의해 발간되었다. 조운호 시인의 *The Love of an Apple Tree* (2014)를 서두로 CCC는 《해외문학》과 협업으로 한/영 이중 언어 시집을 계속 발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락처: Stanley H. Barkan, Poet-Publishe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39 Wynsum Avenue, Merrick, NY 11566-4725/ USA. (516) 868-5635. cccpoetry@aol.com.

CHREYN

for Max Schwartz

Stanley H. Barkan

Grandfather liked
white horseradish,
chreyn,
on his gefilte fish
because it was strong
like the Limburger cheese
he spread on the large
oval slice of pumpernickel
he covered with heavy sweet cream
thick from the top of the tin milkcan
delivered at predawn to the grocery store
he opened at the crack of every morning.
Horseradish, after all, is just a weed
whose roots in the earth
you may, by chance,
spread as topsoil on your lawn.
It can grow through sand, asphalt—even cement.
It is strong in any form—red or white.
But *chreyn* is good on flanken and fish,
especially on gefilte.
If he were still here,
you could ask my grandfather.



Stanley H. Barkan (born 1936 in Brooklyn) is the editor/publisher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which has, to date, published 400 titles in 50 different languages. He is also an original poet and translator, whose own work has been published in 18 collections.

스탠리 발칸: 1936년 브루클린 출생.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스 출판사의 편집인 겸 출판인. 지금까지 400권의 시집을 50개 국어로 발행. 그 자신이 18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며 번역가이기도 함.

흐레인

맥스 쉬위츠께

스탠리 발칸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할아버지는
거필트 위에 놓인
흰 고추냉이 흐레인을
좋아하셨지
왜냐하면 그게
매일 새벽에 개점하시고
식품점으로 배달되던
양철통 우유 위에서 걷어낸
달고 두꺼운 크림을 바른
큰 타원형의 호밀 빵에
펴 바르시던
그 림버그 치즈처럼
맛이 진했으므로.
고추냉이란 결국 잡초,
우린 우연히도
흙 속 그 뿌리를 잔디 표토로 뿌린다.
모래, 아스팔트, 시멘트까지도 뚫고 자라며
어느 색이든 강인하다—빨강든, 회든.
또, 갈비든 생선이든 잘 어울리나
더 잘 어울리는 건 거필트.
만약 지금도 살아 계시면
우리 할아버지께 여쭙어 봐도 되는데.

* 흐레인 : 서양의 흰 고추냉이 식물

* 거필트 : 생선 빈대떡 같은 유대 요리

THIS YEAR

Michael Broomfield

Looking for some signal
in his face is much too much
like looking into fog
that's resting on a mountain
road in early evening
in the way your vision's
swallowed up
like you'd forgotten
in its gray persistence
how to focus

when that's so much
more what he's forgotten
in a process that continues
as you try to watch

As the cat creeps in
the tide slips out and mind
and body melt to nothing
you just watch him
watch it happening



Michael Broomfield, formerly an attorney and student of the cinema, is a collector of first editions and author of bibliographies of John Updike (with Jack De Bellis) and Robinson Jeffers.

마이클 브룸필드 : 변호사를 지냈고 영화학과를 수료. first editions (초판)의 수집가이며 Jack De Bellis와 함께 John Updike의 서적해제를 쓰고, Robinson Jeffers의 서지학도 간행.

올해

마이클 브룸필드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그의 안색을
살피는 건
끈덕진 안개의
회색 존재 속에서
초점 맞추는 법을 잊은 듯
마치 시력을 잃어버린 듯
이른 저녁
산길에서 쉬고 있는
안개 속을 들여다보는 듯

망각의 과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그가 잊은 것은 우리가 잊은 것보다
훨씬 더 많구나

고양이가 기어들어 오고
조수는 밀려가고
몸과 마음은 녹아져 가는데
난 그냥 그를 보기만 할 뿐
약해지시는 것을 보기만 할 뿐

GRAPEVINE

Lorraine Conlin

I see her sitting alone in her favorite spot
beneath the purple clusters
and I remember the sweetness of the jelly and jam.

I could offer to make her some
but she would be bitter, reject it and me
say it is not like her sand we would both hurt.

If her hands didn't shake
if she had more strength, less memory
maybe she would be happier.
I wouldn't have to slow down when we walk
or go back with her to the place that once was her smile.

If she could forget some of the good parts maybe
life wouldn't be this tedious journey
taken time and again when we visit
or when I'm alone and see her still.

Maybe if she hadn't been everything yesterday
it would be different today
I could go there and leave without thinking of her
sitting alone staring at the grapes . . .



Lorraine Conlin is the current Nassau County Poet Laureate. A member of the Long Island Writers Guild, her work is published in many anthologies and she hosts events for many poetry groups.

로레인 칸린 : 현재 Nassau County 계관시인. Long Island Writers Guild 멤버. 여러 시선집에 그녀의 작품이 발표되었고 여러 시인 협회의 행사를 주관했다.

포도덩굴

로레인 칸린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그녀가 앉아있다.
보라색 포도송이 아래에.
젤리와 잼의 달콤함이 생각난다.

만들어 드리겠다고 제안한다면
그녀는 싫어하며 잼도 나도 거절하시겠지
내 것 같지 않다, 라 하시면 우린 둘 다 상처 입겠지.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는다면
기운은 좀 더 있고 기억력은 더 약하다면
그녀는 더 행복할 텐데.
함께 걸을 때 걸음 늦출 필요도 없고
한 때 그녀의 기쁨이었던 장소로 그녀를 데려 갈 필요도 없을 텐데.

좋은 추억 일부를 잊을 수 있다면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혹은 그녀가 미동 없이 앉을 것을 나 혼자 볼 때마다
인생이 이처럼 지겹지는 않을 텐데.

그녀가 과거에 유명인사가 아니었다면
오늘 상황은 다를 텐데
포도를 응시하며 혼자 앉은 그녀를 염려 않고
가벼이 그 곳을 방문할 수 있을 텐데...

THE LION AND THE HORSE

Joan Digby

On the far side of the world
I am ushered into day
by the sound of twins crying
in the other room.

I have come to welcome them
not a hundred days old
and already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the Lion from the Horse.

Cradled in their pallet on the floor,
he is placid and at peace with darkness
she restless and ready to bolt the gate.

Now at daybreak they spring together
from the reluctant arms of sleep
with a whinny and a roar
unraveling the silence
of Korea's morning calm.



Joan Digby is a professor of English and director of the Poetry Center at Long Island University. For many years, she fostered an exchange program with Keimyung University in Daegu, Korea.

조운 덕비 : Long Island University의 영문학 교수이자 Poetry Center 책임자. 여러 해 동안 대구 계명대학과 교환 프로그램을 육성해 왔다.

사자와 말

조운 디비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먼 세계의 한 쪽 끝에서
난 아침을 맞는다.
옆방에서 우는
쌍둥이 울음 때문에.

아직 100일도 안된 애기들
그들을 환영하러 여기에 왔다
애들은 벌써 서로 무척 다르다
사자와 말 만큼이나.

바닥 침대에 포근히 누워,
남자애는 점잖고 어두워도 괜찮으나
계집애는 끊임없이 박차 가하려 안달이다.

이 새벽에 애기들은
졸리움 떨치고 번쩍 깨어난다.
히힝 거리고 포효하며
조용한 아침의 나라
침묵을 깨며.

THE FAMILY JEWELS

Richard Ehrlich

There's some time now before class. I stretch out.
The mind is a safe-deposit box; words are the jewels.
Now, I breathe out the last hold on consciousness and
nestle my head deeper into the couch's softness.

The box opens: I take out a few of the words,
turn them over in my hands a few times to get their weight,
their texture, as though I were blind and this is how I see:
I feel the snowman I built out back yesterday melting,
carrot nose running, prune mouth drooping into a frown,
then into nothing. I feel my little son watching this
melting, his own mouth curling in confusion, eyes riveted
on this white mystery. I feel my wife returning him to
the known world of his highchair and his lunch, the sound
of her voice lulling him as he drinks from his sippy cup.
His last hold now released, I feel her lift him, still singing,
toward his room. His head, the delicious full weight of it
pressing on her shoulder now, eyes closing.

Knowing I must awaken for class, I turn the jewels over
one last time, one last time, for now, then put them back,
gently into their box.



Richard Ehrlich was born in Brooklyn, NY in 1956 and now teaches in Great Neck. A revised edition of his book, *A Little Consideration*, was published in 2015.

리처드 얼리크 : 1956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남. Great Neck에서 현재 교수 중. 2015년에 그의 책 *A Little Consideration*을 개정 발간함.

내 마음속 소중한 보석

리처드 얼리크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수업 시작 전 시간이 조금 있다. 잠시 눕는다.
마음은 안전한 금고이며 낱말은 보석이다.
이제 의식의 마지막 숨을 깊이 내쉬고
소파의 안락함 속에 머리를 묻는다.

박스가 열린다: 낱말 몇 개를 꺼내
손안에서 몇 번 굴린다. 무게와 질감을 느끼기 위해,
마치 소경인 듯이. 그렇게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을 들여다 본다:
어제 뜰에 만든 눈사람이 녹는 것을 본다,
당근 코가 흐르고, 자두입이 녹아 처지고,
그런 후 없어진다. 어린 아들이 이를 관찰하는 것을
본다. 아이의 입이 혼동으로 쉴룩거리고, 이 놀라운
순백의 신비에 눈을 떼지 못한다. 아내가
아이 정신을 들게 하여 점심식탁으로 데려온다,
아이가 병을 빨 때 엄마 목소리는 아이를 졸리게 한다.
아이의 숨소리 차차 잦아들고, 아내가 흥얼거리며 애기를 안아
방으로 가는 것을 본다. 애기 머리는 달콤한 무게로
엄마의 어깨를 누르고 눈은 감겨있다.

수업 때문에 이제 깨야 하므로 보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굴러본다, 당분간은 마지막이다. 그러곤 박스 속으로
소중히 집어넣는다.

SOURCE OF PEACE

Michael Graves

Pointing to a man grown old and impotent,
Who'd lived alone and never spent
His self in acts of love
A friend predicted your defeat.
Now you and time have proved him
Right.
Your share of love
Has been quite brief.
So, flesh in memory
The story of your great defeat.
Dwell on her who haunts you still
And whom you could not reach.
The years of struggle
Now a source of peace.



Michael Graves is the author of four poetry collections, including *Adam and Cain* and *In Fragility* (Black Buzzard, 2006, 2011). He won a grant of from the Ludwig Vogelstein Foundation in 2006.

마이클 그레이브스 : *Adam and Cain* and *In Fragility* (Black Buzzard, 2006, 2011)를 포함한 시집 네 권의 저자. 2006년에 the Ludwig Vogelstein Foundation으로부터 장려금을 수여받음.

이제는 평화

마이클 그레이브스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일생을 혼자 살며
베푸는 삶을 실천 않은
노쇠해진 남자를 지적하며
한 친구가 너의 패배를 예언했다.
이제 너와 세월은 그 친구가 맞다는 걸
증명한다.
너의 사랑은
짧았다.
그러므로, 너의 참담한 패배의 이야기를
날날이 기억하라.
아직도 네 머리 속에 머물지만
잡을 순 없는 그녀를 그리워하라.
몸부림의 날들
이제는 평화의 원천.

I WANT IT TO BE ALMOST ANY DAY

Jim Gwyn

I want it to be one of those cool
upstate August nights
crickets going crazy
Or let it be 20 degrees, mid-January
the smell of snow on the way—

Wonderful warm spring day
a breeze strong enough
for a kite with a 15-foot tail
Or another morning, 7 o'clock, waiting
for my ride to the greenhouses

The years I came in from some road,
Montreal or Montana—
sunny afternoons or 2 a.m.
the talk of Canada or the stars of Ketchikan.
May 4th, her birthday,

I want it to be all those days,
Yes, thank you, a hot cup of coffee,
milk, one sugar.
The way you make it
for yourself.



Jim Gwyn has been published in many anthologies and magazines, including *PLR*, *Lips*, and *The Seventh Quarry*. He has received eight Pushcart Prize nominations for poetry.

짐 권 : <PLR>, <Lips>, <The Seventh Quarry> 등 여러 시선집과 잡지에 그의 시가 발표됨. Pushcart Prize 시부문 후보로 8회에 걸쳐 거론.

그런 날이면 좋겠지

짐 쿨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귀뚜라미 미친 듯 울어대는
저 시원한 북부의
8월 밤이든가
혹은 눈 올 듯한 향기 풍겨오는
화씨 20도의 1월 중순이어도 좋겠다—

놀랍게 따뜻한 봄날
5미터 꼬리달린 연 날릴
훈풍이 불던 날이든가,
혹은 다른 날 아침 7시
온실로 갈 차편을 기다리던 날이든가.

몬트리올인가 몬테나이던가
그 어딘가로 부터 돌아온 해—
양지 바른 오후 혹은 오전 2시이든가,
캐나다의 대화 혹은 케치칸 시의 별.
그녀의 생일 5월4일이든가,

그 모든 날들이면 좋겠지,
예, 감사해요,
뜨거운 커피에 우유와 설탕도요.
당신이 마시는 식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요.

SCENIC VIEW

Theofil Halama

Mountains plunge into
valleys

the inner and the outer
mass of the sea
tell the eye
that we are facing

greater than ourselves

A handful of daisies
still refutes

the swan song

(creatures clinging
to the Earth
the more clear-sighted
about enduring)

Fire and soil
can heal
the blind



Theofil Halama is a Czech–American author, educator, linguist, and theologian. Five of his eighteen volumes of poetry and prose were simultaneously published in English and Czech.

씨오필 힐라마 : 체코 출신 미국인 작가, 교육가, 언어학자, 신학자. 그의 18권의 작품집 중 5권이 영어와 체코어로 동시에 출간된 바 있다.

장관

씨오필 헐라마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산은 계곡으로 뚝
떨어져 내려앉았다

거대한 바다 안팎 몸체를
보노라면 지금
우리보다 더 위대한 무엇을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한 줌 테이지 꽃
여전히

종말이 아님을 보여준다.

(땅에
들러붙어 있어
인내를 아는
존재들)

불과 흙은
눈먼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다

WHISPERS AND SHOUTS

Robert L. Harrison

I heard
Your whispers
And shouts.
The whispers
Were kind to my ears
They made me embrace the night,
And reach for the stars,
Fulfilling my dreams
Before the morning light
Spread its fingers over
My flights of fantasy.

The shouts
Were cruel in coming
Like a tongue wagging
From an upset goddess
With high pitched words
Tossed in the air.
This caused a sadness
That should not be.
So I long for the whispers
Not the shouts but both
I can endure.



Robert L. Harrison is a poet, photographer, and playwright. His creative works, including over 3,000 photos, have been published in over 57 books. One poem was part of a Grammy Nomination.

라버트 L. 해리슨 : 시인, 사진사, 극작가. 3000장의 사진을 비롯한 그의 작품이 57권의 책에 발표되었고, 시 한수는 Grammy상 후보로 선정되었음.

고함과 속삭임

라버트 L. 해리슨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너의 속삭임과
고함을
들었다.
속삭임은 내 귀에
너무나 달콤했다.
그건 내 꿈을 성취시키고
내가 그 밤을 포옹케 했고
별까지도 도달케 했다,
아침 햇살이
내 환상의 나래 위로
손 펼치기 전에.

고함은
화난 여신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공중에 쏟아 부은
꾸중처럼
잔인하게 다가왔다.
그건 그래서 안 되는
슬픔을 야기하였다.
그래서 난 고함이 아니라
속삭임을 고대한다.
둘 다 참을 순 있겠지만.

SPRING

Jinks Hoffmann

A small branch lies on the street has fallen
from a tree: tiny, bare, like
a Tai Chi pose, it lies vulnerably
in the busy road.

I bring it home and place it in water.

I watch over this branch

for a period of several weeks

for just a few moments each day.

I am merely witness as the ends of each

tiny offshoot transforms

into buds, and then blossoms.

It is a little like being a spiritual companion

to this small branch;

as Galway Kinnell might suggest

my reverent daily attention is teaching

the thing its loveliness

until it flowers from within.



Jinks Hoffmann is a Spiritual Director and poetry editor of of the journal *Presence*. Poetry, dream work and writing are her most cherished spiritual practices.

진크스 호프만 : 잡지 *Presence*의 영적 담당자 및 시부문 편집자. 시, 꿈의 해석, 글쓰기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영적 활동.

봄

진크스 호프만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작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길바닥에 있다.
작은 알몸으로, 타이치 자세로,
복잡한 길 위에 다치기 쉽게
떨어져 있다.
집에 가져와 물병에 꽂는다.
매일 잠깐씩
여러 주일 동안
이 가지를 관찰한다.

조그만 곁가지 끝마다
싹이 돋고 개화하는 것을
무심히 목격한다.

이 작은 가지의
영적 동반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다:
겔웨이 킨넬이 말하듯
나의 매일 경건 묵상은
가지가 내면에서 꽃 피어 날 때까지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가르치는 것이리.

* 겔웨이 킨넬 : 영적인 시를 쓰는 미국 시인(1927-2014)

I AM THE BROWN EARTH BURIED

M. L. Liebler

I am the brown earth
Of northern California
Asleep under a hot sun
Between almond trees
And avocado bushes.
I follow the wind
Deep into canyons
Inside my rectangle mind
Where northern autumns
Remind me of a million poems.
I call upon the rain
And the lowly winds
To bind every word
Of love that hides
Inside my heart.



M. L. Liebler is an internationally known & widely published Detroit poet, Fulbright university professor, literary arts activist and arts organizer, the author of 13 books.

M. L. 리블러: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디트로이트 소재 시인이자 Fulbright university 의 교수. 문학 작품 옹호자, 예술 작품 기획자, 책 13권의 저자.

나는 갈색 흙

라버트 L. 해리슨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나는 북 캘리포니아의
갈색 흙
아몬드나무와
아보카도 수풀 사이
뜨거운 해 아래 잠들어 있다.

바람을 따라 간다
북녘 가을이
백만 개 시를 떠올리는
나의 네모난 마음 속
계곡 깊숙한 곳으로.

비를 부르고
낮은 바람도 불러본다.
내 가슴 속에 숨은
모든 사랑의 언어
묶어두기 위해서.

LIFE BEYOND PORTS

Anthony Scarpantonio

You speak of seeing over horizons—
New worlds only traveled in dreams.
But subcontinents cannot paradise emotions
Let loose in brief encounters,
Of raiders invading your shores;
That long to leave the wondering life
Of lonely seas carrying grapefruit trees,
And barrel-fills of water that stagnate,
While whiskey casks run dry.



Anthony Scarpantonio, originally from Queens, NY, now living in New Jersey, has worked with The New Press and Medicinal Purposes. His book *Place Your Bets* was published in 2002 by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앤쏘니 스킨토톨니오: 뉴욕 퀸스 출신. 현재 뉴저지에 거주. The New Press and Medicinal Purposes 와 함께 일함. 그의 저서 <Place Your Bets>가 2002년에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에 의해 발간 됨.

항구너머 인생

앤소니 스카팰토니오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네가 수평선 저 너머 세상을 말한다—
꿈에나 여행한 신세계를.
현재의 땅은 감정의 낙원이 아니다.
너의 해안을 침입하는 자들과의
실랑이 속에 넌 감정을 절제 못 하고 있다.
위스키 통이 말라가는 동안
씩어가는 물로 가득찬 물통과
자몽나무가 널려 있는
고독한 바다의 확신 없는 인생을
넌 떠나고 싶은 거야.

GAHAL OF THE TILTING WORLD

Bradley R. Strahan

You say the wind sings and the sea sings
and the world hums like a child's top.

The tongue turns the notes over and over
sucking the viscous sap of sorrow.

The heart hammers like fingers furious at keys
that will only play a tangled tune of desire.

The mind knows all the old saws but somehow
cannot cut loose love's knotted lines.

Put your ear to the earth. You may hear the pinging
pinball melody as the world tilts into tomorrow.

Previously published in *Still water Review*



Bradley R. Strahan taught poetry at Georgetown University for twelve years. He has six books of poetry and over 600 poems published worldwide.

브래들리 R. 스트래한 : Georgetown University에서 12년간 시를 가르침. 6권의 시집을 내었고 600편의 시가 세계적으로 발표됨.

도는 지구의 사랑시

브래들리 R. 스트래헌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바람이 노래하고 바다가 노래하고
아이들 팽이처럼 세상이 콧노래 한다고 넌 말한다.

끈적이는 슬픔의 수액을 훔으며
혀는 다시 또다시 음표를 굴린다.

엷힌 욕망의 가락을 연주할
걱정적 손가락처럼 심장은 망치질한다.

머리는 모든 옛 속담을 알지만 그러나
헝클어진 사랑의 줄을 자르진 못한다.

귀를 땅에 대보라. 지구가 내일을 향해 돌 때
핑하는 핀볼 멜로디를 듣게 되리라.

■ BULGARIAN POET(불가리아 시인)

WHITE SQUARE ON A WHITE BACKDROP

Margarita Aleksandrova

What is this? Will I always love you?
You, the selfish one.
The impossible one.

What is this? Will I always covet you?
You, the impulsive one.
The gentle and controlling one.

For how long?
We are to wander in the words.
We are to stray in our emotions.
With you—the only one. The unpredictable one.

My love—
A white square on a white backdrop.
And, all the colors of the spectrum,
Hidden within in—compiled to erupt.

Where am I going?
Feelings, fleeing from reason—
Illogical, blinded—like a boat in love with a rapid.

To be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poems Attempt for Love



Margarita Aleksandrova is teaching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University of Plovdiv. She has a Ph.D. degree in the area of Teaching Theatre education.

마가리타 알렉산드로바 : University of Plovdiv의 조교수. Teaching Theatre education에 Ph.D.학위가 있음.

흰 배경 위의 흰 네모

마가리타 알렉산드로바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이게 뭐지? 내가 늘 당신을 사랑할까?
당신, 이기적인 사람.
불가능한 사람.

이게 뭐지? 내가 늘 당신을 탐낼까?
당신, 충동적인 사람.
신사적이나 지배적인 사람.

얼마 동안이나 사랑할까?
말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는데.
감정 속에서 우리는 길 잃었는데.
당신과 함께— 하나 뿐인 당신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당신.

내 사랑—
흰 배경 위의 흰 네모.
그건 스펙트럼의 모든 색깔,
그 안에 숨은 당신—분출하려는 스펙트럼 안에.

난 어디로 가고 있나?
감정들, 이성으로부터 도망치며—
비논리적, 맹목적으로—급류와 사랑에 빠진 배처럼.

DUNDEE REFLECTED IN THE TAY RIVER

To Douglas Dunn

Vladimir Levchev

The rhythm of a train on the iron bridge over the firth,
a siren echoes from star to star.
The town's lights are meteors frozen down
in the deep water's transparent dark.
white curtains wave high over the stage:
a stone frontage, a clock, and rainfall.
Steps through brown vapors: alone on the pavement
a man reflects in a woman his soul.
A man reflects a woman in his soul.
Steps through brown vapors walk on the pavement.
A stone frontage, a clock, and rainfall:
white curtains wave high over the stage.
In the deep water's transparent dark
the town's lights are meteors frozen down.
A siren echoes from star to star,
the rhythm of a train on the iron bridge over the firth . . .

Translated by Henry Taylor with the author and published in Leaves from the Dry Tree (Merrick, NY: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1996)



Vladimir Levchev, born in 1957, is a Bulgarian poet. Before the downfall of Communism, he published an underground magazine. He teaches literature at the American University in Bulgaria.
블라디미르 레브셰브 : 1957년 불가리아 출생 시인. 공산 정권의 치하에서 지하 잡지를 발간함. 불가리아의 American University 에서 문학을 가르침.

테이강에 비친 던디시

더글러스 던에게

블라디미르 레브셰브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강어귀 쇠다리 위 기차의 리듬,
별에서 별로 기적이 메아리친다.
깊은 물 속 투명한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은 얼어붙은 유성이다.
하얀 커튼이 무대 저 위에서 펼쳐진다:
석조정면, 벽시계, 빗줄기.
갈색 증기 사이의 발걸음: 보도 위에 외로이
남자가 여자 속에 그의 영혼을 반사시킨다.
남자가 그의 영혼 속에 여자를 반사시킨다.
갈색 증기 사이의 발걸음이 보도 위를 걷는다.
석조정면, 벽시계, 빗줄기:
하얀 커튼이 무대 저 위에서 펼쳐진다.
깊은 물 속 투명한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은 얼어붙은 유성이다.
별에서 별로 기적이 메아리친다,
강어귀 쇠다리 위 기차의 리듬...

* 불가리아어 영어번역 : *Henry Taylor*, 저자

· 테이강 : 스코트랜드에서 가장 긴 강

· 던디 : 테이강이 지나가는 지역 도시

■ CANADIAN POET(캐나다 시인)

LANDSCAPE

Huguette Bertrand

Be it as it wants to be
I am just standing aside
watching the world unfolding
with beauties and miseries
of all kinds

from dawn till dusk
poems will do the job
showing the path
giving a break
to the time being
leaving shadows
far behind



Huguette Bertrand is a French-Canadian poet and editor living in Quebec. She has published 31 poetry books. Their pdf format can be downloaded on her website:

www.espacepoetique.com.

휴게트 베어트랑 : 프랑스 출신 캐나다 시인이자 편집자. 퀘벡에 거주. 31권의 시집을 출간함. 시집의 pdf format 은 그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www.espacepoetique.com

풍경

휴게트 베어트랑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그것이 되고 싶어하는 대로 되라.
나는 그냥 비켜 서 있다
세계가 모든 종류의
미덕과 불행을
자행하는 것을 관찰하며

새벽부터 황혼까지
시는 역사하리라
갈 길을 제시하고
현재를 관조하고
그림자 일량은
멀리 뒤편에 남겨두며

▣ CHINESE POETS(중국 시인들)

DECEMBER

Jami Proctor Xu

a white swift flies to a woman in a lake of leaves
hanging mid-sky winter memory of harvest moon
golden glow of hair interwoven with cloud-strands
she dreams leaves upward
autumn not falling
a soul multiple enough to hold anything

The Chinese version of this poem was published in Jami's Chinese collection, *Suddenly Starting to Dance* (TuranQiwu), Yi Press, 2016. The English version was published in *Switchback, Issue 11, 2010*.



Jami Proctor Xu is a poet, translator, essayist, artist, and mother. She writes in Chinese and English and splits her time between China and the US.

제이미 프락토 슈 : 시인. 번역가, 수필가, 미술가, 엄마. 중국어와 영어로 글을 쓰고, 중국과 미국에서 산다.

12월

제이미 프락토 슈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흰 새 한마리가 중천에 걸린
나뭇잎 호수 속의 여자에게 날아간다.
가을 달의 겨울 추억
구름의 울과 섞여 짜인 머리카락의 금색 광채
그녀는 위로 끌려가는 나뭇잎의 꿈을 꾸다.
떨어지지 않는 가을
무엇이라도 담을 넉넉한 영혼이여

A PIECE OF PAPER

William Zhou

A piece of paper
Drifting in your words
A piece of paper
Bleaching in my dreams
This piece of paper
Shaking spirit and shadow of history
This piece of paper
Carrying the prospect of time
Listen to the paper
Those fell out of power are pained
Smell the paper
Those appear on the stage are drunken
Tear the paper
The moonlight in the poems is shouting
Light the paper
Rivers and mountains on picture will be burned down



William Zhou Deputy Secretary-General of China Office of World Congress of Poets, Member of the Poetry Institute of China, Member of the Writers Association of Sichuan of China.

윌리엄 조우 : Secretary-General of China Office of World Congress of Poets의 대표. Poetry Institute of China의 회원. Writers

Association of Sichuan of China의 회원.

종이 한 장

윌리엄 조우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종이 한 장
네 언어 속에 떠다닌다.
종이 한 장
내 꿈 속에서 빛이 바랜다.
이 종이 한 장
역사의 영혼과 그림자를 흔든다.
이 종이한 장
시대의 소망을 지닌다.
그 종이에 귀 기울이라.
권좌에서 밀려난 저 자들은 고통 한다.
그 종이 냄새를 맡으라.
무대에 등장하는 저자들은 술 취했다.
그 종이를 찢으라.
시 속의 월광이 고향지른다.
그 종이에 불붙이라.
사진 속 강산은 타 내릴 것이다.

IN A FLASH OF LIGHTNING

Zhao Si

All day I've dipped in a fantastic moment,
sunshine dismissed, all things clean and crystal,
leaves like green feathers, sunlight, clouds of white roses
blooming one after another.
I walked on the street, as if walking on the bow of a world's
ship,
the tranquility, spreading in the waving ripples of wind,
reflected my azure infinity lake of heart.
Yet an unknown sound arises, terse
out of a giant mirror face—white outline
opens, purity settles down in its shiny and silvery depth.
The myriads of changes evaded, the reserved and restrained
had self-folded before a sudden vanishing.
In the silence of waiting, a pearl-colored one,
fire-new love extends its tentacles, and I heard
the crisp tinny hatching sound—
the vitality of life is walking out of its dusty dwelling
and step by step towards real actions. Have you in the
parched
land that
lodged in the same dream with me heard it, too?
In a flash of lightning, I, awakened prior to you,
shed spring nectar with raindrops for you.

© Translated from the Chinese by Xuan Yuan, Tim Lilburn, and the author



Zhao Si(1972–), poet, translator, poetics scholar, editor, is the author of six books of poetry, prose, and translations, and edits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etry*. She has been invited to many European poetry festivals.

자오쓰(1972–) : 시인, 번역가, 시 부문 학위자, 편집자. 시집, 운문집, 번역집 등 총 6권의 저서가 있음.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etry* 를 편집함. 여러 유럽 시낭송회에 초대됨.

번개 치는 그 순간에

자오 쓰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종일 경이로운 순간에 사로잡혔다.
태양은 물러갔고, 만물은 깨끗하고 투명하였고,
파란 깃털 같은 나뭇잎, 햇빛, 연달아 피어나는 흰장미 구름.
길을 걸었다, 세상이란 배의 후미 위를 걸듯이,
파도치는 바람 물결 속에 퍼지는 평온 속에
내 마음의 하늘빛 호수가 반사되었다.
그 때 거대한 거울 얼굴로부터 생생한 소리,
알지 못할 소리가 들리고—흰 외곽선이
열리고, 반짝이는 은색 심연 속으로 청정함이 가라앉는다.
무수한 날씨 변화로 인해 급히 몸을 피하기 전에
조심스런 저들은 몸을 움츠렸다.
진주 빛 고요한 기다림 중에
불같은 새 사랑이 촉각을 뻗고
난 부석거리며 부화하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생명의 활기가 그 먼지 낀 처소에서 걸어 나와
한걸음 한걸음 행동을 취한다.
같은 꿈 속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그 건조한 땅에서
당신도 그 소리를 들었나요?
번개 치는 그 순간에 너보다 먼저 깨어난 나는
널 위해 빗방울 어린 봄 주스 눈물을 흘린다.

* 중국어 영어 번역 : *Xuan Yuan, Tim Lilburn, and the author*

■ GEORGIAN POET(조지아 시인)

FRIENDSHIP

Shota Iatashvili

When my friend becomes a leper,
One day I postpone all my businesses
And go to the lepers' hospital,
Knock on the window and then
In the mist through the glass—cleaned some time ago—
We keep looking at each other
For a long time greedily.
When saying good-bye
We unfix our fists
And press our palms against the glass
From our spaces.

And this way
Our palms
Touch each other.

My friend smiles
And shows me with this smile,
That he does not ask for anything more from me,
But he would not agree on something less, either.

Then we are friends.

Translated from Georgian by Donald Rayfield



Shota Iatashvili (1966) is the author of 9 collections of poetry and 4 collections of short stories. He won the SABA Prize, Georgia's most prestigious award and in 2009 International Poetry Award "Kievskie Lavri" (Ukraine).

쇼타 이아타쉬빌리(1966-) : 시집 9권, 단편집 4권의 저자. 2007년과 2011년에 Georgia의 가장 권위 있는 SABA상을 수상하고, 2009년에 국제시 경연대회에서 "Kievskie Lavri"를 수상함.

우정

쇼타 이아타쉬빌리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내 친구가 나환자가 되었다
어느날 내 모든 사무를 중단하고
그의 병원으로 갔다
창문을 두드린 후
뿌연 유리 사이로—청소한지 오래 된 듯—
우린 서로를 계속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뚫어지게.
작별인사를 할 때
주먹을 펴고
유리 위에서 손바닥을 서로 눌렀다.
각자 있는데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우린 서로 만졌다.

친구는 웃는다.
나에게 더 바라는 것 없지만
덜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미소를 짓는다.

우린친구다.

*조지아어 영어 번역 : *Donald Rayfield*

EVERY WOMAN IS AN ISLAND

Menka Shivdasani

Beneath the hubbub of the kitchen
and the mountain of dishes,
is a dark, brooding space that rises
above the sea, where the gulls
careen, and kites soar unseen
and the wild wind skims along.
This is a space that withstands everything,
the waves slowly chipping its silences:
the chug of the motorboat
invades the rocky shores,
the occasional ship
runs aground.
And should a tsunami churn
its way from the deep,
devouring everything in its wake,
she will fold in on herself,
tuck in her piece of earth,
and change the contours
of her geography.

From Safe House (Mumbai, India: Paperwall Media & Publishing, 2015)



Menka Shivdasani, a Mumbai-based writer, has three collections of poetry and is editor of two online anthologies of Indian poetry for www.bigbridge.org. Sheco-founded Poetry Circle in 1986.

멘카 쉬브다사니 : ممبئی 출신 작가. 시집 3권을 발간. 두 온라인 인도 시선집의 편집인. 1986년에 Poetry Circle을 공동 창간함. www.bigbridge.org

모든 여성은 섬이다

멘카 쉬브다사니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부엌의 소음아래
산같이 쌓인 접시 아래,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어둡고 소복한 공간,
거기 갈매기 비스듬히 날고
뾰족 이 없는 연이 솟아오르고
거친 바람이 스쳐지나간다.

이곳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공간,
파도가 서서히 침묵을 갉아먹는다.
모터보트의 엔진소리
돌투성이 해변을 공격하고,
가끔 지나는 배는
해변에 좌초한다.

스나미가 만물을 집어삼키며
깊은 바다에서
거세게 몰려오면
여자는 몸이 접혀져
그녀의 땅을 감싸 안고
그녀 지형의 윤곽을
변경시킬 것이다.

■ IRAQI POET(이라크 시인)

HARBOR

Rodaan Al Galidi

My mother was the harbor,
my father a boat.

My mother was the boat,
my father a sail.

My mother was the sail,
my father a wind.

My mother was the wind,
my father a horizon.

The harbor, the boat, the sail, the wind, the journey
and the horizon
were my mother,
and my father and I
were travellers;
the one from the outside world
to her inside,
the other from inside her
out into the world.

From *De laatste slaaf*(Antwerpen, Belgium: De Bezige Bij Antwerpen, 2009) *Translated from Dutch (translator unknown)*



Rodaan Al Galidi, born in Iraq, fled from the regime of Saddam Hussein in 1998 to Holland, where during nine years wait for asylum, he learned Dutch and published 15 books in Dutch.

로단 알 갈리디 : 이라크에서 출생. 1998년에 사담 후세인의 독재를 피해 홀랜드로 피신. 망명을 기다리는 9년간 네델란드어를 배우고 네델란드어 시집 15권을 출간.

항구

로단 알 갈리디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어머니는 항구이셨네,
아버지는 배.

어머니는 배이셨네,
아버지는 돛.

어머니는 돛이셨네,
아버지는 바람.

어머니는 바람이셨네,
아버지는 수평선.

항구, 배, 돛, 바람, 여행
그리고 수평선
이 모두는 나의 어머니였네,
아버지와 나는
여행자였네;
아버지는 바깥세상에서
그녀 내부로,
난 그녀 내부에서
세상 속으로.

* 네데란드어 영어 번역 : 번역자 미상

■ IRISH POET(아일랜드 시인)

RAIN IN JUNE

Gabriel Rosenstock

Given from heaven to the earth
It falls down over our expectations
The raising humid air
Brings moisture to life
On my dried heart
It leads to deep, serene longing.



Gabriel Rosenstock, born 1949 in postcolonial Ireland, is a poet, haikuist, essayist, short story writer, novelist, playwright, author–translator of over 180 books, mostly in Irish.

개브리엘 로젠스탁 : 1949년에 postcolonial Ireland에서 출생. 시인, 일본단가시인. 수필가, 단편소설가, 소설가, 극작가, 번역가. 180권 이상의 자신의 아일랜드 책을 영어로 번역함.

6월에 내리는 비

개브리엘 로즌스탁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천국에서 세상으로 주어져
우리의 기대 위로 비는 내린다.
피어오르는 젖은 공기
인생에 습기를 가져다준다.
내 메마른 가슴 위에
비는 나를 깊고 평온한 그리움으로 이끈다.

■ ITALIAN POETS(이탈리아 시인들)

YOU'VE NEVER HAD WHITE HAIR . . .

Laura Corraducci

you've never had white hair
they were just threads
fallen from your sweater
absently I picked them up in the car
on our Montefeltro hills
so now I understand that even pain
can choose his colors
to sicken our memories

Translated from the Italian by the author
All three poems appeared in Agenda in 2016.



Laura Corraducci was born in Pesaro, Italy, where she lives. Her second collection of poems, *Il Canto di Cecilia ealtre poesie*, (Cecilia's Song and Other Poems), was published in 2015 by Raffaelli Editore.

로라 코라두치 : 이태리 Pesaro에서 태어나 거주. 그녀의 두 번째 시집 *Il Canto di Cecilia ealtre poesie*, (Cecilia's Song and Other Poems)이 2015년에 Raffaelli Editore에 의해 출간 됨.

넌 흰머리가 하나도 없더구나...

로라 코라두치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넌 흰머리가 하나도 없더구나.
그건 그냥 네 스웨터에서 떨어진
실밥이더구나.
몬테펠트로 언덕 위 차안에서
난 무심코 실밥 몇 올 주워 올렸지
이제 깨닫는다.
고통은 다양한 색깔로 찾아와
우리를 절망시킨다는 것을

ALAN TURING

Laura Garavaglia

You, too, who gave birth to
amazing artificial thought,
you, shut up in diversity, experienced
back words like a vice, under a sky
of numbers and signs,
you came across evil in the fairy tale
which turns moral into indecent giggling.

From *Numeri e Stelle. Numbers and Stars. Numeresi Stele. Números y Estrellas* (Balerna, Switzerland: Edizioni Ulivo, 2015)

Translated from the Italian by Annarit Tavani



Laura Garavaglia, poet, literary critic and journalist, is president of the cultural association “La Casa della Poesia di Como” and the curator of the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Europa in versi.

로라 가라바글리아 : 시인, 문학 비평가, 저널리스트. 문화 단체 “La Casa della Poesia di Como”의 회장. the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Europa 의 기획자.

앨런 튜링

로라 가라바글리아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당신, 놀라운
인공 사고력의 창시자,
당신, 다양성 속에 갇혀
악덕 같은 수군거림을 당했지,
숫자와 싸인의 세계에서.
도덕을 가십꺼리로 뒤집는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악마들에게 시달렸지.

* 이태리어 영어 번역 : Annarit Tavani

*앨런 튜링 : 영국 수학자, 암호학자, 선구적 컴퓨터과학자. 동성연애자.
가십에 시달려 자살했음.

AN EVENING SKY

*. . . A slash of Blue! A sweep of Gray!
Some scarlet patches—on the way—
Compose an evening sky...
—Emily Dickinson*

Lidia Chiarelli

So sweet was
the scent of those evenings
when
our steps invented long distance routes
in the summer gardens

when
slowly the lights were lit
and competing with the moons and the stars
formed parabolas of light
on the opaque stones of the paths.

Then, life
just begun
seemed to
—just for us—

저녁 하늘

...베어내는 파랑! 쓸어가는 회색!
여기저기 붉은 조각—오는 중—
이 모두가 저녁하늘이라네..
—에밀리 디킨슨

리디아 치아렐리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얼마나 달콤했던가!
그 저녁의 향기
여름 정원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거닐었을
때

서서히 등불이 켜져
달, 별과 경쟁을 벌이다가
충충한 디딤돌 위에
등불이 포물선을 그었을
때.

그 때, 인생은
막 시작되어
환상적 색깔의
하늘같았지
—우리에게만—

a sky of unreal colours.

Countless images
(*fragments of old memories*)
that
today
re-create and break
in the weary kaleidoscope
of the mind.

2012 in memory of my father, Guido Chiarelli
(*Il Meleto di Guido Gozzano Award 2012*)

Translated by the author
From Immagine & Poesia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13)



Lidia Chiarelli (Torino, Italy). Artist and poet, co-founder, with Aeronwy Thomas, of the literary-art movement **Immagine & Poesia** (2007). Award-winning poet, multilingually translated.

리디아 치아렐리 : 이태리 토리노 출생. 화가이자 시인. Aeronwy Thomas와 2007년에 Immagine & Poesia를 창립함. 여러 시 경연대회 수상자, 그녀의 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됨.

지친 정신의
만화경 속에서
오늘
재창조되고 깨지는
무수한 이미지들이여,
(오랜 추억의 파편들이여)

2012년 작시. 나의 아버지 Guido Chiarelli를 추모하며.

*이태리어 영어 번역 : 저자

POET

Luca Benassi

I always mess up
and I should be wearing a sign
lit like a beacon in my flesh,
engraved in my hand, a cross,
an indecipherable letter
from the alphabet of pain
it will say that it is time
for my mistakes:
You know that I get lost
(or we both get lost
—we all get lost)
losing the path
to the peacefulness
that leads to the soft kiss
of the way back.

From *The Glories of the Grey* (Lepisma publishing, Italy, 2005)



Luca Benassi was born in 1976 in Rome. He has published five books of poetry and a book of essays on Italian contemporary poetry, *Throttled Streams—Italian Poets in the Third Millennium*.
루카 베나시 : 1976년에 로마에서 태어남. 5권의 시집을 펴냈고 이태리 현대시에 관한 수필 *Throttled Streams—Italian Poets in the Third Millennium*을 발표함.

시인

루까 베나시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난 항상 실수투성이
그래서 피부 속에 햇불 같은 싸인을
새기고 다녀야 한다.
그건 내 손에 새겨진 십자가
고통의 알파벳으로 쓰여진
해독 불가능한 문자.
내가 실수하면 그 싸인은
경고를 줄 것이다.
평화로우므로 가는 길을
부드러운 키스로
되돌아가는 길을 잃고
내가 헤매는 것을
(혹은 우리 둘 다 헤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늘 헤맨다)
당신은 알고 있다.

■ POLAND POET(폴란드 시인)

BLACK SILK

Dariusz Tomasz Lebioda

I stand by the side of the road
not larger than a lady bug or moth

not larger than the tear of a crow
or the pit of an apricot

not larger than a grain of flax
or eyelash of a doe

—fearfully I lift
up my head and

listen to the radiance
of the black silk

of eternity

New York, 2000

Translated into English by Adam Szyper & Stanley H. Barkan

From *Black Silk* (Merrick, NY: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002)



Dariusz Tomasz Lebioda—b. 1958, Polish writer, visiting professor at SUNY. Author 70 books. Published in 13 countries. President of European Medal of Poetry and Art-Homer.

대리아즈 토마즈 리비오다 : 1958년 생. 폴란드 작가, SUNY의 방문 교수. 약 70권의 책이 13개국에서 출간됨. European Medal of Poetry and Art-Homer의 회장.

검정 실크

대리아즈 토마즈 리비오다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무당벌레나 나방보다 크지 않은
내가 길 옆에 선다.

까마귀 눈물보다
살구 씨보다 크지 않고

아마 씨 한 알보다
암사슴 속눈썹보다 크지 않다

—두려워하며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영원한
검정 실크의 광채에

귀 기울인다

2000년, 뉴욕

* 폴란드어 영어 번역 : 애담 자이퍼, 스탠리 발칸

■ ROMANIAN POET(루마니아 시인)

IN OCTOBER I WILL CERTAINLY COME

Daniel Corbu

Ever Unrelenting You,

In October I will certainly come
when the moon rubs itself against the hills and the trees are
abulic,
when I am no longer taken up with those defeated
by earthly diseases
with those that put on airs
or those whom no one brings to life.

Glory to You, Transient Water of Times

glory to you!
In October I will certainly come
when the moon rubs itself against the hills,
in a moment of grandeur and haughty dreaming
then will I come.
How much will I enjoy
passing away with my dreams left nearly untouched!

Translated into English by Olimpia Iacob & Joan Digby



Daniel Corbu is a poet, writer, museographer, publisher, and editor-in-chief of *Feed Back*. Recipient of the Great Prize of Romanian Academy, he has published books of poetry and essays.

대니얼 코르부 : 시인, 작가, 박물관 행정가, 출판자, *Feed Back* 잡지의 편집장. the Great Prize of Romanian Academy의 수상자. 다수의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함.

10월엔 기어이 오리라

대니얼 코르부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무자비한 그대여,
시월에 난 기어이 오리라
달이 언덕에 제 몸 비비고 나무들 시들 때,
속세적 질병과 싸워 진 자들과
잘난 척 하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내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도 될 때.

그대에게 영광 있으라, 덧없는 세월의 물이여
그대에게 영광 있으라!
시월에 난 기어이 오리라
달이 제 몸을 언덕에 비빌 때
장엄하고 오만한 꿈과 함께
그 때 난 오리라.
내 꿈을 건드리지 않고 맞는 죽음을
난 무한히 즐기겠노라!

* 루마니아어 영어번역 : *OlimpiaIacob & Joan Digby*

SERVANT

Nino Provenzano

To serve false gods
from morning until night
is good for those who like to put on
different uniforms and masks each time the mirror calls.

The human being
who adheres to a fanatical ideal, to a vice or to someone
who has the fame he wants to have,
is a man with a wooden heart and mind of straw.

A servant is somebody's shadow.
The servant of someone or something
is like a clock that ticks but has no hands.

The servant is indeed human, but it is used, it's second
hand: wine without alcohol,
a mirror that reflects no images.

*Translated from the Sicilian by Prof. Gaetano Cipolla
From Il Tornu / The Return (Legas, 2009)*



Legas 사가 출판함.

Nino Provenzano is the Vice-President of Arba Sicula. He has published two books of poetry, *Vinissian d'Il Tornu / The Return*, both translated by Prof. Gaetano Cipolla and published by Legas.

니노 프로벤자노 : Arba Sicula의 부회장. *Vinissian d'Il Tornu / The Return*, 두 권의 시집을 발간. Prof. Gaetano Cipolla가 번역하고

하인

니노 프로벤자노

번역 : 이승은(Rachel S. Rhee), 서경화

아침부터 밤까지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은
거울이 부를 때마다
다른 유니폼과 마스크 착용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열광적 야망이나 악덕이나
선망하는 명성을 가진 자에게
집착하는 인간은
목적 같은 심장과 지푸라기 마음을 가진 자이다.

하인은 그 누구의 그림자.
누군가나 어떤 물건의 하인은
재깍거리나 바늘이 없는 시계와 같다.

하인은 실제 인간이지만 이미 써버린 중고품이다:
알콜 없는 와인이요,
모습을 비춰주지 않는 거울이다.

* 시칠리아어 영어 번역 : *Prof. Gaetano Cipolla*

폴란드 대표시인 소개



토마즈 소비에라즈

Tomasz Marek Sobieraj (1964, Poland), poet, writer, literary critic, fine art and social documentary photographer. Editor-in-chief at *Krytyka Literacka*, literary arts magazine in Łódź, Poland. His poetry has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Russian, Spanish, Danish, Italian, Korean and Ukrainian.

토마즈 소비에라즈: 1964년 7월 1일 폴란드 출생. 시인, 소설가, 문학 비평가이자 순수예술과 기록영화의 사진사. 폴란드의 문학예술 잡지인 「*Krytyka Literacka*」의 편집장. 그의 시 작품은 영어로 번역되어 러시아와 스페인, 덴마크, 인도, 한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에 발표되었다.

IN THE GARDEN

We were picking plums in the garden
climbed high and naked
among the branches of an old tree.
The sun was shining,
leaves and insects were rustling,
obsessed just like us,
by the last days of summer.
Our fingers were sometimes meeting
on small planets:
then
we brought order of a green universe
with double strength.
Fruits,
sticky with juice,
we were throwing to the bucket:
eating some of them right away
giving to the mouth of each other
the ripest ones.
Sweet drops
were running down our chests.

But when satisfied and calm
we were lying sleepy on the porch,
no voice came out of the trees,
nor any motion of leaves could be seen.

A STONE

I picked up a stone,
so ordinary, grey-and-white;
there's many of them
in the neighbourhood.

The stone was so common,
so imperfect,
that I just dropped it
carelessly.

It tumbled onto another stone,
equally imperfect,
in despair,
on its last legs,
halved.

And showed inside
a perfect shape
of ammonite.

Anyway, I unlocked the secret
hidden in the common form
of a stone.

PEOPLE WITHOUT EYELIDS

In this city
people don't have eyelids.
They are sentenced to look
even in a dream.
Winds squeeze their tears,
through which they see ocean images,
a big animal
slobbering with foam,
spitting seaweeds.
And they
sacrifice their bodies
for him
in a last will,
and watch how the waves
blur the footsteps
in the sand.

Translated by Stanley H. Barkan

SATISFACTION

The night subsided
before dawn,
semiconsciously
but still vibrating,
blissed,
and dazed by the fierce caress
of a storm.

I gazed at this with great admiration,
inhaling aroma,
intensely erotic,
morning scent
by Lake Er Hai.

Translated by Stanley H. Barkan

A VIEW OF ME FROM THE VALLEY

I'm climbing
up and up...

But getting smaller
in the background
of that
big mountain...

I'm climbing
yet still shrinking...

Translated by Stanley H. Barkan

AN INTERVIEW WITH WILLIAM HEYEN

STILLNESS MOON

by Bill Wolak

WILLIAM HEYEN was born in Brooklyn, NY, on November 1, 1940, and raised by his German immigrant parents in Hauppauge and Nesconset in Suffolk County. Eventually, he earned his PhD in English at Ohio University, and has also been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of Humane Letters from SUNY. A former Senior Fulbright Lecturer in American Literature in Germany, he has won Guggenheim, NEA, and several other awards. His work has appeared in hundreds of magazines and anthologies, and he is the author or editor of dozens of books, including *Noise in the Trees* (a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Notable Book"), *Crazy Horse in Stillness* (winner of the Small Press Book Award), *Shoah Train* (finalist for the National Book Award), and *A Poetics of Hiroshima* (a Chautauqua Literary and Scientific Circle main selection). His voluminous journals are appearing from H_ANGM_N Editions. In 2016, Etruscan Press will publish *The Candle: Collected Holocaust Poems / 1970-2015*. Mr. Heyen lives with his wife in Brockport, NY where he is Professor of

English/Poet in Residence Emeritus at the College at Brockport.

In July of 2015, Bill Wolak and Stanley Barkan traveled to Brockport, where this interview began. The interview continued during a visit with the poet to his archive and book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Rochester Library, and then was completed by e-mail.

Bill Wolak: At what age did you first become interested in poetry?

William Heyen: You know, Bill, I was an athlete, even an All American soccer player in college, so most of my time was taken up with sports. But I remember being about nineteen and scribbling verses on the flyleaves of textbooks while in undergraduate classes. My doggerel was probably the result of being dropped by a high school girlfriend a couple of years before. I do believe in trauma as (sometimes) the spark for poetry. My hurt sounds trivial, maybe, but I was devastated. But we never know when we are having good luck. I've been married to my soul-mate for 53 years.

In graduate school at Ohio University, I began to get serious, began reading contemporary poets like Richard Wilbur and James Wright and saying to myself—competitive now but not in sports—hey, I can do that. I soon found out how hard it was as I lost sleep scratching and scratching. How was it possible to break through into a poem? It took

me about five years of fairly obsessive work to have enough poems for a first collection (*Depth of Field*, LSU Press, 1970).

BW: Can you give us an idea about the poets who hav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you?

WH: Well, maybe I've been most influenced by individual poems—or prose (I think the greatest book I've ever read may be William Faulkner's *Go Down, Moses*—I get choked up reading many passages)—but certainly Walt Whitman is at the top of my list as the greatest poet who ever lived (except maybe for Homer). You'll find essays of mine about him in a couple of my prose books. And a couple of sons of Whitman have been important, Theodore Roethke (subject of my dissertation) and Allen Ginsberg, as I always try to stay receptive to break-through, as they and Saint Walt broke through. Among the modernists, I knew and corresponded with Archibald MacLeish, and loved him and learned from him: "For all the history of grief / an empty doorway and a maple leaf." But I think the modern poet who most helped me land and helps me still is Wallace Stevens, and this mainly for the way a poem can keep moving, keep flowing, forge a forward motion that penetrates and encircles the musical imagination. Poems like "The Woman in Sunshine" and that wonderful late poem "The World as Meditation" show the way for me. And there are the poets of exile, Paul Celan in particular—what voltage! Too many other poet

influences to try to mention them.

But this caution. William Stafford—another poet important to me for myriad reasons—when asked about the greatest poetic influence on him said that it had been his mother, her voice. So, yes, we read and absorb and find poets and poems to help us create our own sense of beauty on the page, but family influences are strongest, and our childhood landscapes, and our teachers and teammates, and the history, in my case certainly, that entralls and appalls us... My book *Titanic & Iceberg: Early Essays & Reviews* is a good indication of what was on my mind in my early years, my readings I was hoping to become, as we say these days, "part of the conversation." Also, *Home: Autobiographies, Etc.* (which includes a few other interviews).

BW: How would you define poetry?

WH: Well, any definition would seem to narrow it. Mayb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at which exists beyond paraphrase, beyond interpretation and theory, beyond translation. But I do think that poetry is our only chance as a species to survive on this earth, and I'm not just talking about our lyrics, our word/language constructs, but about a way of thinking that might enable us, as Emerson requires, to "integrate." The poet is the one who integrates, who makes us realize that we of all cultures are in this together, that the bell tolls for all of us, that all is One, in the end,

as we move toward our common death. But I don't want to preach about this, or to understand it to the point where I become smug. I just want, by way of sound/story/image/rhythm to find on my own page a poem that is smarter than I am, as Archibald MacLeish says it must be, that has within itself whatever it needs to go on thinking about itself (and us) and its meanings longer than any one of us will. I've written my best poems in a semi-trance, one line appearing after another, rave and dream and song-sound, and have later been surprised at how much has welled up from me into them.

BW: Can you explain a little about your writing process? How do you compose poems? Do you begin by jotting down the lines by hand or do you compose directly on a computer?

WH: Everything is by cursive, at first. I compose myself, and any poems I'm lucky enough to hit, by way of the handwriting I learned in grade school. New generations of writers I'm sure can feel the fusions of mind and word while their fingers are on a keyboard and their writing appears for them on a screen, but I can't imagine this for me. I'm a thousand years old. I need a pen, ink, paper, the flow of letters from left to right and then left to right again. I type nothing up until I think it's finished, though I do sometimes make minor revisions before printing something up for staring and hearing. These years, when a poem does come—

I've 250+ new ones toward a huge book that will be called *Chainsaw*, and I'm in no hurry to publish it, and won't be—it usually needs little revision, certainly not as much tortured rewriting as when I was in my 30s, 40s, 50s. And I have so many new ones now that I'm not afraid just to cross a poem out that has appeared in my notebook, and scrawl "forget it" below it if it doesn't sufficiently complicate itself or if it lurches in ways I can't fix. And I've been in poet's heaven, thinking (maybe of course deluding myself, but I don't think so) that my recent poems are my best, by way of natural voice and by way of the unconscious consolidations of craft over the decades.

BW: Do you have a daily writing routine?

WH: Not really. When I was young, I'd sometimes write all night when I should have been doing something more practical or sleeping, and then I'd be wiped out the next day. Now, I usually begin by writing in my journal each morning, & then maybe draft a new poem, or go through a sheaf of things, or write a snail to a friend. Then, for the rest of the day between whatever else is going on and helping to keep our house in repair and this acre of land not manicured but in some kind of order, and not to mention that my wife and I have four teen-age grand kids, my writing is hit or miss. But I've been very fortunate, and know this, because of my academic schedule over decades, to have had summers off, long vacations, sabbaticals,

grants. And reading intensely for teaching literature classes has been part of the whole learning and writing process for me. I got into teaching when there were plenty of jobs. I'd not like to be getting out of graduate school now and looking for work.

BW: Hidden back in the woods behind your house on your acre of property in Brockport, you have a delightful little writer's cabin. How and when was that constructed? Is that where you do most of your writing?

WH: Well, Bill, to call my 8' x 12' shack a cabin (as I've called it) is probably to flatter it. But, yes, I'm glad I've had it, and you can see artists' woodcuts of it on the covers of the first volume of my journal. Anyway, about forty years ago my father and my older brother, Werner, drove up from Long Island and banged it together for me (I'd laid down the foundation blocks). It ain't much, but is secluded, & quiet, and I used it a lot for decades. It's only 250' or so from my house, but I never did schoolwork back there, so by the time I walked back I was ready for journal writing and poetry and maybe some snail correspondence. I still get back there, but not nearly as often as when we had so much stuff going on in our home when our two kids were knocking about and the phone was always ringing... Look, all of us who belong to the tribe of scribblers try to place ourselves, like old dogs, where we are comfortable, and where we don't have to be social every minute. And the cabin is a sentimental place for me, too: William Stafford

and Joyce Carol Oates and Stan Plumly and publishers Bill Ewert and Antonio Vallone and my late friends Anthony Piccione and Al Poulin have sat in there with me. And even poets from China and Sweden. And all my family, too. And now you and Stan Barkan have visited the cabin. Maybe I should have kept a guest book!

BW: What was the best poetry reading that you ever attended? Why does that reading stand out in your memory?

WH: Interesting question, one I've never been asked. Several readings come to mind quickly. One by David Ray in the early 60s at Cortland, NY, where I was teaching at the time. A student asked Ray how he felt about it when someone didn't understand his poems. He said he didn't care. I was upset at the time, but now understand this better (as defensive, as not wanting to water down) but would have expressed this more gently than he did. Whitman said that in the main people had to come to poetry, that poets couldn't go to the people (even as he had his arms wide open for all of us).

And a reading by James Dickey when I was in grad school—his stories around and within his poems. And a reading at Brockport by Galway Kinnell that dazed me for the command of such earned poems known by heart; and a few readings by that generative force Joyce Carol Oates, on whose every sentence I felt suspended; and a reading by William Stafford

in Rochester when he said something that still reverberates for me in complex ways: "I love feeble poems"; and, to mention just one more among so many vivid recollections, a reading by William Everson where, in an uncomfortable science lab room, after being introduced, he didn't say a word for a full five minutes, but tried to get comfortable, turned around & around, closed his eyes, & folks were even beginning to leave, but then he began, and was mesmerizing... These days, I guess I most enjoy small readings, poets/folks in a circle, taking turns, kindred spirits communing. Over the decades I read or lectured at several hundred places, but am no longer interested in travel. I can travel while being at home. I might never get on a plane again.

BW: What role does stillness play in poetic composition?

WH: Yes, we have to reach, I think, even after agitation or fear or bafflement or any of a hundred unsettlements, some state of calm, quiet, stillness wherein, almost of its own volition, our poem can keep on its own course. A Zen teacher at Brockport, years ago, spoke of the moon being reflected on a river, the river (with its disruptions) flowing by, but the moon, the moon beneath our breastbones, staying in one place. I have an essay about this in *Pig Notes & Dumb Music...* You know, Saint Walt could get angry at a dumb dog who barked even at a familiar neighbor, but he carried the moon of stillness inside himself.

BW: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your journal writing and your poetry?

WH: I don't know. Maybe it helps me reach ease as I get my worries and angers off my chest, and as I keep hauling myself up into the present. You know, Bill, my journal might be the most extensive (I didn't say best) in our literature. So far, I've gotten only three volumes into print, and keep typing little by little, but seem to write more new entries than I can type old entries. I'm typing 1999 now for volume four, and these are quarto-sized single-spaced 10-point 575 or so paged volumes. I might have to try, though I'm a semi-Luddite and creature of habit and reluctant, voice-into-print technology before long.

But I don't draft poems in my journal. I talk of my reading, my family and friends, ask my journal what it might like to hear from me today, report my anxieties and successes and furies and failures as I try to become a grown man. I let memories arise. I think I'm pretty good at not being self-conscious—and being so far behind when an entry I'm writing today might eventually appear (maybe not in my lifetime) help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is not to censor myself, and when I publish a volume I do not edit down to scintillant moments. I wish I had journals from poets important to me who talk not just about aesthetics, say, but about taking out the garbage and dental appointments, about how they live in the world when they

are not reading Dante or are in the ethereal throes of inspiration. Maybe my journal is part journal and part just diary... Look, we're all scribblers—let's enjoy ourselves and fill blank books (or computer files) with thought and feeling, with life. And I must say, I'm sort of surly about my journal volumes, thinking that I didn't ask you to read them, so don't look for them, and if you don't like what you read and think me unworthy, just fuck off and find something else to read... At the same time, I'd like to think that reading Heyen's journals might become an acquired taste, that the often-asinine and puerile journalist might grow on you...

BW: How do you conceive of the poet's role in America today?

WH: I don't suppose it's any different from any poet's role in any society at any time. In any case, I wouldn't want to freeze myself into any position on this. Let me answer with a little poem. It's maybe too sentimental, too-too, but here it is, plaintive and resigned and maybe content and even happy. I call it "Evening Song":

Now it is too late not
to kiss goodbye
to all I might have been & done
if only
I'd not kept faith with you
& you with me

all my years, my soul,
my poetry.

I hope I've kept faith with my soul, my inner-self, my intimations toward... beauty, even when beauty is shot through with terror. I might have been and done other things, but I've no regrets. I do wonder what other life or lives I might have had, but I've needed to try to write poems, or, to put it better, to put myself into a position of reception wherein poems might emanate from my mind-pen. There's a powerful moment in Emerson's *Nature* when he says that "Every man's condition is a solution in hieroglyphic to those inquiries he would put." Maybe this says that I've had the life I've had and am now in this place where I am, doing what I do, because of the questions I asked myself, unconsciously, when I was a boy and young man.

BW: Part of your archive is now housed in the University of Rochester Library; many of the books that you've collected are now in a room surrounded with glass-front bookcases.

WH: Yes, for fifty years now I've collected first editions of contemporary poetry, and had books inscribed whenever I could. Association copies are very important to me, and I haven't wanted them spread out on the rare books market as have been books from the libraries of Richard Hugo, William Stafford, Paul Zimmer, and so many others. Luckily, Peter Dzwonkoski, the head of Rare Books & Special

Collections at Rochester about twenty years ago foresaw such an archive as it came to be, felt the way I do, and worked to buy my books, correspondence, manuscripts. Now, it's as though I still have my books together—nothing can be placed in that room without my permission—and the institution is caring for them in a climate-controlled room where there are sometimes classes and readings where all my precious Wilburs and Staffords and Oates and May Sartons and Cynthia Ozicks and Seamus Heaneys and Ray Carvers and Robert Penn Warrens and Archibald MacLeishes and hundreds of other poets ranging from the very famous to the largely unknown listen in. There are long stories behind my obsessive gatherings of so many books, all my altruistic and selfish reasons. I was so glad that you and Stan Barkan got to experience that room... Of course, I still have at home hundreds of gems, so am not lonely for books. I have for example copies of the anthologies I've edited, special copies inscribed by dozens of contributors to *American Poets in 1976*, *The Generation of 2000: Contemporary American Poets*, and *September 11, 2001: American Writers Respond*. Priceless.

BW: Can you describe a few of the unpublished poetic projects that you're working on now?

WH: Ha, glad you asked... Well, there are the journal volumes that will keep coming out as long as I live, knock wood. And I've mentioned *Chainsaw*. And I've enough essays

to expand *Pig Notes & Dumb Music*. And I've got about 3,000 (no kidding) 13-syllable poems, my "scherzi," to do something with eventually. And a letterpressed book of 28 baseball poems is coming out. And *The Candle*. And I've a folder building of form poems, non-free-verse pieces. And, come to think of it, I've written about 30 little plays, meant to be read only, staged only in the mind, that I haven't typed up yet. (And there will be productions of June Prager's *Distant Survivors*, a play which she built from my Holocaust poems.) And I'm fooling with a preface right now for the bibliography of my work by Michael Broomfield that he's been at for decades (his two previous bibliographies, ahem, are of John Updike and Robinson Jeffers). And I want to do a book called, in homage to incendiary Emerson, *Nature*, which would reprint my books *The Chestnut Rain*, *Pterodactyl Rose*, and *The Rope*, nature/ecology books, and select such poems from other of my volumes. I'd like to find an editor for this who might do the typing grunt-work & write a preface. I think I have a publisher. Is there a volunteer out there? I'm at 142 Frazier St. / Brockport, NY 14420...

The American Measure

BY WILLIAM HEYEN

On my natural way to the discovery of what it dawned on me
to call

the single-line couplet,

I spent days on my back acre pulling wild grapevines from
trunks & limbs

of dead ash

that the emerald borer had killed, & now the trees would be
firewood,

& grapevines

would obstruct my chainsawing, so, to be safe, I pulled them
down,

some vines an inch thick,

cleared spaces, cleared entanglements, & then would fell a tree.

As I worked,

I talked to myself, having come to this voice, it was late
summer,

then early autumn,

then late autumn, I kept working, kept talking to myself in
these single-line
couplets that were like

a chainsaw chain cutting into an ash trunk, the razzing & the
chewing, the chips buzzing

to my feet, then the tree falling, & then the cutting into
sections, good work,
the American measure

that Doc Williams always looked for to get himself said who
never, so far as I know,

chainsawed, but who listened over my shoulder, the happy
genius
of my woodlot.

My High School Flame

I found what seemed to be a human heart entangled in fish-
line & beach grass,

or maybe something from nature had washed up, coconuts
or brine-shaped

driftwood, or was it a rolled-up skirt or letter sweater
or cerise blouse,

but, yes, it might have been a human heart, or should have
been,

but it was only—

I danced up to it & bent to it & kept listening—it was only
an old song

I'd once sung, wouldn't you know it, not her heart, or mine,
just our old song.

Blackbirds

No, I'm not protesting too much when I say I wouldn't want to
be Paul McCartney

who is launching—this is 2013—a U.S. tour requiring thirty-one
trucks of equipment

including lasers, huge pyrotechnics, explosives, state of the art
video displays—

at one point in the show, Sir Paul will rise 20' above the stage
in a spiral construct

as he performs "Blackbird" & "Here Today" acoustically...
Imagine being one of the old Beatles,

traveling to sold-out arenas where berserk fans want your DNA
so your bodyguards

have to cut a swath through them & through paparazzi
& you become

caricature with make-up & rush through changes of clothes,
& whole industries

of roadies & technicians & record labels & vendors of
maryjane & hot dogs
& memorabilia

expect you to deliver. No, I am not protesting too much, he's
my age,

I love this

easy chair of mine, candle & coffee & cursive, sure I'd like
money, enough of it,

to fund my four grandkids' college educations, pay off a couple
family mortgages,

but all that hype & blare, that travel, & the burnished oldies
receding,

"Hey Jude" & "Yesterday,"

& John in his grave, & George in his, strawberry fields, don't
you & Ringo

just want to stay home

wherever home is, don't you just yearn, Paul, to compose
something

even better

than what you've done, aren't you gut-sick of spending your
power in such disquiet,

wouldn't you withdraw if you could, aren't you, compared to
me, unhappy,

they're all screaming, you're seventy & spiraling up through

colored smoke,
you're trying to sing

acoustically, "Blackbird," while my own "Redwings" & "Blackbird
Spring" are much better,

I'm insufferable to say it, but it's true, "I celebrate myself," you
could build on
your book of lyrics

Blackbird Singing, couldn't you, I'm going to write better every
year, are you,
Paul you're wearing

too much rouge & lipstick this spring day as the males have
returned to marshes hereabouts

to declare their territories, look, look at their bright red
gashes, hear, hear
their warning songs!

Chandelier

Decades ago my late friend Martin Booth drove us from
Cambridge

to London where we read

at the Poetry Centre with beveled windows behind us, on an
afternoon

multi-mullioned.

The rain through which we'd sped that November Sunday
had stopped,

& in that elegant room light intensified from behind us,
coalesced

on Martin's back

where he stood at a carved oak lectern & railed against
English manners,

& remembered Chatterton,

& diatribed the current poetry scene in Britain as puerile,
sterile,

& said that the American

here with him today wasn't, so that by the time I read, half the
audience

had sworn patriotic allegiance

to all those Martin labeled "decorous versifiers," & were pissed
at me.

I don't remember

what poems of mine I spoke, nature or the Holocaust or both,
but now

I'll leave merry England—

its chandelier disappears as the room brightens with prisms
of polite applause,

then Martin's fierce aspect as he slammed his car door &
drove us out of there

like bards from hell.

(Martin Booth, 1944-2004)

[This interview was arranged under the auspices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Bill Wolak has just published his twelfth book of poetry entitled *Love Opens
the Hands* with Nirala Press. Recently, he was a featured poet at The
Mihai Eminescu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in Craiova, Romania. Mr. Wolak
teaches Creative Writing at William Paterson University in New Jersey.

KOREAN TRANSLATORS

Kyung-Nyun Kim Richards is a poet, essayist, and translator of Korean literature. Korean born, she has lived in the US since 1967 and writes both in Korean and English. Her translations include *Dictée* (by Theresa H-K Cha), *Sky, Wind, and Stars* (by Yun Dong-Ju), and *The Love of Dunhuang* (by Yun Humyong). Her original work was collected in *Snail* (in Korean) and *Vision Test*. A recipient of The Top Prize in Poetry Translation from The Korea Times Translation Contest (1996) and the 39th Translation Award from PEN Korea (2006). E-mail: richards kyungnyun@gmail.com

김경년(Kyung-Nyun Kim Richards): 서울에서 출생한 시인이며 수필가, 그리고 한영문학 번역가. 김 시인은 UC Berkeley대학교 교수이며 「해외문학」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 그리고 해외문인협회 회원. 김 시인은 시집 “달팽이가 그어놓은 작은 점선”, “시력 검사”를 출간했다. 번역서로는 윤동주 시집 “별 헤는 밤” (Sky, Wind, and Stars), 김승희 시집 “I WANT TO HIJACK AN AIRPLANE” 등 다수. 1996년 The Korea Times 현대문학 번역상(시부문), 2006년 한국 국제펜문학상을 수상했음.

Rachel S. Rhee is a writer and translator of Korean and English poetry. Her work has appeared in *Korean Expatriate Literature*, *The Seventh Quarry*, *Shabdagucha*, *The Paterson Literary Review*, and *Cyclamens and Swords*. She was the primary translator for an international poetry anthology *Bridging the Waters* (2013) and is a member of the National Writers Union. She received two awards from *Korean Expatriate Literature* for

translation and for original poetry. She currently works as a psychotherapist in Pennsylvania.

레이첼 S. 리: 시카고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이스턴대학에서 카운슬링으로 석사학위. 영어로 시를 쓰고 한국시와 영어시를 번역함. 그녀의 번역 작품은 「해외문학」과 시전문지인 영국의 「The Seventh Quarry」 인도의 「Shabdagucha」 미국의 「The Paterson Literary Review」, 그리고 이스라엘의 「Cyclamens and Swords」 등의 잡지에 게재되었음. 국제 시선집 《한미 현대시》(Bridging the Waters=물 위에 다리 놓기)(2013)의 주 번역가로 참여했으며 National Writers Union의 회원임. 「해외문학」에서 번역상과 시부문 신인 문학상을 수상함. 펜실베이니아에서 심리치료사. **현재 박사과정 중.**

Kyung Hwa Rhee earned a B. A. in Library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in Korea. She has been the Korean language consultant for the translator Rachel S. Rhee, her daughter, since 2000. She currently works as a realtor in Michigan.

: 연세대학 문과대학 도서관학과 졸업. 주로 한국어 부분에 대한 자문을 중점적으로 하여 번역가인 딸 Rachel S. Rhee와 공동 번역자로 일해 옴. 현재 부동산 에이전트로 미시간 주에 거주하고 있다.

Eunhwa Choe was born in Kimpo, South Korea. She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74. She received B.A. in English Literature and Language and M.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rom University of Maryland. She was a member of the Korean American Writers Group and Sihyang. As a literary translator, she translated many number of poems, essays, and short stories from Korean to English. Major contributed works include [Surfacing Sadness: A Centennial of Korean American

Literature, 1903-2003] and [Fragrance of Poetry: Korean-American Literature]. She currently works for the U.S. Department of State as a reference specialist.

최은화(Eunhwa Choe):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 1974년 도미. 메릴랜드 대학 영문학 학사,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워싱턴문인회' [시향] 회원이었다. 문학작품 번역을 1993년부터 해 오면서 다수의 시, 수필, 단편소설을 번역했고,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문집인 《사진신부》의 영문판 Surfacing Sadness: A Centennial of Korean American Literature, 1903-2003와 [시향]의 'Fragrance of Poetry: Korean American Literature' 번역에 참여했다. 현재 미국무부 자료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의 명시

잡플 | 리상각

WEEDS | Sang-Gak Ree



리상각(이상각) 시인은 193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3세 때 북만으로 이주한 이래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 1961년 연변대학 조문학과를 졸업하고 월간지 "천지"(현 연변문학) 주필 등을 역임했다.

리상각 시인은 길림성 민족문화상 수상과 중국 소수민족문학상 수상, 중국작가협회 우수편집 영예상 등을 수상했다. 중국당대 소수민족문학연구회 문학성과 1등상을 수상하고 '연변 작가 협회' 부주석, 중국작가협회 회원, '세계시인회(미국)' 회원, "해외문학" 미국 편집위원이 기도 하다.

저서로는 "샘물이 흐른다", "두루미" 등 18권의 시집을 발간하는 등 조선족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어, 마케도니아어 등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 수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잡풀

리 상 각

잡풀은 잡풀끼리 어울려 산다
갖가지 모양새, 수수한 차림새
오가는 길손이야 모든 말든
바람 부는 대로 하느작이는 몸짓
가느다란 잎들이 어깨를 비빈다
이름 없는 꽃들이 미소를 짓는다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는
잡풀 이야기 하냥 즐겁다
거목은 아니어도 거목의 꿈
생명의 빛을 세상에 펼친다
푸르게 그러나 조용히 설레면서
잡풀은 잡풀끼리 어울려 산다

[Korea's famous poem] 번역/ 김경년 교수(UC 버클리대)

WEEDS

Sang-Gak Ree

Weeds live together with other weeds as themselves.
in all kinds of shapes, with ordinary looks.
Whether passers-by coming and going notice or not,
they make their slight gestures in the wind.
Their thin leaves rub shoulders with the others.
The nameless flowers put on their smiles.
Their heads together, they whisper
their grass stories full of joy.
They are not giant trees, but they spread out
the dream of a giant tree, the light of life.
Green, but quietly stirring,
weeds live together with other weeds in harmony.

Translation by Kyung-Nyun Kim Richards & Steffen Richards ©2016

한국시 초대석

동백꽃 그리움 외 1편 | 김초혜 시인

첫봄 외 1편 | 문효치 시인

연꽃 | 박제천 시인

내가 가을을... 외 1편 | 조영란 시인



김초혜

충북 청주에서 출생. 1964년 「현대문학」 시 추천으로 등단 제2회 한국 문학상 수상.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현대문학상 수상, 정치용문학상 수상. 시집: 어떤 전설 <떠돌이 별> <섬> <사랑국> <고요에 기대어> <빈 배로 가는 길> 등 다수가 있다.



문효치 시인

1943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 1966년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무령왕의 나무새' '백제 가는 길' '계백의 칼' 등 10여 권. '신년대', '진단시' 동인활동,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장 역임. PEN 문학상, 천상병시문학상, 정치용문학상, 시예술상 등을 수상. 현재 계간 《미네르바》 주간 겸 발행인, 제26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박제천 시인

1945년 서울에서 출생.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현대문학상, 한국시협상, 월탄문학, 운동주문학상,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마음의 샘' 과 시집 '장자시', '너의 이름 나의 시', '나무 사리', 등이 있다. 현재 문학아카데미 대표, 계간 「문학과 창작」 발행인 겸 편집인



조영란 시인

1962년 서울에서 출생한 한국의 여류 시인이다.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2016년 시전문지 「시인동네」 봄호에 시 부문 신인상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조 시인의 작품들은 격월간 「시사사」와 계간 시 전문지 「미네르바」, 계간 시 전문지 「동안」 등에 발표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움 1편

초혜

떨어져 누운 꽃은
나무의 꽃을 보고
나무의 꽃은
떨어져 누운 꽃을 본다.
그대는 내가 되어라
나는 그대가 되리.

안부

강을 사이에 두고
꽃잎을 띄우네

잘 있으면 된다고
잘 있다고

이때가 꽃이 필 때라고
오늘도 봄은 가고 있다고

무엇이리
말하지 않은 그 말

첫봄 1편

효 치

저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우수의 안개가
이제는 서서히 벗겨지누나.

번민의 잣 숲
톡톡 터져 오르는 새순엔
동박새 소리 묻어 반짝이누나.

계곡의 둔덕엔
새벽의 휘파람소리 접혀 접혀
얼음장 부수고

흙밭에 뛰어다니는 햇빛
바위 밑에 모여
은밀한 사랑 진하게 빚누나.

달무리무당벌레

벼락 맞아 불타버린
둥근 달의 한복판에
뚝뚝 하나 파 놓고
그대 맑은 눈물로
찰랑찰랑 채웠네
물봉선 두어 포기 들어와
보라색으로 자라고 있네

연꽃 1편

제 천

연꽃 보러간 연꽃 늪에 연꽃은 보이지 않고
우산만한 연잎에 모여든 빗방울들만
비에 젖은 나를 기다리네.
어떤 빗방울은
제 몸 속에 피보다 붉은 연꽃을 피워내고
어떤 빗방울은 아직 피워내지 않은 꽃줄기마다
가시를 번쩍이고 있네.
어떤 빗방울은 바람에 날리는 꽃술마다 눈을 달아서
늪 가득히 띄운 채
연꽃 보러온 사람들 하나하나를 지켜보느니
연꽃 보러간 연꽃 늪에서
보지도 못한 연꽃 속 연실처럼 자라나는
내 얼굴, 내 마음 속죄만 들키고 말았네.
군데군데 입을 벌린 구멍 사이로 드러난
땅속 진흙처럼 어지러운
내 마음의 진창을 들키고 말았네.

돌의 집

달이 뜨면 몸이 달아지네
아무리 뚜드려도
그 여자가 잠자는
돌의 문은
열리지 않네
돌의 곁과 곁 사이로
한밤 내
달구어져 찍히는 내
손 자죽
아침이면
달의 무늬만
돌에 가득 차네

내가 가을을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 1편

영 란

가을 신호등을 보며 건널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래 전 제목만 붙여놓고 밀쳐둔
달팽이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횡단보도 앞에 보호색을 띤 달팽이들이 나를 스쳐간다
목줄에 끌려가는 달팽이
스쿠터를 타고 가는 달팽이
커피 보자기를 들고 가는 달팽이
유모차에 실려 가는 달팽이
농구공을 튕기며 날아가는 달팽이

저렇게 많은 달팽이 중에
내가 끌어다 쓸 상징이 없다는 데 이르러 나는 점멸한다
이미지만 남기고 가는 달팽이
달팽이는 빠르다, 아니 느리다
저만의 무늬로 상징이 되어가는 달팽이를
어떻게 옮겨야 할까

달팽이는 놓아주는 순간 더 가까이 온다!

이것은 비단 달팽이의 경우만은 아니라는 생각
기다림 끝에는 은유처럼 다음이 오고
가을 신호등이 다 건너갈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서 나는 점멸 또 점멸하는데

오래전부터 상징이 되지 못한 달팽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을 거란 불안감이
또 깜박,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

나를 아끼는 현명한 습관

간호사가 묻는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적당한 것으로 해주세요, 주저 없이 대답하고 혼자 피식 웃는다. 링거 바늘이 긴장한 혈관을 사정없이 들쑤신다. 몸속에 스미는 농도만큼 나는 여한 없이 눈감은 환자처럼 편안하다.

중간을 고르는 것은 나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누구보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는 지점, 모나지 않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삶의 유연성이며 품격이라 믿었다. 좋다 나쁘다 대신 보통이기에 동그라미 치면서 어떠한 적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안심했던가. 큰소리 쳐놓고 팔호 열고 아니면 말고 하며 팔호 속 어딘가에 몸을 숨겼었다. 그것이 중심 잡는 법이라고 스스로 우기면서 너무도 쉽게 나를 용서했었다.

링거를 꽂은 채 변기에 앉는다. 몸속에서 걸쭉하게 줄여져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지겨운 오줌발..... 나는 기억한다,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던 미지근한 저 혐의의 냄새를. 그때 링거 바늘이 꽂혀 있던 팔뚝에서 피의 역류(逆流)가 시작되었다. 아뿔싸! 링거 줄이 꼬였다. 生의 역린(逆鱗)은 늘 예기치 않게 온다.



조영란 시인

1962년 서울출생한 한국의 여류 시인이다.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2016년 시전문지 「시인동네」 봄호에 시 부문 신인상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조 시인의 작품들은 격월간 「시사사」와 계간 시전문지 「미네르바」, 계간 시 전문지 「동안」에 발표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문단

해외문학상 대상 수상작 발표

시부문: 수상소감 | 안선희 시인

수상자 약력 | 안선희 시인

수상작: 억새 외 2편



▲안선희 시인

19회 「해외문학상」 수상자 발표

안선희 씨

2016 제19회 해외문학상 시부문 대상 수상자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거주 시인 안선희 씨가 선정됐다. 해외문학상은 세계 속에 한국문학을 빛내고 장려하기 위해 「해외문학상」가 1998년에 제정했다.

시부문 수상자 명단

| | |
|---------------------|-----------------|
| 원 씨(작고/ 미국/ 제1회) | 윤희윤 씨(미국/ 제11회) |
| 리 진 씨(작고/ 러시아/ 제2회) | 김옥배 씨(미국/ 제12회) |
| 배정웅 씨(미국/ 제3회) | 임혜신 씨(미국/ 제13회) |
| 김 철 씨(중국/ 제4회) | 김신용 씨(미국/ 제14회) |
| 김영교 씨(미국/ 제5회) | 김모수 씨(미국/ 제15회) |
| 김행자 씨(미국/ 제6회) | 문금숙 씨(미국/ 제16회) |
| 이창윤 씨(미국/ 제7회) | 김희주 씨(미국/ 제17회) |
| 배미순 씨(미국/ 제8회) | 이춘혜 씨(미국/ 제18회) |
| 왕수영 씨(일본/ 제9회) | 씨(미국/ 제19회) |
| 손지연 씨(작고/ 미국/ 제10회) | |

□수상자 프로필

- 안선희 (Sun Hye Ahn)
- '순수문학' 신인상(2002) 시부문 당선 등단
- '국제펜클럽 제5회 한국해외동포창작문학상 수상
- '미주시학' 선정 제18회 '가산문학상' 수상
- '해외문학' 작품상 수상
- '국제펜클럽'(한국)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 '재미시인협회' 회원, '해외문인협회' 회원
- 첫 시집 「슬픔이 사랑을 만나다」 제2시집 「그해 겨울처럼」 출간

정체성 회복을 형상화한 작품

심사위원들은 2016년도 제19회 해외문학상 시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안선혜 시인의 「역새」를 선정했다.

안선혜 씨는 첫 시집 「슬픔이 사랑을 만나다」를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제 2시집 「그해 겨울처럼」을 출간한 뛰어난 서정시인이다.

안 시인은 시 “모닥불”로 이미 제3회 「해외문학」 작품상을 수상했고 국제펜클럽 주최 제5회 한국해외동포 창작문학상(시부문)을 수상했으며 ‘가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선혜 시인의 올해 수상작 「역새」는 우리 이민자를 역새꽃으로 비유하면서 먼저 온 이민자들과 어울리지도 못한 채 뒀안길에서 살아가는 ‘풀꽃’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있다. 우리 이민자들이 지금은 변방에서 살아가는 풀꽃이 되어 정체성마저 잃어버렸다. 하지만 화자는 유년 시절의 역새밭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형상화한 우수한 작품이라 높이 평가된다.

이처럼 좋은 시인을 「해외문학상」 시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심사위원들도 기쁨이 크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수준 높은 시를 많이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

심사위원: 조운호 배미순 김옥배

“사과나무 가지에 꽃이 피듯”

안선혜 시인

며칠 전, 아파트 정원 모퉁이에 사과 꽃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는 11월인데, 저물어가는 가을 아열대성 기후 탓인지 새하얀 사과꽃이 피어 기뻐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보고, 또 보고 찰칵찰칵 사진도 찍었습니다.

작년 봄에 옮겨 심어 부실한 나뭇가지마다 눈송이처럼 달린 꽃.

환자로 살아가는 이 초라한 가슴에 사과 꽃처럼, 새하얀 눈송이 마냥 뜬금없이 날아든 소식은 사막에서 첫눈을 만난 듯 어리둥절했습니다. 시들어가는, 보잘것없는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수상 선물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짙한 커피 향처럼 스미는, 가슴을 울게 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더욱 열심히 시공부에 매진하라는 독촉장으로 알고, 가슴 깊이깊이 새기겠습니다. 조운호 회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1월

억새 외 3편

안 선 혜

년

한 폭의 동양화

9월을 덩석 넘긴 달력으로
성큼 걸어 나오는 시월의 억새밭

실베짱이 씨르래기 풀무치와
어울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숨죽이며 뒤편에서 살아온 풀꽃
비탈진 언덕배기
소슬바람에
은발이 되어 누군가를 손짓하고 있구나

지금은 빌딩숲이 되어 버린
유년의 그 언덕
그 억새밭으로 달려가고 싶어라
억새 닳아가는 머리카락
억새밭에 뒹굴며
옛 동무 불러 모아 숨바꼭질 하고 싶어라

아, 저 달력 속의 으악새
차꾸만 나를
유년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네

눈물 속에 피는 야생화

생명이어라

기쁨이어라

새하얀 눈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는 꽃이여
얼음에 제 몸을 녹여 살아난 신비여

눈보라 속에서도

끈질긴 소망 하나로 살아보려고 신음하던

긴 겨울밤

화사한 사월을

푸른 창공의 오월을 가슴 가득 끌어당기며

그리운 봄 사모했을 너

눈이 녹아 비가 오는

어느 산장에서 너를 만났지

절망과 포기 네 사전에는 없는 언어이기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너

등불처럼

봄 햇살처럼 귀엽고 예쁘구나

양지 바른 비탈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야생화

팜 트리

저 초록 깃발
바람에 눈물 말리고 있는 걸까

전신주보다 더 긴 외다리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외로움 감추려 높이높이
올라간 걸까

혼자 태어나
혼자서 허공중에 길을 내며 올라 간 너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고
큰소리치는 너
한낮이면 태양도 커다란 잎사귀에 얼굴을 묻고
그 푸른 그늘에서
쉬어 가고
밤이면 달과 별도 자고 간다고 유난을 떨지만

매론, 밀려오는 외로움 견딜 수 없어 남몰래
속울음 말리고 있나 보다

걸으면 언제나 당당한 모습
폭풍이 몰아닥쳐도 끄떡없는 허리
고독의 깃발 높이 들고
바람의 깃을 잡고 그네를 타고 있다.

『해외시단』 (미국)

사과를 꺾으며 외 1편

김 경 호

동그란 사과 껍질을 벗긴다
돌려가면서
꺾다보니 마음에 와 닿는 느낌
둥근 것 먹고 둥글게 살라고
가르쳐 준 천심

그리고 보니
우리가 먹는 과일들 콩 쌀 한 톨
땅 밑에 머리 둔 감자 고구마 땅콩까지
하나 같이 모난 것이 없구나

하늘 해 달 모두가 둥글듯이
너그럽게 살라고 크게 보여 주었던만
나는 그것을 보고 깨닫는
마음의 눈이 어두웠다

앞으로 맛있고 시원한
둥근 사과처럼 살아 가야하리

THAT WAY/OVER THERE/BY ITSELF
Kyung Ho Kim

I like mountains/ The mountains are good
water/ water is good
flowers and grass/ Flowers and grass are good

The heart open to the sky,
the bright world, all that I see
is lovely and precious so my eyes/lashes moisten

The long but short life
Will I shed tears and just get by<?>

Even if our one body collapses
the sun will continue to shine
laughter and screams/laughing and crying
will not stop in the world

Life too
like mountains
like water
like flowers and grass

세월 2

사람들은 기다린다
타고 갈 기차가 오기를
탈 사람이 없으면
기차는 그냥 간다

차는 사람들을 태우고
자기 본분을 다 하려
열심히 달린다

창밖의 풍경은 세월 속의 삶처럼
무엇이 있는지 헤아릴 겨를도 없이
바빠 사라진다

기차는 다시 오고 또 와도
한번 타고 간 사람은
보이지 않네
세월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



김경호 시인: emk0104@yahoo.com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대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8년간 역임. 2006년 「순수문학」 신인상 시 당선. 제7회 경희해외문학상 수상. 시집: 「그림 따라 시 따라」 「별은 시인을 낳는다」 「해외문인협회」 이사, 「시카고문인협회」, 「미주문인협회」 「예지문학」 회원

『 해외시단 』 (미국)

그날 밤 외 1편

김 성 자

그는 포근한 잠 속에 빠진 듯
평온해 보였다.

은은한 불빛이
눈물처럼 병실에 차올랐고

나뭇가지 위에 걸린 바람이
서럽게 울던 밤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하얗게 바랜 마음이
눈 속을 걷는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 구름이 되어 지나가리.

THAT NIGHT

Sung Ja Kim

He looked at peace,
as if in deep sleep.

A soft light filled
the hospital room like tears.

The night when the wind cried,
snagged onto branches,

was the last night
we met.

My bleached heart
wades through a swamp.

But this too
shall pass like clouds.

나무의 여유

바람 속에서
잉잉대는 소리는
나무들이 영혼을
맑게 하는 소리지.

뇌성 번개 속에도
의젓이 서 있는 나무는
깨끗함으로
두려움이 없음이지.

곱게 키워온
나뭇잎
한 잎 두 잎
떡워 보내며
슬퍼하지 않는 것은
다음 해를 기약함일세.



김성자 시인

서울에서 출생. 한국에서 교편생활(7년) 2003년 「해외문학」 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 등단. 「순수문학」 신인상 수상. 시집: 「Las Vegas에 핀 상사화」 출간. 현재 라스 베이거스에 거주하고 있다.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THE EASE OF TREES

The buzzing sound
in the wind
is the sound of trees
clarifying our souls.

The tree that stands with dignity
even amidst thunder
has no fear
due to its purity.

Leaves
lovingly grown
are floated away
one by one
without sorrow
because of next year's promises.

『해외시단』 (미국)

우정의 편지 외 1편

김 송 순

높은 산 푸른 숲
평원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은밀하고 정다운 노래로
때론 반짝이는 빛의 기쁨으로
나의 입을 푸르고 싱싱하게
키워 주네

반세기 동안 바다건너
날아와 내 서랍 속에 쌓여진
우정의 편지들
시냇물에 잠긴 푸른 나무들과
웅장한 바위의 영상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나의 삶을 비쳐주네

LETTERS OF A FRIEND

Song Soon Kim

A stream in the meadow
On high altitude surrounded by tall pines
Kept my leaves green and fresh
With gentle and cheerful songs
And merriment of sparkling sunlight

Over a half-century
From across the Pacific Ocean
Letters stacked up in my drawers
Like the reflection of pines and majestic rocks
On the surface of water
Illuminating my life gracefully and invaluable

당신의 정원은

솔방울들 높은 가지에서
내려오네
산등성이를 밝은 주황색으로 옷 입힌
파피들에게 인사 하려고

정교하게 조각된 목질 꽃봉오리들
청순한 솔향기 가져다
곱고 부드러운 꽃잎들 위에
뿌리네

태평양 미풍에 춤추는 파피들
캘리포니아 태양이 그 위에서 빛나고

솔방울들과 파피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친구들
모두 함께 봄 얘기를 속삭이네
주님의 정원에서

IN HIS GARDEN

Pinecones descend from a high branch
To pay respect to poppies
Draping mountain hills with yellow orange

Elegantly sculpted woody flower buds
Spray fresh pine scent
On the soft petals of poppies

Poppies dance in a pacific breeze
California sun shines upon them

Pinecones and poppies,
Very unlikely friends
Whisper together the harmony
Of the spring in His garden

『 해외시단 』 (미국)

가을 바람

김신선자

가을이 오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한 여름 푸르기만 했던
녹색 잎들이
빨갱게
노랗게
그리고 흑색으로 변해가고

내 안의 색들과 섞이는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가을 길에 바람을 막을 수 없어
나뭇잎 다 내려놓으니
그때야 가슴이 열리어
가을은 무엇인가 말을 한다.

멀고도 높기만 했던
하늘이 더 푸르게 열리는 것도

기러기 엄마

뜰감이 홍시로 익어가든
계절이 바뀌어 가든
California 계절 따라 동그라미 그리며
서로를 쓰다듬고 보듬었지.

이제 등지를 떠난 새들의
뒷날개 등을 바라보는 일,
빈 제자리로 다시 돌아 가는 흔들림 속에
조금씩 내가 보이기 시작하네.

기러기 돌아가는 그곳에
어떤 꽃이 피어 준다면,

어둠에서 반짝여주는 별들 중에
인정으로 피었다 인정으로 질줄 아는
그런 꽃이 되겠지.



김신선자 시인

1943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 이화여대 무용과 수료. 1965년 브라질로 이민. 1974년 뉴욕주립대 직물 디자인과 수료. 「Evergreen Lions Club」 회장 역임 「서울예원여고 예원동창회」 회장, 이사장 역임 「해외문인협회」 (미국) 회원.

E-mail: "Sunja Kim" <sunjkm@gmail.com

MOTHER GOOSE

Sunja Kim-Shin

Whether the persimmon ripened or not,
whether the seasons changed or not,
they drew a circle following the California season,
supporting and soothing the children.

Now all that's left is
staring after birds who have left the nest.
As I return to the empty nest
I begin to see myself again.

If a flower would bloom
at that place to which geese return,

it would be the kind of flower
that blooms and fades through compassion
amidst stars that sparkle in the dark.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Rachel S. Rhee

『 해외시단 』 (미국)

맑은 시심 외 1편

김 옥 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는 시이고 싶네
이해인 수녀처럼 고운 심성으로
자연을 노래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겠네

나뭇잎에서 그 근본을 발견하고
흙 속에 묻힌 작은 감자와 배추를
손수 기르며 농부의 땀을 생각하고
빨래를 하면서 마음속 때까지 말끔히
씻어내는 향기로운 비누 냄새까지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시심을 나도 갖고 싶네

사라지는 전봇대

도심에서 밀려난 전봇대에
빼곡히 박힌 전단지들
붙이면 뜯어내고
또 붙이는 악순환에
초라한 서민들의 삶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술 취한 취객들의 구토와
동네 강아지들의 오줌으로 얼룩져
세월의 나이테만 남기고
험한 못 자국을 처형처럼 두르고
소음과 불면을 온몸으로 견디며
전봇대는 사라지는 역사의 현장에
오늘도 장승처럼 서 있다



김옥배 시인

1938년 출생.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세기문학」 신인상 당선 「시조문학」 시조 추천완료. 「해외문학상」 시부문대상 수상. 시집: 「그리움이 강물 되어」 「사랑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미국 「오하이오문학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해외문학」 편집위원. 현재 「해외문인협회」 회장

『 해외시단 』 (미국)

굴하지 않는다 외 1편

김 일 형

가을바람은 낙엽을
넷가에도 날려 보내지.

하지만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 와도
굴하지 않는다.

큰 바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비방과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요동치지 않네.
어진 현자는

I WILL NOT SURRENDER

Il Hyung Kim

The autumn wind blows leaves
even to the stream.

But if I keep my eyes open
I do not surrender
no matter how strong the storm

like a large rock
that does not shake.

The good, wise man
does not create chaos
even when criticism and death approach.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Rachel S. Rhee

목적이 있는 삶

깜깜한 밤의 산길은 나에게
동서남북 가리지 못한 채 방황하게 한다.

목적 없이 여행하는 자의 길이
멀고 멀 듯이.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밤이 한없이 길고 고통이 오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어서 살지 못하는 것처럼
깨어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그에게는 눈과 귀가 열리고
뜨지 못한다.

아무 목적이 없다면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길은 한없이 멀기만 하다.

LIFE WITH A GOAL

The dark night mountain trail
makes me wander, unable to tell my direction.

It is long
like the road of the one without goals.

It is endless and full of suffering
like night for the one unable to sleep.

Fools cannot live
even when awake.
Nor can they be re-born when awake.

Their eyes and ears
are closed.

Without a goal,
you wander anywhere
and the road is endlessly long.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Rachel S. Rhee

『해외시단』 (미국)

봄비 외 1편

김희주

당신을 맞이할
한 송이 봄꽃

겨우내 아팠던
사랑의 몸살
울긋불긋 꽃망울로
살아나고

우르르 광광
온 몸이 으스스하도록
기다렸던 포옹

뒤꿈치 치켜들고
살포시 보슬비로 내려온
당신

속옷도 젖기 전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갈 거면
아예 오지를 말지

바보
봄비.

SPRING RAIN

Hee Joo Kim

One spring flower
that welcomes you

Lovesickness
that ailed me all winter long
was reborn
as colorful flowerbuds

Rumble rumble crash
The awaited embrace
crushes the entire body

You who came down softly
on tiptoe
as gentle rain

If you
were going to come and go
before even underthings got wet
I wish you hadn't come at all

Stupid
spring rain

유배지 流配地에서

멀리 유배 왔다

죄목은

사람을 너무 사랑한 죄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친구들, 이웃을 너무 사랑한 죄
아들이 멀리 하와이 카우아이(kauai)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철썩철썩 파도 소리 들리고
팜 트리 너울너울 춤추는
갯냄새 올라오는 메리옌 호텔 6층 객실로
하와이 에어라인으로 실어 보냈다
죄목이 중하여 독실은 피하고
45년간 정든 남자 하나
과수꾼 따라 보내어 감시하게 하네

일주일 동안 부엌일엔 일체 손대지 말고
가장 우아한 식사만 제공 받아라는 벌칙
마음 속 찌꺼기가 쌓였다면
저 푸른 바닷물에 한 점의 티도 남김없이
다 씻고 오라는 엄명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음하고 어울려 놀면서
오래되고 낡고 헤진 나에게만 올인
나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어명을 받았나이다

나, 이런 유배, 이런 죄목
또 받고 싶어라.
사랑하는 아들이!



김희주 시인

부산에서 출생한 여류시인.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창조문학” 신인상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 시집은 “살아가는 일도 사랑하는 일만큼이나” “따뜻한 목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공저)가 있다. 제17회 「해외문학상」 (2014년)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해외문인협회” 부회장, “재미시인협회” 회원이다.

FROM BANISHMENT

HeeJoo Kim

I have been banished

My crime—
the crime of loving too much

The crime of loving my husband, children, parents,
siblings, friends, neighbors too much
So my son banished me
to far away Hawaii Kauai,
sending me via Hawaiian Airlines
to the Marriott Hotel 6th floor
where the smell of the sea rises,
palm trees dance gracefully,
and I hear the sound of waves
Due to the gravity of my crime, I avoided solitary
He sent as guard
a man to whom I've been attached for 45 years.

The punishment is to avoid kitchen duty for a week
and to order only the most upscale meals
I received the injunction to wash away in that blue sea
any dust that might have gathered in my soul,
to focus on my old, worn out self
and the decree to play with cleanliness, innocence, and
purity,
to love myself again and again

This kind of banishment and punishment
I'd like to receive again,
my dear son whom I love!

『 해외시단 』 (미국)

야상곡 외 1편

레이철 S. 리

나는
밤에 피는 꽃
보는 이 없어도 상관없지요
알아보는 벗들 위해 피어 있다네

나는 블랙 호울
의식의 외부를 선회하다가
내 중력 속으로
탐구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나는 머나먼 은하계의 별
맨눈으론 보이지 않지만
타인들 눈 너머에서 난 돈다오
나만의 빛 속에서 그걸 즐기며

NOCTURNE

Rachel S. Rhee

I am the flower
that blooms by night
undismayed by lack of audience
yet on display for an alert minority

I am a black hole
whirling outside awareness
but catching an inquisitive few within my gravity

I am the star in a farflung galaxy
invisible to the naked eye
Beyond all eyes, I spin
basking in my own light

축전

내 속에 우주가 있다
넌 결코 모르는 세계가
내 영혼은 우주 행로를 따라 비상하며
흐르는 별자리는 내 이름을 만들고
그 마지막 숨결은 내 위로 우주진 되어 내린다
내 심박동 따라 은하계는 왈츠를 추고
한 방울 눈물 안에
우주가 반사된다
한 숨 속에 전 생명이 깃들어 있다

난 살아있다

CELEBRATION

Rachel S. Rhee

I hold planets within
whole worlds you'll never see
My spirit soars along cosmic lines
Falling stars spell my name
their last breath turns to stardust on my skin
Galaxies waltz to the beat of my heart
The universe reflected
in a single tear
All of life in a single sigh

I'm alive

『 해외시단 』 (미국)

길 위에서 외 1편

배 미 순

수화기 저 편에서
아들의 목소리 들린다
엄마, 어디 아파?
목소리가 이상한데, 약 필요해?

다 큰 아들의 기척 때문에
순식간에 나는 이미 든든하다
딸이 없으면
말년이 사무치게 외롭다던데
내 온 몸의 나뭇가지 위에
비가 온다, 봄비가 내린다

내가 울었던가, 당신이 울었던가
당신 가고 나니
짧은 한 평생 방금처럼 끝났는데
바삭거리던 생도 축복이었다

불가지의 늘 길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늘
어디선가 돌아가는 길이 보이고
출발선이 드러나는 그 능선 위로
비가 온다, 봄비가 내린다

결코 나일 수 없는

"피정이 거의 끝날 무렵
미사 강론 때 신부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믿고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순도 99.9%의 사람이
몇이나 있으신지요?
그때 선생님이 떠올랐죠
감사합니다
제 곁에 오래오래 있어 주세요"

수년 전 팔월 어느 날
마리아에게서 받은
잊을 수 없는 이 한 장의 카드
머리맡에 두고두고 잔다 해도
결코 나일 수 없는,
얼떨결에 받아 안은 꽃의 웃음으로도
결코 녹아들 수 없는
이 명징한 부유감.....



배미순 시인

경북대구 출생/1970년 중앙일보(한국) 신춘문에 시부문 당선 등단.
미국 시 도서관 편집자상. '해외문학' 시부문 대상, 미주문학 대상,
시카고 채규선 예술상 등 수상. 시집: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폴
씨와 공기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늘이다」, 수필집: 공저 「금밖의
세상 만들기」 등과 「이병주를 읽는다」 등이 있음. 현재 '영모사' 대표
이며 '시카고 타임스'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해외시단 』 (미국)

가을에 외 1편

이 경 아

가을이 여름을 밀어내고 달려온다.
나무는 옷을 벗어야 하고
숲은 신음을 삼키며 슬픔을 안으로 삭이겠지.

시퍼렇게 날을 세운 댐바람 따라
먼 길 떠난 그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가을에는 사랑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창백한 낮빛으로 기억의 공간을 들락거리며
사랑의 흔적을 찾게 된다.

사랑의 슬픔은 달콤한 아픔이므로...

동백꽃

북풍이 달려오더니 동백꽃이 진다.
톡! 떨어지는 소리에 내 가슴 미어지고

어딘가 떠나고 싶어 혼란스러운
내 마음
바람소리에도 들썩이는데

꽃망을 보며 두근대더니
만개한 꽃송이에 숨을 멈추고
꽃 질 때 나도 따라 지는 듯

동백꽃 앞에 서면, 내 마음은
그대의 슬픈 눈가에서
꽃보다 더 붉게 물들어간다.



부산에서 출생한 여류 시인. 대학 졸업. 2013년 한국문인협회 미주지
회지 신인상 시 당선, 2014년 『해외문학』 신인상 시 당선으로 등단,
2015년 「그린 에세이」(한국의 격월간지) 신인상에 수필 당선. 현재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화: 626-347-4213(Cell)

『 해외시단 』 (미국)

길 위에서 외 1편

이 래 온

우리는 길 위의 나그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부지런히 걷는 사람들,
광장에 모여든 외로운 무리들.

제 각기 찾아가는
목적지는 달라도 해는 지고
달은 사람들을 마중 나온다.
고요한 어둠이 찾아들면

그러나 나는 간다.
그대가 기다리는 집은
언제나 행복한 낙원,
오늘밤 우리들의 안식처.

ON THE ROAD

There are always wayfarers.

There are always individuals marching on the road.

There is always a lonely crowd in the plaza.

Everyone's destination is all different.

But each one is marching towards each destination.

After the sunset, the road is less traveled.

Under the moonlight sonata,

each hurriedly returns home, paradise on earth.

Home is the palace of recreating tomorrow's destination
for everybody.

그리운 친구

시원한 바닷가로 달려가
두 손 가득히 모래를 움켜쥘다.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모래처럼
세월은 흘러도 친구가 그림다,

달이 가고 해가 가며 쌓인
우리의 우정은
바닷가 모래만큼
사연도 많지.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되어
우리는 은하수를 날아다니다가
아름다운 지상에 내려와
언제나 변치 않는 꿈으로 살았지.

그리운 친구여, 내 영혼의 눈빛은
본향으로 향하고
이 한 밤도 외로이
먼저 떠난 친구 그리워하네.

TO MY FRIEND

In the summer beach,
I grasp sands with my two hands.
But it falls onto the beach.
It returns to where it belongs.

Our friendship has been formed over many years.
It is like the sandy beach.
It is more than the sandy beach
Oh, lovely memories between you and me.

Our friendship is shiny under the hot sun.
Our friendship is bright under the blue moon.
It is never changing, but is growing
In beauty and grace.

You and I are sailing toward the end of the sea.
Then flying into the milky way.
Our friendship lasts forever beyond our lives.
It was originated from our homeland.

『 해외시단 』 (미국)

등 외 1편

전 희 진

두 사람이 앉아 있다
등나무 아래
시원한 한 사발의 그늘이 쏟아져 내린다
넘쳐나는 태양으로부터 걸어온 두 사람이 온데간데없고
등들만 남아 나직나직 속삭이고 있다

날카로운 정오의 햇살과 햇살에 빙 둘러싸인 식물원의 수목들이
사람을 받아주는 길은
넉넉함으로 일관된 등뿐
나직한 휘파람 소리가 받아주는
저 두 채의 서늘함

송골송골
등에 맺힌 땀방울을 LA 식물원
선인장의 가시가 가져갔을 거라는 알로베라 추측과 정황 뿐
그날 두 등이
나직나직 노루발처럼 발맞추어 나눈 대화를
굳이 기억해 낼 것도 없다

폐업

가게 문을 닫기 위해 먼저 그는
구멍 난 자신의 문부터 닫아야 했다
자신의 문을 닫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흔들던 꿈을 닫아야 했다
꿈을 닫기 위해서
이십 년 뒤척이던 밤들의 불면을 닫아야 했고
청춘의 모진 국면을 닫고 그 속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소망을 닫고

깊숙이 닫혔던 보관함을 꺼내
좌우 모서리로 쏟아지던 청춘을 열고
꿈을 열고
자신을 열고

비로소 자신으로 돌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등을 향해 열린
꿈과 청춘과 짧은 이십 년을 모두 닫고
가게 문을 닫고
빗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론가 사라져 갔다



『 해외시단 』 (미국)

세월호에서 외 1편

조 윤 호

엄마가 마지막 남긴
전화 목소리가 나는 좋아요.

안내 방송이 들려와요
선실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

엄마, 겁이나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요

잠시 후 선실 안은 전등이 꺼지고
물은 꽃들의 목까지 차올랐어요.
버둥거리는 물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는 살아 있어요.
죽은 세월호에서 찾지 마세요.

*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한국에서 침몰하여 전체 승객 476명 가운데 404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 사망자 중 고교생은 250여 명에 달한다.

ON BOARD THE FERRY "SEWOL"*

Mom, I love your voice
which you left on my phone last.

The PA system says
to remain calm in our cabins.

Mom, I am scared.
Water is coming in.

Shortly after, the lights went out
in the cabin and the water was filling it
up to our neck.
Only the sound of water being swished
by the bodies could be heard here and there.

Mom, I am alive.
Please do not look for me
in the dead boat Sewol.

Translation by Kyung-Nyun Kim Richards and Steffen F. Richards
©2016

* Sewol sank in Korea on April 16, 2014, and killed 404 out of 476 passengers. About 250 of these deaths are high school students.

등불

—테리에 대하여

환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
모두 맹인은 아니다.

비는 오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인데…….

화약 냄새로 공기가 탁한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네.

깜깜한 세상을 밝히려고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작은 반딧불처럼

나 또한 대낮인데도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하리.

LAMP-LIGHT

—

People who carry lamps
in broad daylight
cannot all be blind.

It is not raining
and not a single shred of cloud
hangs in the sky.

The world filled with the thick smell of gunpowder
is trembling with fear.

There are those who carry a lamp
in order to light up the world
like a little firefly.

I, too, in broad daylight
will have to walk carrying a lamp.

Translation by Kyung-Nyun Kim Richards and Steffen F. Richards
©2016



경남 창원 출생. 1963년 「자유문학」 신인상 시당선 등단. 시집: 「사과나
무의 사랑」 등 5권 출간. 영국 시전문지 *The Seventh Quarry*, 인도시
지 *Shabdagucha*, 미국 시전문지 *The Paterson Literary Review*, 루
마니아 시전문지 등에 시 발표. *Bridging the Waters*(국제 현대시2) 발
행인. 해외문인협회 회장 역임. 「미주시인상」 수상. 미국 「PUSHCART
문학상」 후보작 추천위원. 국제펜클럽 미국본부 회원, 「해외문학」 발행인

『해외시단』 (미국)

사랑 외 1편

조 정 하

꽃이 필 때는
꽃이 질 때를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 할 때는
미워할 때를 생각하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꽃이 질 때도
미워할 때도 있음을 알겠다

하늘이 있음으로
땅이 있음을 알았다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알았다

LOVE

Chung Ha Cho

When flowers bloomed,
I thought not of when they might fade

When we were in love,
we thought not of when we might hate

Looking back, there were times
when flowers faded and we hated each other

Because of the sky,
I know the ground

Because you are,
I know I am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Rachel S. Rhee

순례자

—이태석 신부님을 추모하며

한 떨기 하얀 딸기 꽃 같은
이였습니다

무명의 이름으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
가난한 마음이였습니다.

먼 오지에서 거뭇한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하나님을 보는 이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섬김의 대상이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였습니다.

가난한 땅에서
자신이 가진 것 모두 나누며
하늘을 사모하는 이였습니다.

당신이 가시던 날 별 하나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떠났습니다.

PILGRIM

—in memory of Father Tae Suk Lee

He was one
like a white strawberry flower.

Nameless,
he worked tirelessly.

Poor in spirit,
he bet his life on loving.

He was one who saw God
in the eyes of colored children in a far rural land.

Everyone was his
to serve and to love.

In a poor land,
he was one who desired Heaven
while sharing everything he had.

The day you left,
a star forever closed its eyes.

It left with you.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Rachel S. Rhee

『 해외시조 』 (미국)

선경仙境 외 1편

현 원 영

우아한 흰 목련꽃
향기 서린 트랙에는
크고 작은 사슴들
그림처럼 앉고 서고
파아란
하늘이 들러리 서는
지상의 선경이여

Sijo

Fairyland

Won-Yung Hyun

Graceful white magnolia flowers
In the still-fragrant garden
Deer, small and tall
Sit and stand
Like a picture
The blue
Sky encompasses
Oh, the fairy land

도라지꽃

혼자서 산에 들에
도라지 홀로 자라
뉘한테 배웠을까
연보라 이는 미소
하늘이 가만히 웃네
파르스름 물이 지네

Sijo

A *Toraji* Flower*

In the mountains, in a field
A toraji grows by itself
I wonder who taught it
Its gently rising, light-purple smile
Quietly, the sky smiles above
Dyed in blue is the flower below

* A *toraji* is the Korean name for a Chinese bellflower.

『해외시단』 (미국)

영혼을 노래하는 시 외 1 편

Poetry to sing the soul/魂を歌う詩

황 남 용

시詩는,
꿈의 나래이고
사랑의 스케치이며
자연과 인생을 찬미하는
미학美學의 형상들.

시詩는
목 타는 별들의 그리움,
일새에 새겨진 환희,
토지 속에 묻혔던 기억들이
바람에 중얼거리고
하늘과 땅에 정지된 입자들이
우아한 자태로 꿈틀거리는
돌베개 같은 그리움의 언어들.

영혼을 노래하는 시는
독백에서 피어나는 꽃이요
절정의 아픔에서 씌어지는
찬란한 침묵沈默의 노래

註 * 미학.美學 : 미의 본질과 구조를 연구하는 일 또는 학문

* 입자.粒子 :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단위의 알갱이

* 독백.獨白 : 혼자서 중얼거림

POETRY THAT SINGS OF THE SOUL

Nam Young Hwang

Poetry
is the ore of dreams,
the sketch of love,
aesthetic imagery
that praises nature and life
Poetry
is the longing of thirsty stars,
joy carved into leaves,
words of longing like stone pillows
in which memories buried in earth
murmur at the wind
and particles halted on heaven and earth
wiggle elegantly.
Poetry that sings of the soul
is the flower that blooms out of soliloquy,
the song of brilliant silence
written at the peak of pain.

운명의 포로에서 해방된 천사

It freed angel from prisoners of fate/ 殞命の捕虜から解放された天使

커피향 같은 꿈을 간직한
애뜻한 님의 비애와 환희의 시가詩歌입니다.

겨레불이 정도의 촌수로 맺어진 우정이지만
목화송이 같은 포근함이 신선한 충격이었고
난 그녀에게 천사라 명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아침 이슬 같은 운명이 찾아왔고
조물주가 부여한 간장肝臟의 기능은
몰아치는 회오리에 길을 잃은 채
이정표도 없는 혼돈으로의 유혹이었습니다.

끝없이 침몰하는 그녀를 바라보던 이내 마음은
처절한 아픔의 기억들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운명殞命의 포로가 된 그녀는
최후의 순간에 새 생명의 도너donor를 만났고
가족과 우정이 기다리는 본향으로 돌아온
대서사적大敘事的 감동과 축제였습니다.

천사여! 포로에서 해방된 영광과
목말랐던 시간들은 이제 그대의 소유입니다.

모닝커피 진한 향기 속에
파란 꿈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싶습니다.

註 도너.Donor: 장기 기증자

AN ANGEL FREED FROM THE PRISON OF FATE

Nam Young Hwang

This is a song of joy and sorrow of the broken-hearted person
who harbors a dream like the scent of coffee.
Although we became friends, linked only by country,
it was a shock fresh like the cottonflower's gentleness
and I called her an angel.
One day, she encountered fate like morning dew,
her God-given liver and intestines
lost their way in a whirling tornado,
confusion without milestones.
As I watched her sink endlessly,
my heart carved painful memories.
She who became the prisoner of fate
met the donor of a new life at the last moment
and returned to this world where family and friends waited,
an epic celebration.
Oh angel! You now own
the glory of freedom and the time of longing.
In the strong scent of morning coffee,
I want to hear the story of green dreams.



일본 법정대, 단국대행정대학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 국제정치학 수학.
「시사랑문학신문」 신인문학상 등단. 「황금 장학회 문학상」 최우수상 수상.
시집으로 「시인들의 외출(공저)」: 창조문학신문사 & 「바람구두를 신은 랭
보(공저)」 현대시문학 회원, 한국문단(사) 녹색문단 회원, 「해외문인협회」
(미국)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삶의 목적 외 1편

김 경 년

1980년대 초, 내가 버클리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하루는 학생들과 소규모 그룹 토론을 학생 휴게실에서 갖고 있는데 한 학생이 불쑥 "선생님은 삶의 목적 (purpose of life)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질문에 깜짝 놀랐는데 실로 더 크게 당황한 것은 나 자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나며 우물쭈물 그 순간을 넘겼지만 그 후부터 그 질문은 오랫동안 내 머리 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본다. 물론 이제는 "목적"이란 힘찬 단어 대신 "의미" 또는 "보람"이라는 맥없는 말로 질문을 많이 누그러 뜨리고 있지만, 그 개념은 항상 뇌리에 맴돌고 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출생은 사실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우리가 태어남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남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것도 아니며 부모들이 우리를 낳았지만 실제로 그들도 어떤 선택을 해서 특정한 "영아"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모두 생겨지고 나아지고 이 세상에 놓여진 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종의 보존"을 위해 생산된 하나의 생물일 뿐인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는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그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곧 인류의 보존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정이라는 보호소를 만들어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켜 사회에 내보낸다. 그들은 사회에 나가 일을 하고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며 인류의 보존을 위해 다시 짝을 찾고 애기를 출산하고.....

이런 매우 간단하고도 큰 틀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한 개인 "나"의 "삶의 목적"이란 그리 큰 사건이 아니고 다만 매우 개인적이고 제한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오빠 강남 스타일

나에게는 다섯 살짜리 손자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 유치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동안은 프리스쿨을 다녔는데 마침 그 학교가 우리 집에서 두 블럭 되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들이 퇴근이 좀 늦어 그 애를 제 시간에 맞추어 데리러 가지 못하면 남편과 내가 걸어가서 손자를 집에 데려다 놓곤 했다.

그런데 내일이 그 프리스쿨 마지막 날이라고 하기에 이제 곧 작별하게 될 친구들과 그동안 수고해 준 선생님들을 위해 간단한 스낵을 준비해 가지고 프리스쿨을 찾아 갔다. 집에서 두 블럭 거리에 있어 걸어가도 5분도 안 걸린다. 문을 열고 놀이터 마당으로 들어가니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악이 크게 들리고 아이들은 모여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열 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두 싸이의 노래를 같이 부르며... 여자... 여자, 하며 손을 치켜들고 카우보이의 말 모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싸이는 "훈장감"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느 한국인 한 사람이 이토록 한국을 유명하게 만들었던가? 미국의 조그만 탁아소겸 예비학교의 마당 놀이터에서까지 각양각색의 종족의 후예들이 모여 싸이의 음악을 틀어 놓고 그의 몸짓과 춤을 흉내 내며 행복해 하는 것을 볼 때 싸이의 위력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수준 이상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인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창조적이고 재능이 많은데 서로 협조를 할 줄 모른다는 말을 종종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김연아 같은 비켜 스케이팅 선수, 싸이 같은 가수, 김기민 같은 마리인스키 발레단의 수석무용수, 서희 같은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프리마 발레리나, 조수미, 신영옥 같은 소프라노, 정명

훈 같은 지휘자, 수도 없이 많은 쟁쟁한 한국의 인물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가의 영웅, 보배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다.

2015년 5월



김경년 시인/ 수필가/ 번역가

서울에서 출생, 한영문학 번역가. 현재 UC Berkeley대학교 교수, 「해외문학」 편집위원 겸 자문위원. 시집: 「달팽이가 그어놓은 작은 점선」, 한영시집 「시력검사」(VISION TEST) 출간. 번역서: 윤동주 시집 「별 헤는 밤」 「Sky, Wind, and Stars」 김승희 시집 「I WANT TO HIJACK AN AIRPLANE」 등 다수.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

운전과 우리들의 삶은 닮은 꼴

김 정 란

지난겨울부터 금년 3월이 되어올 때까지 운전運轉을 잘하지 않았다. 날씨가 추운 때여서 종잡을 수 없는 일기 탓이기도 했고, 남편이 겨울동안에는 골프도 치지 않고 집에 나랑 같이 죽치고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그렇기도 했다. 대부분 나와 같이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잦아, 자동차가 두 대가 필요치 않아 늘 남편이 주로 운전을 했다

아직 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달력으로 봄은 봄인지 기온이 조금 높아져서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운전을 하고 다닌다. 딸네 집과 우리 집을 오고 가려면 몇 개의 고속도로를 늘 운전해야 한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운전을 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자동차들을 보면, 온갖 모양의 자동차에, 갖가지 형태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운전이 우리들의 인생살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서 질주를 하거나, 천천히 운전을 하거나, 하여간에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가 목적하는 성공을 향해서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웃기는 생각에 잠겨서 급하지도 않은 이 노친네가 3차선에서 정해진 시속으로 잘 달려가는데 갑자기 쏘 빼기처럼 요리저리 끼어들고 곡예를 부리면서 운전하는 자동차를 자주 만날 때가 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그저 빨리 달려간다는 일에 목적이 있거나, 매번 늦어서 새치기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려나?

빨리만 달려간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터이고, 게으름을 잔뜩 피우다가 필경 마지막 순간에 요란을 떨면서 허둥지둥하는 타입이겠다, 하고 운전을 하면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정신 분석도 해본다. 또 어떤 때는 나와 짝이라도 해주는 것인지 일정한 스피드에 앞뒤 간격을 맞추어 가면서 천천히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리도 아니게 같이 가는 자동차도 있다.

자동차가 한 차선에서 가면서도 이쪽저쪽 술 취한 듯이 가는 자동차도 있고, 창문을 열고 라디오의 볼륨을 있는 대로 크게 해놓고 운전대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왕왕 불러대며 운전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증이 나게 키가 작은 머릿결이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늙었는지 젊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최소한의 마일도 속력을 내지 못하면서 알짱알짱 천천히 가는 자동차도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운전을 하는 모습과 운전을 하고 가는 자동차가 주인을 닮았다는 게 재미가 있다. 그저 빨리빨리 달리기만 하는 이들은 좋은 이름 있는 스포츠 자동차는 아닌 듯 낡아빠져 보여도 스포츠 모양의 자동차이고, 한 차선에 가면서도 뺄뺄 가는 이들은 어디다가 살짝 스쳤는지 자동차에 상처가 더러 있기도 하다. 라디오를 맘껏 틀어놓고 운전대를 두드려대는 그 자동차는 픽업트럭같이 생겼거나 스포츠자동차도 아니면서 스포츠자동차 흉내를 내면서 달리는 자동차이고, 키가 작은 노인네가 보일 듯 말듯 하게 앉아서 운전하는 자동차는 오래된 듯 그러나 아껴서 타셨는지, 엔틱 자동차 같은 모양이다.

나같이 그저 허락하는 속도로 열심히 운전하는 많은 자동차는 그

저 평범한 미국인들이 모두가 좋아하면서 선택하는 흔하디흔한 자동차이고, 오고 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이렇게 노친네가 딸네 집에서 내 집으로, 내 집에서 딸네 집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개똥철학”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먼 길인 동부 아들네 집을 다녀 올 때면 늘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아무리 빨리 가려고 기를 쓰고 빨리 운전을 해도, 날이 어두워져서 잠을 자러 숙박소에 들어가면 필경 그 앞서가던 자동차도 그 곳에 머무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하고, 또 한참을 가다가 점심 식사라도 하려고 멈추면, 또 다른, 같은 방향으로 가던 낮익은 자동차가 멈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들의 삶이 모두 비슷한 시간으로 흘러가듯이 자동차도 가고자 원하는 곳에 가는 시간은 거의 그 많은 자동차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겠는지? 우리들의 성격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면서라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운전을 하고 다니며 이런 웃기는 생각으로 즐기기도 한다.



이화여자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 듀페이지 칼리지서 아트와 컴퓨터 수학. 아이타스카 한국학교 교사역임. 「해외문학」 신인상 수필당선으로 문단에 등단했다. 한미연장자학교 컴퓨터 강사이며, 「해외문인협회」(미국)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mail: ahnjungran@yahoo.com

눈치

박 보 명

어느 젊은 청년이 평소보다 옷맵시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선을 보러 갑니다!’란 답변이다. 처음 대면하는 일이라 첫 인상이나 품위와 매너들이 다 포함된 것이 선이라면 대부분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목사 시험 때 있었던 일로 후보생이 심사위원들 앞에 단정히 앉아 있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비스듬히 앉아 거만한 태도를 보여 옆에 사람들이 주의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so what?’(그래서 어땠단 말이나?)하더라. 그 부친은 심사위원장이었다.

때와 장소에 따라 갖추어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자유방임으로 자란 사람들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관계로 실례를 하는 경우를 볼 때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모르는 일을 처음 당할 때는 어느 정도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대충 따라하는 경우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를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다’라는 말을 듣는다. 미국에서 살다보니 예전에는 예치켓이란 것이 서양에서 전해 와서 서양 사람들은 예의가 반듯한 줄 알았다. 그런

데 상류층 사회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아니올시다! 인 것 같다.

옛말에 마음이 열량이면 눈이 **아홉량**이란 말이 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표정으로부터 싫은 마음이나 좋아서 눈물 흘리는 모습과 짜증나는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에서 오는 경험이 아니라! 서양에 없는 것을 장점으로 이용해서 좋은 점들을 눈치 빠르게 익혀 간다면 얼마나 유익한 일일까 싶다. 흔히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말을 한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의는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사안에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예식은 번거로운 일만은 사실인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면 분명히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대다수 사람들을 따라 갈 수 있는 준법이나 인내는 감수해야 할 줄 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이익일 수 있다.

얼마 전에 집에 히팅의 문제가 있어 전문가를 부른 적이 있다. 내가 동양 사람인 줄 아는지 덧신을 준비해서 일일이 집안을 살피고 나중에는 기계까지 완전하게 물로 씻은 다음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다. 신발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서양문화에 우리는 아직도 덜 익숙해 있지만, 그것을 이해해 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동양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말을 듣고 그것이 배려이고 아름다운 눈치가 아니겠나 생각해 보았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모두가 서로 인사를 한 후 유독 한 사람이 눈을 주지 않고 피하는 것을 보고 안 사람이 이상하다는 말을 했다. 필자는 그것도 모르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 아내가 말리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눈치도 없어요!”

“아니 내가 무얼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슬슬 피하지 않아요.”

그 말에는 망연할 수밖에 없었다. 확실히 여자는 남자에게는 없

는 느낌이 있는 모양이다.

다시 말해서 감각이 예민한 것이 있기에 눈치가 빠른지 모른다. 오해일 수 있으나 어찌랴 싶어 그냥 넘어갔지만, 특히 그런 것에 둔감한 사람은 센스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그래서 여자들이 유행에 민감하여 FASHION으로 주름을 잡고, 어떻게 입어야 모양이 있고 세련되어 보이고, 어울리고 남에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일 게다. 필자 같은 사람은 제복이 제격인지는 몰라도 적당히 몸에 편한 대대로 입으면 족한데 색깔이 맞지 않고 위아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매양 핀잔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하는 의문을 갖지만 이왕이면 구색을 맞추어 입으면 좋지 않느냐는 센스소리에 외출 시마다 아내에게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일로 옷 입는 일은 늘 기죽을 수밖에 없는 눈치꾼인 걸 어찌하랴. 사실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고, 반대로 부모는 아이들 눈치를, 남편의 눈치를, 아내의 눈치를,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선배의 눈치를, 교회에서는 교인의 눈치를, 회사에서 사장의 눈치를, 시장에서 손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때 어떻게 눈치를 다스리나가 성공의 비결이 아니랴! 그러나 눈치를 헤아림으로 바꾸어 보면 더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포용의 아량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래서 보다 넓은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담는 그릇이 됨이라 믿는다.

후회 없는 삶

박혜자

쿵! 쿵!~ 멀리서 폭탄이 떨어지던 6월 어느 날, 다시는 돌이킬 수없는 6.25사변이 일어난 것이다. 아직도 이때가 오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었던 그때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밥만 먹으면 남쪽을 쳐 내려갈 준비에 여념이 없던 이북에서 결국은 때를 보아 남쪽을 쳐들어 온 것이다. 지금은 한 장의 역사 속에 묻혀서 사라져가는 한국동란!...

많은 가족들이 헤어져 언제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며 기다렸는데, 6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지 못해 씻지 못할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기를 몇 십 년이 흘렀다. 지금은 6.25때와는 달리 남한이 부유해졌다고 하니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리라 믿고 싶다.

이 해도 거의 절반이 흘러가는 유수와도 같은 세월을 잡을 수가 없기에 내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본일초라도 헛되이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본다.

어느덧 검푸른 숲으로 변해가는 6월 초여름의 색깔이 너무도 아

름다워 때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창조주께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든다.

폭우를 내려 땅을 충분히 적셔주어 긴긴 겨울을 지나면서 메말랐던 흙속에서 살겠다고 빠져나오는 각가지의 생명들의 길을 열어준다. 어느덧 꽃 몽우리가 제법 커지며 자기의 자태를 나타내는 꽃들의 모습, 또한 어디서 날아왔는지 나뭇가지 위에 앉은 종달새들의 설 새 없이 부르는 노랫소리, 모두가 봄을 찬양하는 듯싶다.

또한 여름이 오면 뜨거운 별을 내려 과일이나 야채를 잘 자라고 익어가게 해주는 신의 오묘한 섭리를 생각할 때는 매순간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 인간사회에서도 자연과 같은 돌레를 돌면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받을 갈며 씨를 뿌릴 때, 어떻게, 어떤 곳에 씨를 뿌려야 할지 성경 말씀처럼, 가시밭에, 자갈밭에, 또는 옥도에? 자기가 어디에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가꾸는데 따라 자기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믿는다.

뜨거운 여름 별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 선선한 가을이 돌아올 때 힘든 환경에서 부지런히 일하므로 얻는 많은 수확을 걷어 들일 때에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 평안함과 감사함이 깃들 것이다. 최선을 다해 살던 아니든, 후회가 없는 일생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면 적어도 후회함은 덜어지리라 본다.

무슨 일이라도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누구나 항상 결심은 새롭게 잘 하지만, 작심 3일이란 말처럼 언제 결심을 했던가 싶게 실천이 부족하다.

혹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 본다면 좀 더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은 무엇을 할까?’ 또한 ‘이번 주말에는 무슨 계획을 세웠나?’하고 다시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언제나 실천하기 쉬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무슨 일이던지 “용두사미”격이 되어, 일을 크게 벌여만 놓고 끝을 맺

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결심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결론이다.

나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런 실수를 계속하기에 언제나 후회란 것이 따라온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가다듬고 국가나 개인이나 다시는 어리석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계획을 세워 이루어감으로 마지막 순간이 올 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61년 전국 문교부 공쿠르 입상. 1962년 시립교향악단 & KBS교향악단과 협연. 1963년 신인음악회 데뷔. 두란노문학회 부회장. 1963년 이화여대 피아노과졸업. 수필집 세월의 향기 출간. 2012년 「해외문학」 신인상 당선등단.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

추억은 힘이 없다지만

오 연 희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나면 할 일이 부쩍 많아진다. 사무실 일이나 남편 식사 같은 일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놓고 싶어, 또 한국 지인들에게 줄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할까 싶어 내내 동동거린다.

여기에 더해 평소 안 하던 일까지 꼭 해놓고 가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더 분주하다. 서랍장 정리가 그중 하나다. 눈에 보이는 거야 한 군데로 몰아 놓으면 되지만, 문제는 부엌 서랍장, 옷 서랍장, 책상 서랍장 등등. 보이지 않는 데가 은근히 쾅긴다.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하는 나는 한국 올 때마다 심각하게 각성하지만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뭉개버리고 만다. 그런 내가 친정집 정리해 주러 한국에 왔다.

이 집은 추억 가득 담긴 나의 집이기도 하다. 우리 다섯 남매가 자라고, 결혼하고, 엄마. 아버지의 환갑, 칠순, 팔순 잔치까지 했던 집. 안방 다락에는 미국 갈 때 맡겨놓은 우리 살림살이도 한 귀퉁이 잘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집이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홀로 집을 지키는 엄마, 지난겨울 계단에서 넘어져 한참을 병원 신세지더니 그렇게 미루던 실버타운행을 결정하셨다. 몇 해 전부터 권했지만 '집 정리는 우짜노'라며 걱정이 늘

어지길래 '내가 도와주러 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안심시켜 드렸는데 바로 그날이 온 것이다.

'힘들 낀데 뭐 하러 오노?'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도 엄청 좋아하신다. 내가 짐 정리해 준다고 했잖아, 생색 좀 냈더니 '버릴 것 밖에 없어. 몸만 가는 거야'하신다. 호되게 아프고 나서 마음 정리가 많이 된 것 같다. 엄마 음성이 어찌나 홀가분하게 느껴지는지, 내 마음이 다 시원해진다.

정리하는 데 워낙 소질이 없는 데다 짐을 어떻게 버리는지 한국 상황도 모르는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만, 옛집에서 엄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는 데 의미를 두려고 한다. 엄마는 '내가 빨리 가야 너희들이 고생 안 할 낀데 내가 짐이구나' 맨날 하시는 말씀 또 되풀이하신다. '왜 그런 생각하세요. 엄마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삶 이라고요.' 나는 또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한국 온다니까 우리 네 자매 오랜만에 빠근한 모임 좀 해야 하지 않냐?, 강원도 여행이 어떠냐?, 종로에 무슨 뷔페는 어떠냐?, 완전히 딴 동네 이야기가 카톡방에서 오갔다. 한국 사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무슨 짐 정리? 자기들끼리 킁킁했는지 모르지만, 압튼 나는 짐 정리하러 간다고 공식 선언했고 약속대로 왔다.

예상대로 엄마의 자개장 안에는 케케묵은 이불과 옷으로 짝 차 있다. 입을만한 옷가지 몇 개 추려내고 모두 버릴 거라고 하신다. 자개장이 아직 쓸 만해 보여 가까운 중고품 점에 갔다. 중고품 점 아저씨는 “돈 주고 부숴야 합니다.” 내뱉듯이 한마디하고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한대 얻어맞은 듯 멍하다.

엄마의 자개장

흐트러짐 없는 여왕의 자태
차곡차곡 채워 넣은 세월
허접한 내용물도 번듯하게 포장시키던
친정집 안방 자개장

불러도 불러도 지겹지 않은 꽃노래
'이게 얼마짜린 줄 아니?'
반들반들 광내실 때
엄마의 자존감은 반짝반짝 빛을 발했지

안방 차지했다고 큰소리쳐도
문밖의 세월 이기지 못해
찾는 이 없는 애물단지 신세
중고품 점에 알아보니
돈 주고 부숴야 한다네

가위눌린 듯 소리 되지 못하는
빛바랜 위엄
쫓기듯
남은 생 실으려 실버타운 가시는
우리 엄마

실버타운 모셔다드리고 돌아서는데 뭐라고 할까, 복잡한 심정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엄마는 '내려가는 길에 자손들 모두 맛있는 거 사먹으라'며 적지 않은 돈을 주셨다.

이제 더 이상 친정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자매들 집을 전전했다. 친정집이 있을 때와는 기분이 사뭇 다르다.

한국사는 나의 자매들 모두 빌딩 상자 속에 등지를 틀고 산다. 고층에 사는 막내 여동생 집 거실 유리창 밖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멀미가 인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멀리 두면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과 바람에 나부껴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노란 은행잎이 얼마나 화사하고 화려한지. 한국 가을이 이리 아름다웠나?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한국은 사람도 환경도 점점 더 세련되어 가는 것 같다. 특별한 모임 외에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다니는 나와 달리 짙고 다

나는 멋쟁이가 참 많다. 백화점이든 은행이든 동네 커피숍이든 연령층이 다양한 미국에 비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젊고 예쁘고 매너도 좋다. 하지만 개인 매너는 좀 아닌 것 같다. 마켓 갔다가 문을 열고 동생을 기다리는데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열어 놓은 문으로 쏙 빠져나간다. '익스큐즈미' 아니 '고맙다' 말도 안하고 뭐야, 속으로 구시렁대며 미국서 온 티 좀 내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한국이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최고다.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 내가 승차권을 사서 지하철 노선을 몇 번씩 알아타며 지인들을 만나러 다닌다.

버스 타면 시간이 절약된다고 해서 강남 지하철역 앞에서 수원 가는 버스를 탔다. 얼마예요? 물었더니 2500원이라네. 5000원짜린데 어찌죠? 했더니 나를 멀뚱히 쳐다보던 기사 아저씨가 내릴 때 내란다. 일단 우아한 한 부인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이 입구에 있는 기계에 카드를 대니까 '환승입니다' 낭랑한 음성이 응답을 한다. 돈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걱정이 돼 옆 부인한테 돈 좀 바꿔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없네요'하며 모호한 웃음을 짓는다. 그때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아참, 하며 얼른 안전벨트를 찾아 땀다. 방송이 두 번 더 나왔지만, 승객들이 꿈쩍도 않는다. 옆 부인도 안 매길래 '안 매는 거예요?' 물었더니 '매야죠.' 말만하고 또 빙긋이 웃는다. 은근히 기분이 나빠 '촌에서 왔더니 참말로 어렵네' 중얼댔더니 '아, 촌에서 왔구나'하며 또 웃는다.

내릴 때쯤 기사 아저씨한테 다가가 '5000원 짜린데 어찌죠?' 했더니 '이 버스 오늘로 그만 타는 거 아니죠?'라며 웃는다. '네'라는 답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나는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공짜 버스를 탔다.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수도권 버스는 타 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는 우리 자매들, 고생했네'로 미안함을 대신한다.

한국 올 때면 설렘과 기대도 크지만, 한국의 변화와 한국말의 진의를 따라잡지 못해 어리벉벉한 촌놈이 되고 마는 일이 생길까 봐 사실 좀 긴장한다. 미국 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반기는 사람은 줄어들고, '추억은 힘이 없다'는 어느 드라마 속 대사를 실감하며 아픔도 느낀다. 그럼에도 그리움이 너무 많아 늙고 낡아가는, 그래서 더 정겹고 푸근한 오랜 것들을 찾아 나는 또 한국에 온다.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정정하셨던 양가 어른들, 이제 엄마 한 분 생존해 계신다. 엄마 살아계시는 한국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한국과의 끈이 여전히 단단한 것은 엄마 때문인 것을 어렵듯이 깨닫는다. 그 후는 나도 잘 모르겠다.

세월이 갈수록 단풍은 더 곱게 물들어 가고.



/ 수필가

「해외문학」 신인상 수필당선으로 등단. 「심상」 시 등단.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년픽션 입상.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시 당선. 「에피포도 예술상」 시 부문 본상 수상. 수필집 시차 속으로> 시집 <호흡하는 것들은 모두 빛이다> (2007) 등 있음. 미주중앙일보 교육섹션 칼럼 집필 : (2002-2007). 현재 해외문인협회(미국) 부회장

남편에 대한 두려움

이 이 순

거의 50년을 같이 살아왔지만 지금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지고 있다. 내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변해 버렸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집 근처에 있는 은행에 직장을 가지고 다닐 때의 일이다. 하루는 내가 차가 없어서 남편이 직장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에 나를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어 20여 명의 은행 동료들은 모두 퇴근을 하고, 나만 남게 되었다. 퇴근하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하여 나를 데리러 오라고 부탁했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다. 남편에게 무슨 돌발적인 일이 일어났나? 해서 걱정이 되었다. 나는 좀 기다렸다가 남편이 차를 가지고 오면 함께 집으로 가면 되지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바심이 났던 것이다. 초조와 불안 속에서 20분이 지나서야 남편이 왔다.

“왜 늦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늦은 이유를 물어봤다.

“집 밖에 나와서 자동차를 보니 차 유리에 얼음이 붙어 있어서 얼음을 제거하다보니 시간이 좀 늦은 거야.”

시카고는 한국처럼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자동차의 앞 유리창이 얼어붙기가 일쑤다. 나는 남편의 말에 이해를 하고 자동차에 올랐다.

“마켓에 들러 꼭 필요한 식품을 두 가지만 사가지고 가요.”

나는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마켓에 들렀다가 가자고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마켓에 가는 걸 싫어하니까 빨리 들렀다가 가자고 말한 것이다.

“그럼시다.”

남편의 승낙을 받고 빠른 걸음으로 식품점 안으로 들어가 2개의 식품을 사 들고 나왔더니 6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식품점에서 나와 왼쪽으로 가 보고, 또 오른쪽으로도 가 봤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조바심치며 차 한 대씩 차례대로 찾아보려고 파킹장 중간까지 갔더니 남편은 자동차 뒷문을 열어놓고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었다.

“여보,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남편은 내가 묻는 말에 당황하면서도 자기가 왜 거기에 왔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 돌발적인 남편의 일은 내가 화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남편이 일어나 컴퓨터를 열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어제 일어난 일로 남편이 걱정스러워 기운이 다 빠진 느낌이다. 그래서 전과 같이 냉수를 부탁했더니 냉수를 갖다 주는 시간이 15분이나 걸렸다. 벌써 우리 부부도 상실의 시간이 온 것일까? 마치 가을날 과일나무가 열매를 떨어뜨리고 나뭇잎도 다 떨어뜨리듯이 말이다.

우리도 이제부터 미리 노년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한다면 풍요로운 황혼의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건강을 알뜰히 돌보고, 노인이라는 당면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늙어서까지 돈 버는 일을 하기보다 돈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낭패를 보는 노인들이 있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 세 번째는 노년의 기간은 생각보다 길다.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즐겁게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독고 노인이란 말처럼 만일 남편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날로부터 나는 독거노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친구 몇 명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젊었을 때 늘 하고 싶었던 글 쓰는 일을 하니 잊어버렸던 꿈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은 없는 것이고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조바심에서 나는 혹시 남편의 건강이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일본 나고야에서 출생. 전라남도 여자중고등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가정학과 졸업. Chase 은행(27년 근무) 근속 은퇴. 일리노이 주 시카고 거주. 2011년 「해외문학」 신인상 수필 당선 등단.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 현재 시카고 근교에서 거주.

길 위에서

정 순 덕

사람은 신념과 희망을 위해 투쟁하고 쟁취할 때 생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떠나고 싶어진다. 사람은 존재의 가치와 사랑을 위해 성심껏 나아갈 때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은가. 순간순간을 최선과 성심을 다해 살고 그 외엔 천명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며 자연과 대면할 때 많은 것을 얻는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나드는 세인트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에 떠 있는 크고 작은 천섬(Thousand Islands)은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전설이 전해오도록 아름다웠다. 오래 전 위대한 영혼인 마니토우가 하늘의 커튼을 열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집으로 주면서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며 싸우는 경우 선물을 잃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시 싸움을 멈추는가 싶더니 계속 다투므로 그가 다시 이불에 정원을 싸서 돌아가려고 하늘의 커튼을 열었을 때 그의 이불이 찢어져 정원이 세인트 로렌스 강으로 떨어져 바닥에 부딪치면서 수천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조각이 나서 이 조각들이 천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 천섬을 배로 한 시간이나 돌았는데 슬픈 사연을 지닌 볼트성 락포드 마을 세인트 로렌스 강변에 위치한 선원들의 성인인 성브랜단을 기리는 성당이 우뚝 솟아 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제다리가 있는 자비콘 섬은 큰 섬이 캐나다에 있고 작은 섬은 미국에 있

다고 한다. 세인트 로렌스 강과 섬들의 고귀함과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대방하기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한다. 여러 섬들 사이를 흐르는 깨끗하고 맑고 깊고 신선한 물은 놀라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천섬들은 누구에게 관심 보이는 법도 없이 홀로 유구한 시간을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나이아가라 폭포를 세 번 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신나는 선물이요 가슴속이 후련히 풀리는 죽마고우 같은 푸근함을 준다. 이번 8월에 나이아가라를 찾았을 때는 전에 못 가본 미국 쪽에 있는 '바람의 동굴'을 찾았다. 그날 밤 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더 그랬는지 폭포 밑 동굴에서 하늘 쪽을 바라볼 때는 그 장엄한 물보라와 바람은 사람들을 집어 올려 낚아챌 것만 같았다. 우리 일행은 날씨가 나빠 바람의 동굴 관광을 포기할까 했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나이아가라를 본 것은 내가 본 나이아가라 중 제일 기억에 남는 하이라이트였다. 그 장엄하고 도도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는 나라의 한 작은 영혼은 안중에도 없는 듯 억만년을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 자신이 작아지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는 점.

차 한 잔에 한 입 베어보는 메이플 크림 쿠키에서는 캐나다의 냄새가 메이플 시럽과 어우러져 늦은 오후를 한층 붉게 만든다. '세상은 보는 대로 보인다'고 했던가! 세상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있기 때문에 어찌면 세상은 공평한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번 여행 동안 세상은 나한테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내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내가 먼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새삼 가슴으로 느끼며 이렇게 길 위에서 나는 행복했다.



1957년 이화여고 졸업. 1961년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졸업. 1966년 미국 이주. 2008년 수필집: 당신을 이 세계처럼 찾을 수만 있다면, 2010년 「해외문학」 신인상 수필당선으로 등단. 2015년 고향집 매화, 현재 미국 뉴저지 주와 플로리다 주에 거주. 「해외문인협회」 이사.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

인생은 일장춘몽

조 현 례

요즘은 스스로도 살만큼 살았다는 생각을 꽤 하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모두가 한결같은 인사를 한다.

“건강하시지요?”

그런데 그 말이 웬지 옛날에 들었을 때와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 그냥 내 피부에 와 꽂히듯 실감나는 소리로 메아리친다. 나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그런대로 잘 있습니다.’ 그러곤 한다.

외래어도 아니고 어디서 새로 배운 말도 아닌 순 우리말인데 참 말이 지 ‘그런대로’란 낱말이 그런대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내 귀에 들린다.

살즈만 의사(신장 전문의)를 만났다. 지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남편의 체중이 10파운드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검진을 시작했다. 며칠 전에 위내시경을 검사했고 지금 바이옵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피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내주에 신장 검사(Renal ultra sound)를 하잔다.

그런데 이 노 의사(주치의가 새로 신장 전문 의사를 추천해 주셨을 때 나는 젊은 의사 대신에 연세가 좀 드신 분을 선택했었다)는 덜 바빠서인지 아니면 그의 취향인지 모르지만 다른 병원 식구들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왔다갔다 분주하게 뛰어 다니는 의사의 모습

이 아니라 **로맨스그레이**의 머리를 멋지고 말끔하게 빗어 올리고 방금 어딘가로 애인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려다가 우리를 잠깐 만나는 사람 같은 차림새였다.

그런데 그 의사 분은 내가 평생 써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공책을 들고 나와 우리남편을 인터뷰 하는 게 아닌가. 하마터면 내가 몇 십 년 즐겨 쓰는 공책과 똑같다고 말할 뻔 했다.

그는 남편의 과거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있었던 혹은 있을 만한 희귀병 전염병, 그리고 암 계통의 병 등등. 물론 처음 만나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질의와 답안 작성을 위한 필수적인 면담이었으나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느꼈다. 철저하게(thoroughly)란 낱말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빼놓지 않고 살살이 들춰냈다. 그러한 철저함을 보고 우리 두 사람은 벌써 그 살즈만 의사에게로 믿음이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전 비뇨기과 의사가 꽤 젊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은퇴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이 분도 곧 퇴직하지 않으실 건가하고 첫날부터 공연한 기우를 했다. 이제 막 60세를 넘겼을까 싶은데 벌써 퇴직 운운한다면 병 든 사람들을 구해야 할 의사들의 수명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 100세 시대라고 너도 나도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와 비례해서 세월은 더 앞서 가는 것만 같다. 나만의 투정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인생은 백년을 산다 해도 일장춘몽이라고 인생 노래를 읊은 옛 시인들의 마디마디 말들이 새삼 진리인 것처럼 실감된다.

서양 사람들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느낀다.

부조리! 인생을 부조리라고 외친 까뮈의 글을 읽으면 그가 더 없이 위대해 보인다. 그런 철학적인 표현을 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하긴 이즈음 우리 남편은 성경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하는 시구를 읽으며 결코 비껴갈 수 없는 인생의 황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내외는 우리 방 수리를 위해서 손자 방에서 잠을 자야 했었다. 텔레비전도 못 보고 음악도 못 듣고 큰 소리로 말도 못 섞고 답답해 죽을 맛이였다. 우리 방과 크기가 같았지만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것처럼 엉거주춤하게 되고 병커 침대에서 자야했으므로 마치 감옥살이를 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그 방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였다.

그때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슷한 화두를 이룰만한 읽을거리를 들고 손자 방으로 밤이면 잠자리 들어가곤 했었다.

남편은 읽던 성경책을 들고 가서 전도서를 읽었으며 나는 까뮈의 ‘시지프스의 신화’를 읽고 있었다.

이제 세상 떠날 즈음에 와서야 인생이 어떤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말일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평탄한 삶을 살아 온 덕분에 그저 속 좋은 사람처럼 태평스럽게 벌어놓은 재물도 없으면서 마음의 부자처럼 살아 온 게 뭐 그리 잘못 된 것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 받기만 한 죄인이지만.

찌그러진 냄비를 옛날엔 쓰다가 새 걸 사야지 하면서 버리곤 했다. 그래서 사람도 고래 장을 지냈을 테고. 우리의 죽음도 육신은 그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와서 하곤 한다.

진시 황제도 이 세상의 위대하고 아까운 인재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났듯이 우리만 유독 오래 머물겠다는 생각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듯 오래 살았으면서도 미적미적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들 앞에서 명강의를 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곧장 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죽겠는가 하고 물으면 한사람도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 일까. 나 역시 그런 심정이니까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신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그 때엔 선뜻 나설 수 있을는지.



/ 수필가

강원도 출생. 이화여대, 동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졸업. 1965년 「동아일보」(한국) 신춘문에 동화 당선 등단. 이화여대, 성균관대, 단국대 등에서 강사 역임. 서간집: 너와 나와 만나는 곳> 수필집: <보이지 않는 유산> <가난한 부자> 등 다수 출간.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

엄마의 반지

최 수 잔

올해는 엄마의 만 90세가 되는 생일날이다. 해마다 가는 LA지만, 엄마에게 뭔가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엄마 집을 들어섰다.

구부정한 어깨, 왜소해진 체구, 숨어있던 주름과 검버섯이 얼룩진 엄마의 얼굴에서 예전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유난히 쩡한 마음이 눈에서 가슴으로 빠르게 옮겨온다. 그리움으로 엄마를 안았다. 멀리 세워놓은 액자 속의 웃는 엄마의 모습이 내 안에서는 울고 있었다. 엄마는 없고 사진만 남겨진 듯했다.

식사는 거의 못하고 영양대체품인 인슈어와 미음으로 하루를 지내신다. 꼬박 지새우는 밤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새벽에 잠깐 잠이 드시곤 한다. 엄마를 깨울까봐 조용히 일어나 계란과 닭 소시지를 부드럽게 요리하는 마음이 흥분된다. 좋아하실까, 잡수실까? 그래도 딸의 성의에 조금 맛보고 흐뭇해하시는 걸 보니 내 마음은 더없이 기쁘다.

다음 날은 부엌바닥을 닦고 화장실 청소를 했더니 그만 두라고 성화를 하신다.

“그렇게 매일 청소하며 힘들게 살지 말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하시면서...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라 구석의 먼지를 용납 못하셨던 분이다. 개성음식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자식들은 물

론, 아버지 친구들을 초대해서 개성만두며 보쌈김치 등을 만들어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엄마가 이젠 누가 방문하면 으레 외식으로 통일한다.

모든 일에 철저하고 검소하며 부지런한, 내 기억속의 엄마가 아니다. 세월은 엄마의 외형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인생관마저 바꾸어 놓았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미국 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외할아버지가 서둘러 결혼을 시키셨다.

전쟁이 일어난 어느 날, “집 앞에 폭탄이 터져 웅덩이가 폭 파이면서 가까스로 기어 나왔다”며 그 놀라웠던 그 시절을 상기시켜 주신다.

전쟁으로 대 지주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날이었다. 개성에서 걸어서 삼팔선을 넘어 오느라 탈진하여 삶과 죽음을 오갔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통역 장교를 하신 아버지와 떨어져 살며 힘든 가운데 세 살짜리 언니와 전쟁이 터진 몇 달 후 태어난 나를 굶기지 않기 위해 동냥까지 하셨다는 얘기. 그 파란만장한 삶이 파노라마 되어 생생하게 머릿속을 지나고 또 지나가곤 하셨단다. 인간은 기쁜 일보다는 무섭고 서글웠던 기억이 더 뇌리 깊숙이 각인되는가 보다.

녹내장 수술 후 하루에 세 번 안약을 눈에 넣어야 하고, 소화제 등 한 보따리의 약을 상위에 주-옥 늘어놓고 매일 먹어야 할 약의 혼돈을 겪으면서도, 타운 하우스에서 혼자 사시는 게 존경스럽다. 멀리 가버린 인생의 꿈이 허무하다는 것조차도 잊은 지 오래지만, 자립심은 여전히 강하셔서 절대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살겠다는 의지의 빛깔은 전혀 바래질 않는다. 몸이 약하고 어지러워 가끔씩 알부민 주사를 맞으면서도 맑은 정신이 들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엄마의 모습은 눈물겹고 안쓰럽다.

나는 엄마의 생일날에 지갑 하나를 선물 받았다. 엄마의 집을 떠나려하자 엄마는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면서 “엄마 생각하며 잘

쓰라"고 하신다. 자춧빛 천으로 만든 아주 작은 지갑이었다.

나는 지갑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해서 호기심이 일어나 지갑을 열른 열어봤다.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지갑의 지프는 60여 년간 엄마를 지켜왔지만 지금 지갑은 내 앞에서 부드럽게 열린다.

지갑 속에는 알루미늄 랩으로 싼 비취반지가 엄마의 체취를 잔뜩 머금고 들어 있었다.

엄마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고 오는 길이었다. 우연히 들른 상점에서 반지를 하나 보셨다. 그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사지는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다시 상점에 달려가서 산 반지라고 엄마는 이 반지를 사게 된 연유를 알려주신다.

힘들게 키운 아이들이 너무 대견하고 흐뭇하지만, 웬지 자신에 대해서는 서글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을 것이다. 기분 전환을 위해 손가락에 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것 같다. 지나간 세월의 무자비한 고통의 순간을 이겨낸 쓰라진 추억을 건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비취반지의 비취색깔에 곁들인 흰 색이 글썽거리는 눈물이 되어 반짝이고 엄마에 대한 연민의 정이 확 몰려온다. 인생이란 이렇게 덧없고 비참하고 빈곤한 것인가 하고...

인생이란 풀밭 위에 잠시 머무르다 자취 없이 스러지는 아침 이슬인 걸까? 늙음은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고, 운명이란 굴레를 잡고 살다가 맞게 되는 죽음이 자연의 이치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엄마의 말씀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LA 헌팅톤 비치에서 바라본 태평양은 끝없이 멀리 파란 파도를 타고 있고 실려 오는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뺨 뚫고 있었다. 바다는 언제나 속 깊고 폭 넓은 마음의 교훈을 준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큰 아량을 베풀면서 세상에 빛진 자에서 벗어나라"고. 석양에 바다 위로 쏟아내는 햇빛은 천지를 붉고 눈부시게 만들고, 황홀하게 타오르다 조금씩 그 빛이 잦아들고 있다. 흔적 없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태양을 녀 잃고 쳐다보면서 문득 살아있을 시간의

끝을 가늠하고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고, 남긴 것 없이 헛헛한 흔적만 투영되는 내 인생에 할 일이 많지 않은가. 눈을 떠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며 능력이 닿는 대로 살아갈 이유를 찾아서 인생을 노래하고 싶다. 신록의 숲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들처럼... .

엄마의 고달팠던 삶이 어려 있는 귀한 반지를 끼고서 나는 나의 인생을 재조명하고 있다



1950년 서울에서 출생. 1973년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 대학 졸업. 1975년 미국 이주. 2014년 「해외문학」 신인상 수필당선으로 등단.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수필 입상. ‘미주 두란노문학회’ 회원. ‘해외문인협회’ (미국) 회원. 현재 미국 메릴랜드 주 거주

매화, 청매, 매실주

황영환

내가 미국에 들어온 지 약 20년 만에 한국에 나가, 나의 죽마고우 “J”집에 들렀다. J가 화계초등학교 평교사로 지낼 때다. 그는 모처럼 나를 만나 반가워하면서 자기 집 냉장고에서 작은 파란 병에 든 술 한 병을 꺼내 작은 잔에 가득히 부어 나에게 내밀었다. 그는 “매실주”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술맛을 잘 모르던 나는 받은 술잔을 한숨에 삼키고 말았다. 마치 포도주스라도 마시듯이. J는 기분이 좋아 술을 자꾸 권했다. 어쨌든 나의 얼굴이 붉어 오르고, 화끈하는 열도 생기는 것을 느꼈을 뿐 아니라, 마음도 풀고, 이야기도 술술 나왔다. J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문학과 시를 좋아했다. 그의 자작시를 읊는 것도 나는 즐겁게 들었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술 한 병을 끝냈다. 그날 밤 그의 온돌방에 그냥 넘어져 잠이 들었고, 그 이튿날 헤어졌다.

그 후, 몇 번이나 J를 찾아가서 그때 마신 약간 씩씩하고 푹내나면서 달콤한 맛이 나는 그 매실주를 찾았다.

그때 그는 나를 그의 자동차에 태워서 매실주 원산지인 섬진강 하류 강변 언덕 농장지대로 운전해 갔다. 강 건너 전라도 쪽 남원

광양지대에 지천으로 심어놓은 매화나무에 꽃들이 마을을 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매실주의 생산과정을 말해 주었다.

“매화나무에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며, 그 꽃이 지면서 살구모양의 파란 씨열매가 생긴다. 이 파란 열매가 익기 전에 풋 매실(청매)을 단지나 큰 술통에 넣어 약 10일간 익히면 술이 된다”고 했다.

이 매실주는 과일 술이라 몸에 좋다고 선전되어, 한국 사람은 모두가 맛을 보았을 것이다. 하기가 미국에 살면서도 맛을 아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J의 매화가 술이 되어 술꾼들의 술상에 오른다는 역설에 약간 마음이 혼동되기도 한다. 마치 자기가 좋아하던 집안 강아지를 도살해서 약술로 만들어 먹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내가 어릴 때 매화가 고상하고 희게 피었을 때, 그 꽃은 내가 좋아했던 그때의 정서가 내 마음 깊은 속에서 찌릿하게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을까? 2월의 어느 날 아침에 하늘에는 차디찬 해가 솟아 있었다. 땅은 아직도 눈송이가 다 녹지 않은 채로 다. 그날 학교 교사(校舍) 남쪽 편에 있는 험은 돌담 앞에 흰 등치의 나무 한 그루에 생생하게 파란 가지가 붙어 있다. 그 사이사이에 몇 개의 하얀 꽃들이 마치 냉혈동물 모양으로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주의를 끌어가면서 피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 나이에 무엇을 알았을까? 꽃 옆에 가봤다. 나무 밑에는 아직도 눈이 있고, 뿌리는 돌담 밑으로 퍼져 있었다. 나는 꽃 이름을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맹화야 맹화!(매화를 맹화라고 하셨다)라고 선생님은 뚱하게 말씀하셨다.

그 이후부터 나는 이 매화꽃에 정이 들었다. 아직 꽃봉오리가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꽃이 숨을 불룩불룩 내쉬는 것 같고 숨 쉴 때마다 금방이라도 향내를 뿜어낼 것 같다. 땅에 쌓여있던 눈(雪)도 며칠사이에 사라지면, 매화꽃은 더 크게 벌어지고 활짝 피어날

것이다— 매화만개.

그러면 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매화꽃을 보러 가자고 졸라댈 거야. 그 복스럽고 순박하게 그리고 추운 데서 살아난 이른 봄의 전령사를 보러 가자고...

이젠 그 때의 친구들도 다 죽고, 고향의 학교 담도 다 무너지고, 그 담이 운동장으로 변해 버린 그곳에 어찌 매화나무가 살아 있으랴.

매화도 한철, 국화도 한철이라고 했다. 나는 실향민이고 나의 청춘도 갔고, 고향도 없다. 매화도 없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나도 늙었다. 청소년 때의 보던 그 힘찬 매화꽃도 잊고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도 겨울날씨처럼 추운 올해 3월초에 향전은 나에게 문자를 한통 보냈다.

“앞뜰의 진분홍 매화로 봄을 보내드립니다.” 그 옆에 아직 잎새가 크지 않은 짙막한 나무에 빨간 매화꽃이 핀 사진도 동봉해 보내지 않았는가...

나의 마음을 흔들었고, 매화꽃을 어릴 때의 상념이 나에게 되살아났다. 나의 사춘기의 그 복스럽고 생생하게 핀 눈 속의 강한 꽃이 나의 온몸에 저러오면서 울음이라도 나올 정도로 감격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금방 쓸쓸함을 느낀다. 내 친구 J가 말한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매화꽃은 씨열매를 맺기 위해 피는 것이지 아름다우라고 피는 것이 아니야. 씨열매가 파랗 때 따서 술을 만든 것이 매실주야”

많은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서를 생각하기보다 먹는 것을 먼저 챙긴다.

매화가 꽃매를 만들고 꽃매는 매실주가 되어 사람들의 술상에 오르고 매화의 그 아름답고 정서를 일으키는 마음은 온데간데없어지는 것이 현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은가? (매화꽃 보는 것보다 술 마시는 것이 더 재미있지, 하는 몇 사람의 에코(Echo)도 어디선가 들려오기도 하면서...)



1935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 연세대 의대 졸업. Washington Univ. Med. School Barnes Hospital(St. Louis)에서 외과학 수련, 외과전문의. 스프링필드 일간지 The News Leaders와 The Joplin Globes에 칼럼 집필. 저서: "My Life Story" an English Verson Bio. 현재 미조리 주 스프링필드 시에서 외과개업 중. 「해외문인협회」 이사장,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

이방인의 실루엣 외1편

灘川 이종학

민덕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입이 함박만 하게 벌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린다. 한국의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너무 흥분해서 무엇부터 써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내가 가슴 조이며 기다리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손길임에도 진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각이면 아내는 딸기밭에서 청주 시내 청과물시장에 내보낼 딸기를 수확하느라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으리라.

<여보 나 됐어 됐다구!> 이렇게 서두를 쓰고 보니 권투선수도 아니고 어쩐지 소금 안 넣은 콩국수 같다. 덕수는 제물에 싱긋 웃음을 입가에 묶어둔 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다. <여보 쉰언, 나 직장 잡았어. 꽤 큰 회사이고 대우도 괜찮은 편이야. 드디어 당신 소원대로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구.>

덕수는 겨우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 기쁜 소식을 아내는 아마 저물녘에나 받아볼 것이다. 딸기를 시내 청과물도매상에다 넘기고 돌아오면 빨라야 오후 여섯 시나 된다. 청과물 시장은 2.5톤 트럭으로 왕복 네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다. 스마트 폰으로 쏠살같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차분하게 받을 만큼 한가한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딸 수리와 아들 수남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와 함께 통화할 수 있는 시각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자니 어지간히 인내심을 강요당할 것 같아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고 전자메일의 신세를 먼저 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시각 하오 여섯 시경이면 캐나다 북극권 서북부에 해당하는 에드먼턴은 새벽 두 시경이다.

덕수가 이곳 에드먼턴에 온 지는 지난 3월 초, 벌써 삼 개월이다 되어 간다. 베트남 여성인 아내 쑤언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든 외국으로 이민 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수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울고 돌아오는 날이 잦아지자 그녀의 눈이 촉촉해지는 날도 늘어갔다. 마을 또래들이나 학교 아이들은 수리와 수남이를 이름 대신 아예 ‘월남애’라고 부르며 괴롭힌다.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이다. 대가족제도나 음식문화가 비슷해서 그런지 동남아시아에서 민족성과 외모까지도 한국인과 가장 흡사하다고 한다. 근면 성실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국민성까지도 꽤 닮은 편이다. 다만 아직도 모계 중심적이라 여성이 생활 전선에 나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점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여인네가 가정을 꾸려가고 부부 맞벌이하는 경우는 낮설지 않다. 아니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여성의 능력과 생활력이 그만큼 인정받는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

덕수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가서 처음으로 쑤언과 상면했을 때 한국 여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 내심 안도했었다. 물론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으로 혼담이 오가자 제일 먼저 사진부터 교환해 눈여겨본 터여서 더 그랬겠지만, 이국적인 생소한 인상을 별반 느끼지 못했다. 다만 언어가 다르다는 것 이외에는 좀 마르고 개미허리처럼 너무 가냘파 보여 건강이나 체력이 걱정되었을 따름이었다. 쑤언도 덕수가 외국 남자처럼 여겨지지 않아 어느 정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덕수가 베트남에서 아예 결혼식을 올리고 귀국해서 마을에 돌아오자 어디 베트남 신부 구경하자면서 호기심을 잔뜩 가지고 찾아온

하객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한복을 차려입은 쭈언에게서 뜻밖
에 외국 여자의 외모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는 눈치였다.

이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지라 수리와 수남에게서 소위 혼
혈아의 모색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 선입견을 품은 사람이라야 아
이들이 엄마 쭈언을 많이 닮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도 트기니,
혼혈아니 하면서 주위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언동을 서슴
치 않았다. 소위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인 헤이트스피치
를 예사로 했다. 어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이들이나 다름없이
좁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수시로 부담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
이었다.

사실 차별화에 인한 상처는 쭈언에게 더 가혹했다. 월남 여자까
지는 그래도 괜찮았다. 돈에 팔려온 여자라고 색안경을 쓰고 수군
거렸다. 심지어 누군가는 얼마 받고 왔느냐고 노골적으로 묻는 결
례를 예사로 저질렀다. 인신매매를 연상하는 멸시이고 비아냥거림
이었다. 그래도 쭈언은 참았다.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
고 싶지 않았다. 텃세려니, 이방인이어서 낯설어 그러려니 견뎠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아픈 가슴을 누르고 자위하
며 살았다. 이역만리 타이한에 팔려간다는 심정으로 결혼하기로 했
을 때 그녀는 어떤 경우든 조용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
신을 포기하는 삶을 각오했다. 하지만 죄 없는 아이들에게 차별의
상처를 입히는 짓은 견디기 어렵다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우
리 아이들의 장내를 위해 이민이라도 가야 한다고 애원했다. 차별
은 분노를 낳는 법이다.

“여보, 우리 어디로 이민 갈 수 없을까?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기 너무 힘들어요.”

“쭈언, 나라고 왜 안 그러겠어? 하지만 갑자기 이민은…….”

“여러 인종이 같이 사는 나라면 어디든 다 좋아요.”

덕수는 입으로 쭈언의 입을 막았다. 어찌 편한 마음이겠는가. 아
내는 물론 이제는 어린 자식들에게까지도 차별적인 언동을 좁처럼
멈추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다. 목젓이 시큼하고 울화통

이 터지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 마구 휘두르고 싶은 격한 충동에 몸이 바르르 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화는 유난스런 편이다. 괴물처럼 여기는 편협이 보편적이었다. 같은 민족끼리도 씨족과 빈부와 심지어 지역적 편견이 관습처럼 지금도 이상하지 않게 여길 정도이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민족과의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지역 간의 왕래도 드물었던 폐쇄적 사회 현상의 결과임을 우선 큰 원인으로 꼽아야 한다. 다음은 헤아릴 수 없는 외세 침략에 시달렸던 역사적 피해의식에서 오는 약자의 자격지심 같은 역동적 심리 요인을 지적하는 사회학자들도 있다. 강하고 부유한 민족과 약하고 비난한 인종 앞에서 무자비한 차등을 나타내는 사대사상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국민다운 면모를 갖추어 시기가 지난 지 이미 오래임에도 비겁한 구태를 진통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글로벌 세상에서 세계가 연결된 요즘 걸핏하면 다문화가정 운운하면서 고질적인 이종 차별은 보기 민망하다. 돈 주고 데려온 가난한 동남아 여성이니, 코시안 따위 폄하하는 언사는 선진국 진입을 염원하는 한민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얼굴 없는 아버지 때문에 버림받고 능멸당하는 ‘라이(잡종) 타이한’이 1만 여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는 필리핀에 가서 혼인 빙자한 사생아 ‘코피노’를 양산하는 파렴치한 한국 남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니 무슨 양심으로 누가 누구를 차별한단 말인가.

썩은 생각보다 빨리 이국땅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다. 언어와 문화의 충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가상했다. 그녀는 언어감각이 뛰어나서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려는 노력의 결과가 하루가 다르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병석에 있는 노모를 정성으로 간호하는 정성에 덕수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하기는 베트남 여인과 국제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은 순전히 병든 어머니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인 데다가 이런 집안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주변에는 없다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덕수였

다. 쑤언은 농사일도 척척 잘 해냈다. 그 가냘픈 몸으로 장정 일꾼 못지않게 농작물을 가꾸었다. 열심히 배우더니 오래지 않아 트럭은 물론 경운기 같은 농기계도 척척 잘 다루었다.

덕수는 하루하루가 신이 났다. 쑤언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오히려 과중한 일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라도 생길까 걱정이었다. 이런 쑤언이 자식들에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픔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그는 이 년 전부터 이민에 긍정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노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더욱 적극성을 보였다. 내심 이민 가는데 나름으로 두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는 물론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이 가능한 나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우선 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이민 사이트 인터넷 검색과 이민에 관한 서적을 샅샅이 뒤져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한국 주재 외국 영사관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듯 이민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영어 공부도 빼놓지 않았다. 초급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그의 영어 실력은 중.고 때부터 알아주었다. 그리고 다행히 쑤언 역시 불어와 영어 능력이 뒤지지 않는다. 그녀는 대학 중퇴 이후에도 틈틈이 외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터였다.

은연중 이민을 준비하던 덕수는 캐나다 서부 에드먼턴에서 용접 숙련공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오일샌드산업 국가다. 덕수는 무릎을 탁 쳤다. 용접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숙부가 청주 시내 변두리에서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철공소에 바쁜 일이 생기면 일손을 도왔다. 그러다 보니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어지간한 용접 작업을 척척 해냈다. 본시 손재주가 있는 터라 이제는 숙련공 대접을 받을 정도였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덕수는 쑤언하고 의논했다. 계획했던 농장하고는 동떨어진 직업이지만 우선 이민부터 하고 나서 농업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덕수는 캐

나다 에드먼턴을 찾아 가기에 이르렀다.

에드먼턴에서 용접기능 연수과정을 거쳐서 취업보증수표로 통한다는 캐나다 용접사무국(CWB) 자격증을 따낸 덕수는 대형 오일탱크 제작회사에 추천받아 채용이 결정되었다. 용접공 공인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실력이 제대로 인정된 케이스다. 보수도 만족스럽고 회사에서 곧 워킹비자 등 캐나다에서 취업하도록 합법적 절차를 밟아 주기로 했다.

덕수는 그동안 나름대로 봐 두었던 임대주택을 계약했다. 수리와 수납기가 오는 대로 다닐 학교와 인접한 곳이다. 만사 오케이. 썬언이 복 있는 여자인가 보다. 그녀와 결혼하면서 만사가 형통했다. 이제 한국에 나가서 가족을 데리고 오면 된다. 채용된 회사와는 두 달 허락을 받았다. 이민 짐을 싸 오기에는 좀 빠듯한 기간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덕수와 썬언은 때가 오면 당황하지 않고 이민 갈 수 있도록 그 동안 아주 차근차근 정리하는 예비성이 철저했다. 무엇보다도 이민살이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도 꾸준한 적금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덕수는 가족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하니 기분이 썩하고 해 뜰 날이었다. 캐나다 이민이라니, 감히 꿈도 꾀 보지 못했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고2 때만 해도 덕수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농촌에 살았지만, 아버지가 일찍부터 특수작물 농업을 시작한 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다. 청주시 근교라는 지역적 이점을 살려 비닐하우스에다 딸기와 토마토 등 전천후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렸다. 다른 농가와는 달리 한 해 내내 농업 소득을 적잖게 올렸다. 덕수 아버지는 외아들인 덕수가 원한다면 끝까지 학업을 마치도록 뒷받침할 생각이었다. 학교 성적도 좋은 편이라 농업후계자 아닌 다른 방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살기를 바랐다.

예측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일이다. 아침 일찍 부부가 트럭에 물건을 싣고 시장에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넘어온 대형 유조차가 마주 오던 덕수 아버지가 운전하던 트럭을 정면으로 받아버렸다. 운전대에 앉았던 덕수 아버지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는 중상을 입었다. 트럭은 박살이 났다. 졸지에 덕수는 천 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에 직면했다. 갑자기 집안을 건사할 가장이 되었고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중환자실의 어머니 입원치료를 도와야 했다.

한창 희망에 부풀었던 덕수는 당장 학교를 집어치우고 아버지 뒤를 이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아직 성년에 미치지 못한 나이였으나 덕수는 마음을 단단히 도사려 먹었다. 닥친 불운을 피하거나 좌절하는 나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하기에는 자신의 장래가 너무나 황량할 것 같았다.

다행히 그동안 아버지를 도와 특수작물 재배를 해온 일꾼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유업은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장기 입원한 어머니는 착실하게 병구완해 준 간병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계속 위탁하기로 하고 고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대학 진학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여러 여건으로 보아 희망했던 대학은 접어야 했다. 타지에 나가 학업을 하기는 무리였다.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지방 초급대학으로 만족하고야 말았다. 소위 주경야독하는 기회라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덕수에게는 장래를 굳게 약속한 여자 친구가 있었다. 숙부의 철공소에 가끔 다니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여학생인데 서로가 무척 좋아했다. 그녀 구애리를 위해서 초급대학이라도 마치고 싶었다. 그러나 구애리는 말 그대로 갈대였다. 덕수의 집안 형편이 창졸간에 기울어지자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결별을 통고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농촌에 처박혀 살 여자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칼로 무 자르듯 했다.

“덕수 미안해. 우린 인연이 여기까진가 봐. 먼 곳에서 행운을 빌겠어. 안녕.“

구애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간절한 사랑도 철석같은 언약도 이 한 마디에 고스란히 백지가 되어 버렸다.

덕수는 차라리 잘되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은 아리고 아팠다. 분노를 씹으며 그녀를 영원히 지워버리자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 두 번 다시 여자라는 존재는 가까이하지 않겠노라고 어금니를 바드득 깨물며 다짐했다.

덕수는 초급대학을 졸업하고 전적으로 농사에 몰입하면서 심신이 한눈팔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냈다. 비닐하우스의 특수작물은 시기를 놓치면 제값을 못 받는다. 때맞추어 부지런히 손맛을 보여야 하고, 새로운 재배법을 익히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꾸준한 개량은 바로 수확과 소득에 직결된다. 국가가 인정하는 모범농가이어야 여러 가지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덕수의 숙부와 누님을 비롯한 가까운 친척들은 결혼을 권했다. 안방을 지킬 안주인이 들어와야 집안 꼴이 제대로 잡힌다면서 재촉했다. 장기 입원한 노모도 걱정이려니와 집안 살림이 제일 큰일이였다. 언제나 나간 집처럼 썰렁하고 어수선했다. 농장에 매일 나오는 일꾼이 세 명에다가 수확기가 되면 대여섯 명의 마을 아낙네가 일용으로 일손을 돕는다. 때 놓치지 말고 새참을 먹여야 한다. 하루 세끼에 두 번의 새참을 준비한다. 일꾼은 먹은 만큼 일한다는 말이 있다. 이들에 대한 부실은 바로 소득 감소에 이어진다. 이런 큰살림을 도우미 아줌마가 혼자서 전적으로 갈무리하고 있다. 인근에 출가한 누님과 숙모가 가끔 찾아와 살림을 챙기지만, 자신들의 일도 바빠서 바늘허리 맬 지경이다.

다급한 시정을 뼈저리게 느끼는 덕수였으나 여전히 결혼에는 고개를 강하게 내저었다.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여자는 구애라 하나로 충분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자는 피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도우미 아줌마가 외지로 이사를 가버렸다. 당장 야단법석이였다. 비로소 집안일을 전적으로 도우미에게 맡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살림하는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려면 안주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우리 조상은 이성지함은 천하의 근본임을 가르쳐 오고 있지 않았는가.

주어진 환경을 먹고 사는 게 사람이다. 덕수는 좀 한가한 시간에 국제결혼 정보사이트를 검색했다. 그중에서 한 결혼정보업체를 택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 농촌 총각들이 동남아 여성을 짝으로 찾기 시작할 무렵이다. 덕수는 농부인 자신과 결혼할 대상도 없으려니와 있다손 치더라도 한국 여자는 싫었다. 아예 근본도 잘 모르는 생판 외국 여성과의 결합에 도전할 고집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덕수는 베트남 여자 쑤언을 만나게 되었다.

스물여섯 살, 사진으로 본 쑤언은 양순하면서도 이지적인 인상이었다. 첫째로 간호대학 중퇴라는 데 끌렸다. 어머니의 병간호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것만으로 만족했으나 지나치게 큰 액수의 결혼조건이 부담스러웠다. 갑자기 가정이 경제적 곤경에 빠져서 궁여지책으로 택한 국제결혼이라고 했다. 하긴 타국의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일생을 의탁한다는 것은 양가의 규수로서는 몸을 던지는 자포자기와 다름없다.

여러 날을 숙고한 끝에 덕수는 일단 쑤언을 만나려고 베트남 해변 중부도시 호이안에서 가까운 한 농촌으로 날아갔다. 궁색하지 않게 살았던 가정으로 보였다. 연만한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가 여럿인 오빠 내외의 대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호이안 어시장(魚市場)에서 일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넉넉한 편이었다. 그러다 쑤언이 남자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빚보증을 선 게 탈이었다. 캐나다와 조건이 좋은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청난 사기였다. 이자 높은 빚만 고스란히 떠넘기고 사라졌다. 이자는 매일 늘어나고 빚 독촉으로 온 식구가 거리에 나왔을 지경에 이르렀다. 궁여지책으로 쑤언은 국제결혼의 몸값으로 가정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가족은 극구 말렸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덕수와 쑤언은 만나서 짧은 영어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다. 대가족제도에서 자랐고 여자의 몸으로 책임을 지려는 쑤언의 의지가 가상했다. 의지가 형식의 한계를 극복할 힘을 가진다는 말이 문

득 떠올랐다. 사랑으로 상처를 입은 그녀의 시련도 같은 처지의 덕수이기에 오히려 동병상련의 위로가 될 것 같았다. 더는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응낙했다. 아니 아예 결혼식까지 올렸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격이다. 물론 빚도 갚아 주고 얼마간의 생활비도 내놓았다. 한여름 딸기와 토마토 농사만 잘되면 만회할 정도의 금액이었다.

썬언은 결혼 일 년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임신해서 두 살 터울로 딸과 아들을 순산해 잘 길렀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노모였지만 생전에 손자 손녀를 안겨 드린 효도는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압권이었다. 이리쿵저리쿵 말도 탈도 많은 국제결혼이었으나 덕수와 썬언 부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서로 원만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남매가 자라면서 썬언에게서 부득이 ‘이민’이라는 말이 나오고 말았다. 더구나 노모가 세상을 떠나자 그 말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 이민을 강조하고 되풀이하는 빈도도 잦아졌다.

덕수는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썬언과 아이들의 기쁨은 하늘에 가 있었다.

“당신 능력에 다시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썬언이 살포시 안기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좋아?”

“우리 아이들이 기를 펴고 살게 되었는데 그 이상 기쁜 일이 어디 또 있어요.”

그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거의 하늘에 가 있었다.

“이게 다 썬언 당신 복이라구. 당신의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이민을 생각이나 했겠어. 안 그래?”

대답 대신 썬언의 입술이 다시 덕수의 안면을 무차별 공격한다.

덕수는 새 직장에서 허락한 두 달의 말미는 좀 짧았지만, 대충 출국 마무리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마침 집과 농장은 누님이

맡아 관리하기로 해서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쑤언과 아이들은 이미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캐나다 대사관에 학생비자 신청을 해 놓은 터라 차분하게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9월에 시작하는 새 학기에 맞추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되어 다행이었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착착 진행되어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고국을 떠날 수 있었다.

9월 중순 에드먼턴은 벌써 조석으로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덕수와 쑤언 일가는 드디어 캐나다 이민생활에 들어갔다. 삶의 방식을 갑자기 달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수선하고 막막한 외국살이의 이질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쑤언으로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어서 극복이 빨랐다. 이삿짐 정리는 끝났고 아이들 학교 입학 절차도 마쳤다. 물론 덕수는 시내 변두리에 있는 회사에 출근했다. 쑤언은 역시 덕수가 미리 마련해 두었던 승용차를 잘 이용했다. 국제 운전면허가 있는 터라 정식 운전면허를 받을 때까지 잠정적인 운전이 가능했다. 한국에서 트럭을 자유자재로 끌고 다녔던 운전솜씨가 야닌가. 인구 팔 십만에 불과한 도시에서 안전 운전은 식은 죽 먹기였다. 아침 일찍 덕수를 회사에 출근시키고 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 보냈다. 이렇게 아침에 잠시 부산을 떨고 나면 다음 시간은 몽땅 쑤언의 차지다. 한국에서는 매일이다시피 팔다리에서 비파 소리가 나게 바빠 살아온 그녀는 한가한 시간이 부담되어 오히려 허전했다.

쑤언은 이미 알아 두었던 영어 연수과정(ESL)을 밟기로 했다. 캐나다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언어 소통이 절대적이다. 다행히 이곳 정부는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봉사업무의 하나로 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어 실력의 정도에 따라 분반해서 교육한다. 쑤언은 중급반에 배정되었다. 행복했다. 다시 공부할 수 있다니 꿈이 야닌가 싶어 얼굴을 다 꼬집어보았다.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 간호대학을 마치지 못한 게 내내 한이 되었는데 늦게나마 다시 배울 기회를 얻다니 거짓말 같았다. 그녀는 영어 학습에 열중했다.

기회가 온다면 이제라도 다시 간호대학에 도전해서 일급 간호사 자격을 얻어 병원 근무를 하고 싶었다.

쭈언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영어학원에서 베트남 동포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그들도 영어를 배우려는 이민자들이었다. 얼마만의 후련하고 정감 어린 대화인가! 한국으로 시집가서 사 년 만에 딱 한 번 베트남 친정에 갔을 때 가족들과 베트남 말을 마음껏 사용해 보고는 거의 오 년 만의 일이다. 한국에서는 다른 지역에 자신처럼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여인 서너명이 있긴 하지만, 무슨 모임인가에서 한두 번 잠시 만났을 뿐이다. 서로 한가한 몸이 아니고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라서 서로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게 고작이었다. 팔자에 없는 언어장애자 신세나 다름 없었다. 살기 위해 오직 한국말과 한글을 익히느라 애를 쓰다 보니 베트남어는 완전히 잊은 듯했다. 그러다가 동족들을 만났으니 수도꼭지를 잠그듯 틀어 막혔던 말문이 장마에 뚝 무너지듯 했다.

원했던 영어 교육도 받고 마음껏 내 나라말을 하게 된 쭈언의 나날은 기분 만점이었다. 사는 게 신 나고 의욕이 넘쳤다. 나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하며 다니다시피 했다.

덕수도 직장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듯했다. 쭈언은 베트남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 그들 집을 찾아 놀고 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쭈언은 옆에 누워 있는 덕수에게 넌지시 말했다.

“여보, 나 상의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뭔데?”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낮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해서요.”

“당신에게 맞는 잡이 있을까?”

“베트남 식당이에요. 영어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소개해 주었어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식당 일은 너무 힘들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장 없도록 할 거예요. 아직 젊는데 왜 앉아서 시간 낭비해요? 여기까지 와서 돈을 벌 수 있다니 얼마나 행운이예요. 오케이 해줘요. 여보?”

덕수는 반대할 수 없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한국에 온 이래 십년 가까이 외롭게 살아온 쑤언을 잘 아는 그로서는 캐나다에 와서까지 그 외로움을 지속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민 짐을 풀고 열흘쯤 지난 일요일에 덕수는 가족을 이끌고 한인 교회에 나간 적이 있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와서 한동안 나그네 처지를 위로받았던 교회이다. 어차피 이민살이를 하자면 한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러나 쑤언은 교회에 두 번 나가더니 부담스러워했다. 가난해서 한국 농촌에 시집 온 베트남 여자라는 꼬리표가 여기에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의식한 듯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인 교회에서도 언어 소통에 주눅이 들어버렸다. 이번에는 영어가 문제였다. 이런 상황이라 덕수는 아쉽지만, 한인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잡을 갖겠다는 결심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또 다른 연유가 쑤언에게 있음을 덕수는 잘 알고 있다. 쑤언은 베트남의 친가에 보내는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다.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다섯 달 정도 지나서부터 쑤언은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을 베트남 친가 부모에게 송금했다. 처음부터 덕수가 권해서 시작한 일이다. 예상보다 집안과 농사에 너무나 헌신적이고 중병환자인 노모를 지성으로 돌보는 그녀에게 감동한 덕수는 따로 고마움을 표하고자 했다. 캐나다에 왔으니 그녀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틀림없다. 한국에서처럼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실정을 염려한 그녀였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쑤언은 베트남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쑤언은 마치 베트남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매일같이 많은 베트남 동족을 만났다. 식당을 찾는 그들은 누구나 반가웠다. 베트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향인 호이안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더러 만났다.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가족을 만난 듯 너무나 반가워 손을 잡고 마구 뽀적도 여러 번이었다. 이런 감정은 그녀뿐만 아니라 베트남사람 누구에게나 있었다. 각기 사연이 있어 고국을 떠나 이방인으로 사는 나그네들이다. 특히 민족의 정체성이 강하기로 유명한 그들은 동포애나 망향의 정도 깊었다. 이념 갈등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던 민족 분열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직장에서 돌아온 쑤언의 화제는 언제나 베트남 일색이었다. 베트남이 지금 어떻게 변해 가고 있으며, 어느 베트남사람이 어떻다는 등 신명이 나서 마구 떠들어대는 그녀는 원래의 조순한 면모를 점점 잃어 가고 있는 듯이 보였다. 문제는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 있었다. 그녀는 베트남어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 누구도 베트남어를 잘 알아듣는 식구가 없음을 아는 그녀가 말이다. 그러고 보니 많이 배웠던 그녀의 한국말은 어느새 더듬거리는 퇴화를 보였다. 여전히 덕수와 아이들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터라 자연스럽게 다중어(多重語) 가족이 되어 가는 꼴이었다. 식구끼리 서로 이어줄 소통의 언어가 없으면 가정의 안정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음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곧잘 만들어 먹던 한국 음식은 은연중 밥상에서 꼬리를 사리는 대신 베트남 음식이 자주 얼굴을 내밀었다. 식당에서 베트남 음식을 가지고 오거나, 집에서든 곧잘 베트남 요리를 만들어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어쩔 수 없이 쑤언의 일방통행이 대세를 이루는 형국이 되어 갔다. 분명히 심리적인 변화였다. 고국을 떠나 절실했던 외로움을 일시에 털어버리려는 도전적인 몸부림이 이제야 뒤늦게 나타났단 말인가. 그러나 가족들의 의식적인 인내는 때를 만나면 폭발력이 강해지는 법이다. '삶의 근본 충동'일 수도 있다.

동족에 집착하는 쑤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덕수가 아니다. 한국에서의 십 년 세월이 쑤언에게 얼마나 가혹한 고통과 인고를 강요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소외와 모멸의 상처는 아물기도 전에 터지고 덧이 나고 굼기를 거듭했다, 그런 혹독한 질고를 쑤언은

쩍말없이 잘 참아내 주었다. 빛에 몰려 자폭 직전의 자신과 가정을 구해 준 고마움을 늘 입에 담았다. 덕수는 그래서 아내를 더 믿고 의지했다. 진정으로 사랑을 이어갔다. 그렇다고 인제 와서 일탈(逸脫)의 정도가 점점 더해 가는 아내를 방관하기에는 불안했다. 한국인의 아내임을 잊으면 큰일이다. 빛나가는 자신을 자각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신의 분수를 추스르지 못할 만큼 아둔한 썬언이 아니다.

어느 날 덕수는 아이들과 함께 썬언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다. 갑작스러운 출현에 썬언의 눈은 휘둥그레지면서도 입은 함박만 하게 벌어졌다. 자기가 일하는 식당에 올 수 없느냐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덕수는 아내가 일하는 곳에 얼굴을 내미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다. 어쩐지 아내를 식당에서 일이나 시키는 못난 남편으로 비치는 게 좀 그랬고, 모르는 베트남인들을 갑자기 대하자니 쑥스럽기도 했다.

흥분한 썬언은 여러 베트남인을 소개했다. 서로 아직 서툰 영어 실력으로도 이들과의 의사소통은 무난했다. 이방인끼리라서 이심전심의 속도가 더 빠르지도 모른다. 그 후로도 덕수는 식당을 가끔 들렀다. 베트남어를 새삼스럽게 배우는 열성도 보였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아 갈무리하고 있던 마음의 목소리를 꺼냈다.

“여보 썬언, 우리 한인 교회에 다시 나가면 안 될까? 한국인들과 도통 왕래가 없으니까 좀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네.”

썬언은 잠시 무춤하는 듯하더니 안색을 추스르며 아주 명쾌하게 대답했다.

“오~케이. 다음 일요일에는 우리 한인 교회에 나가자고요.”

“탱큐. 당신은 역시 멋진 여자야.”

덕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이 의도한 우회적인 행보와 의사 표시가 먹혀 들었음에 안도했다.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들러 썬언을 만나면서 덕수는 내밀히 의사 전달을 한 셈이고 아내는 상황을 깨닫는 영리함을 보였다.

다시 한인 교회에 나간 첫날 다행히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도 미숙한 대로 영어로 대화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한국 아이들이 그리웠던 것이다. 차별화 같은 불쾌했던 기억보다는 동질감이 앞서 가는 데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혼혈아일지라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은 틀림없다. 한인 교회에 대한 아이들의 호의적인 변화는 덕수에게 대단한 구원병 역할을 했다.

덕수의 노력은 이어졌다. 온 가족이 한인 식당 나들이도 하고 한인들의 크고 작은 모임에도 얼굴을 보였다. 물론 쑤언이 원하면 베트남 식당에도 가고 베트남인들의 행사에 참석했다. 국제결혼의 특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피가 시키는 일이라고나 할까. 쑤언의 속내까지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변화가 생겼다. 쑤언은 집안에서 베트남어의 사용을 줄이는 대신 영어를 섞어 말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집안에서도 가급적 영어로 말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 그녀였다. 더욱 철저한 다중어 가정이 되어 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쑤언이 영어를 들고 나온 저의에 있었다. 한인 교회에 나가면서 덕수와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씩 쓰던 영어와 베트남어가 한국어에 밀리는 분위기에 어깃장을 놓는 느낌이 들었다.

북극권에 속한 에드먼턴의 겨울은 캐나다 오리들이 남녘 여행을 다 마무리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찾아온다. 11월이면 눈발을 동반한 한랭풍이 채 떨어지지 못하고 진저리를 치는 나뭇잎까지 쟁기듯 휩쓸고 내닫는다. 이곳 엄동설한을 처음 맞는 쑤언은 두꺼운 방한복으로 몸을 감싸고 오늘도 베트남 식당에 나갔다. 추위에 약한 쑤언은 자동차 히터를 있는 대로 올렸는데도 몸이 덜덜 떨렸다.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베트남국수 종류의 뜨거운 국물은 혹독한 추위도 금세 녹여 낸다. 이열치열을 대표하는 베트남국수가 추운 캐나다에서는 이열치한의 역할도 한다.

점심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가고 나서 한가한 하오 세 시쯤

세 명의 낯선 손님이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다. 밴쿠버에 사는 베트남인들이 에드먼턴에 출장 왔노라고 했다. 잠시 후 쑤언이 서브한 베트남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곧 이야기에 열중했다. 카운터에 앉았던 쑤언은 무심히 흘러 들던 그들 대화 가운데 귀에 익은 이름이 스쳐 와서 귀를 잔뜩 곧추세웠다, 판르엉.....? 그들이 주고받는 말에서 다시 판르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분명히 판르엉이라고 들은 것 같다. 쑤언은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진정하고 차분하게 확인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쑤언은 속으로 다짐 또 다짐하면서 눈치채지 않도록 손님들의 대화에 청각을 더욱 민첩하게 작동했다. 그들에게서 다시 판르엉이라는 이름이 들렸다. 그것도 여러 번 잇따랐다. 쑤언의 심장에서 이번에는 광! 하는 충격음이 들렸다. 순간 그녀는 이미 손님들의 식탁 가까이 있었다.

“대화 중에 실례합니다. 혹시 판르엉이라는 분이.....?”

“판르엉요? 우리 사장님이신데 왜 그러시죠?”

“아 그러시군요. 좀 낯설지 않은 이름이라 반가워서 그래요.”

“워낙 저명한 분이려 우리 베트남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름이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찾아오세요. 우리 사장님은 같은 민족이라면 누구나 잘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명함을 꺼내 주었다. 세일즈맨인 듯하다 시원시원한 인상이다.

“예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이 네임카드에 있는 대표전화를 누르세요. 그리고 교환에게 대표님과 통화를 부탁하면 바로 연결해 줄 겁니다.”

쑤언은 네임카드를 선뜻 받았다. 뱅카무역주식회사였다. 베트남과 캐나다 국기가 표시된 로고로 미루어 양국을 잇는 무역을 하는 회사임이 분명했다. 잠시 명함에 두었던 시선을 거둔 쑤언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친김에 결례를 무릅쓰기로 했다.

“혹시 사장님의 고향이?.....”

“우리 사장님은 항구도시 호이안 출신이세요. 어시장이 있는 근처

어촌이 출생지예요. 언제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죠.”

꿀깍, 쭈언은 마른 침을 삼켰다. 동시에 심장이 멎는 듯하고 양다리에서 힘이 쪽 빠져나갔다. 그녀는 가까스로 침착성을 지탱하면서 손님들 앞을 물러났다. 더는 확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다. 판르엉, 네가 캐나다에 와 숨어 있었구나! 세상은 좁다더니 바로 나하고 가까운 하늘 아래에서 말이다.

그녀는 판르엉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그의 품성과 재능으로 보아 큰 인물이 되리라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그가 캐나다와 무역을 한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안심하고 선뜻 빚돈을 긁어모아다 주었다. 쭈언 집안으로서는 거액이었다. 그것은 바로 쭈언의 삶을 바꿔 놓은 실수였다. 고통과 치욕의 시작이었다. 판르엉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얻어낸 빚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이자 채촉, 빚 독촉에 집안이 만신창이가 되자 쭈언은 몸을 내던지는 심정으로 한국 남자와의 국제결혼을 택했다. 쭈언은 십여 년 전 비참했던 자신이 되살아나 새삼스럽게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쭈언은 마음을 다잡고 어금니에 힘을 주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판르엉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때부터 그녀의 계획은 집요하고 면밀했다. 우선 판르엉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그녀는 은밀히 탐색에 나섰다. 제일 먼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했다. 식당에 찾아오는 많은 베트남인은 판르엉을 잘 알고 있었다. 캐나다에 있는 베트남계 기업체로는 규모와 재정이 첫째로 꼽힌다고 했다. 베트남 커뮤니티의 자랑이라고 치켜세우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밴쿠버의 궁궐 같은 고급저택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다는 가정환경도 알아냈다. 이 정도면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지 않다는 자신이 생겼다. 모든 준비 완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쭈언은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전화기를 들었다. 베

트남에서 이민 온 여자인데 꼭 전할 말이 있어 통화하고 싶다는 이유를 댔더니 비서라는 여직원은 곧바로 판르엥과 연결해 주었다.

“나 쑤언이에요.”

쑤언은 거두절미하고 이름을 대면서 일부러 목소리를 착 깔았다. 의도한 바다. 판르엥에게 전화하기 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며 어떤 목소리가 좋겠다는 시나리오까지 충분히 검토한 터였다.

“쑤언?.....”

머리를 가우똥하는 판르엥의 표정이 곧바로 보이는 듯했다.

“쑤언이라고요. 이젠 내 이름도 잊었나 보죠?”

“쑤언이라고? 아~니 쑤, 쑤언이 어떻게?”

펼쩍 뛰며 당황하는 판르엥의 서걱거리는 목소리가 이네 건너왔다. 놀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쑤언의 음성은 당장 비웃음을 머금었다.

“왜요? 그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요? 나도 캐나다에 이민 왔어요. 식구들 모두 에드먼턴에 살고 있어요.”

“뭐, 에드먼턴에서 산다고? 그, 그게 정말이야?”

“그런 거짓말을 내가 왜 해요?. 나 지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어요.”

“아무튼, 반갑구먼. 언제 한 번 만나서.....”

“그럼요. 당연히 만나야지. 그런데 만나기 전에 우리 사이에 있었던 문제부터 해결해야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서부터 쑤언의 말은 일사천리로 내달았다. 역시 심사숙고 끝에 분노를 애써 삭이며 작성한 대사이니 오죽하겠는가. 여자 순정과 신뢰를 짓밟고, 많은 사람의 원치 않는 출혈을 강요하고 살면서 추호도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사업가인가. 구구절절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미친 듯이 퍼부었다. 십여 년 동안 한이 서려 잠시도 저주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다. 당장 쳐들어가고 싶어도 참는다고 했다.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서릿발을 세웠다. 쑤언은 상기된 얼굴로 그러나 단호하게 마무리했다.

“판르영, 결론은 오직 하나예요. 내 고혈을 빨아먹은 그 돈을 당장 갚아요.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하는 말이에요. 한 달 안에 베트남 우리 부모님에게 송금해 줘요. 알겠지요? 한 달이에요.”

썬언은 전화기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판르영의 반응을 듣지 않기로 했다. 전초전은 일방적인 강력한 통고가 최선이라는 계산이었다. 돌아올 답은 뻔하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화에 십 년 가까이 모르쇠한 무퇴한이 그리 쉽게 미안하다. 곧 빔을 갚겠다고 머리를 숙일 리 만무하다. 판르영에게 전화로라도 마음껏 원망하고 욕을 퍼붓고 나니 썬언은 앓던 이 빠진 것보다 더 속이 후련했다. 심장 깊이 서리서리 얽혀 맺혔던 응어리를 이렇게라도 쏟아내니 얼마나 통쾌한지 모른다. 이 사실을 남편은 물론 누구에게나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자신의 화농한 치부를 새삼스럽게 들어내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한 달이 유난히 지루하게 지나갔다. 썬언은 베트남 친정에 안부 전화를 했다. 물론 판르영에 관해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예상한 대로 판르영이 송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판르영이 송금했으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아니다.

그녀의 두 번째 전화가 시도되었다. 역시 충분히 계획된 수순을 밟고 있음이다.

“나 썬언이에요. 예상한 대로 송금을 안 했더군요. 도와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천 길 절벽 위에서 떠밀고 가져간 돈을 갚으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 달 기한을 주겠어요. 그래도 송금이 안 되면 내가 찾아가지요. 당신 집으로 곧바로 가겠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말이에요.”

“잠깐만 썬언. 내 말 좀 들어 봐. 우리 만나자고. 뱅쿠버에 오기가 곤란하면 내가 에드먼턴에 가겠어. 내일이라도 당장.”

썬언은 입가에 빙긋이 웃음을 깨물었다. 판르영, 네가 이려고도 맘 편하게 죽치고 앉아 있다면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지. 이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대답했다.

“아니, 우리가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여기 많은 베트남 동포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군요. 비즈니스에 성공한 베트남 사업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고향에서는 어떤 짓하고 도망쳤는지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하고 만나도 늦지 않아요.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겠죠. 판르엉?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달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나 그 돈 받으면 즉시 코리야로 돌아갈 생각이예요. 당신하고 같은 캐나다에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쑤언의 전화기 놓는 소리가 이번에는 더 요란했다. 양심이 버려지고 발에 차이는 비통함을 보지 않게 해다오. 더 시끄럽게 떠들고 싶지 않다. 조용히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제발. 쑤언은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덕수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한계라는 상황이 그의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았다.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에서 오는 극심한 갈등은 자기 자신까지도 낮설게 했다. 거기에다가 용접공으로서의 기능도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농사만큼 힘든 노동은 없다. 생물을 가꾸는 일이다. 밤낮없이 움직여야 한다. 출퇴근이나 주말이 어디 해당하는가. 그러나 늘 해오던 일이고 요령이 생겨 체력을 조절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산물의 수출은 만사를 잊게 한다. 그러나 용접작업은 아직 몸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정신력의 소모까지 겹쳐서 피로가 가중되었다. 이렇게 물먹은 숨이 되어 겨우 집에 돌아오면 포근함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쑤언이 집을 비울 때가 있는가 하면 집안에 베트남인들의 웃음 소리가 진동하는 경우도 잦았다. 베트남이 배제된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중대선언이 쑤언의 입에서 곧 나올 것만 같은 예감에 금새라도 현기증이 생길 지경이었다.

덕수는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왔다. 숙부의 희수언이 있었고 누님이 대단히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어렵사리 휴가를 허락받았다.

그동안 누님 내외가 열성으로 관리해 준 덕으로 농장은 소득을 더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가 문제였다. 누님의 건강이 심상치 않아서 덕수를 대신해서 농장에 더는 신경을 쓸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누님은 힘이 부쳐 어깻숨을 몰아쉬면서 제발 어여 한국에 돌아와 농장을 관리하라고 애원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엿한 내 농장을 놔두고 타국에 가서 월급쟁이 노릇을 하다니 이런 변고가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마을 사람들도, 시내 청과물시장 상인들도 한결같이 돌아오라고 권유했다. 덕수는 정말 천근이나 무거운 밭을 겨우 돌리고 캐나다행 비행기를 다시 탔다. 그런데 집안은 날이 갈수록 얇은 판잣집 마룻바닥같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아 한숨이 나다 못해 자주 울화통이 터졌다. 굉장한 질량의 긍정이 아니고는 견디기 어려웠다. 마음이 콩밭 가 있으니 당연했다. 이리다 성격 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이곳의 3월은 한겨울이다. 한국에서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한창이라는데 한파와 눈보라는 여전히 기세 좋게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덕수는 퇴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주위는 벌써 어둠이 스멀거리기 시작한다. 주차장에서 쭈언이 손을 흔든다. 덕수는 새삼스럽게 반가웠다. 아내가 퇴근길에 나와 기다릴 때가 제일 즐겁다. 언제 눈이 내렸는지 길에 꽤 많이 쌓였다. 그러나 아내의 운전 솜씨는 눈길에도 여전히 일품이다. 차가 한동안 달렸을 때 덕수가 불쑥 말했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는 차를 장만해야 할까 봐.”

“차를요? 왜 갑자기 차는?.....”

“당신이 이렇게 나 출퇴근 시키랴 아이들 학교 데리고 다니랴 쉬운 일이 아니지. 더구나 직장에 나가 일하면서 말이야. 이견 무리야. 오래 할 일이 아니라구.”

쭈언은 한동안 잠잠히 듣고 있었다. 남편의 다감한 정감이 자동차 히터보다 더 따뜻한 훈김으로 다가왔다. 다시 덕수의 말이 이어졌다.

“어차피 캐나다에서 살자면 나도 차가 있어야겠어. 차는 바로 신발이라는 말도 있잖아. 안 그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쑨언이 결심한 듯 대답했다.

“여보,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덕수는 긴장했다. ‘이제’라고 강조하는 어투가 마음에 걸렸다. 쑨언이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한국에 시집온 동남아권 여자들 중에서 계획적으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사라지는 불미스런 사례가 있다는 소문을 더러 들은 적이 있는 덕수였다. 그러나 덕수를 힐끔 돌아보는 쑨언의 얼굴에는 미소가 묻어 있었다.

“그래요. 차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깐요.”

“쑨언?”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해요. 이제 나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고요. 알겠어요?”

“.....?”

덕수의 발은 자신도 모르게 쑨언의 발 앞에 있는 브레이크를 찾느라 더듬거렸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되었다. 쑨언은 준비해 놓은 저녁상을 차렸다. 덕수와 아이들이 동시에 와! 환호했다. 순전히 한국 반찬 일색이다. 그야말로 먹고 싶었던 집밥이다. 식사하면서 쑨언은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 놓았다. 축각을 있는 대로 곧추세워 더듬어봤으나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은 아닌 성실했다. 아이들에게서 재차 환호성이 들렸다.

“너희도 정말 한국에 가고 싶은 거야? 가서 사는 게 좋겠어?”

덕수가 묻기 바쁘게 두 아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크게 고개를 주억거린다. 덕수와 쑨언은 놀란 얼굴을 서로 마주했다. 쑨언은 마음의 목소리를 그대로 꺼내 매듭을 지었다.

“우리가 할 일을 남에게 맡기고 왜 남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당신 나 몰래 마음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나 쑨언은 당신의 아내가 분명해요. 그리고 나 이방인 노릇 한 번이면 충분해요.

코리아에 시집왔으니 그대로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동안 캐나다에서 또 다른 이방인으로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겪었던 설움 이제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은 한국인으로 꼭 키워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덕수와 쑨언 가족이 에드먼턴을 떠나는 날 국제공항에는 여러 명의 한인과 베트남인이 나와 이들을 환송했다. 만난 지 몇 개월에 불과하지만 동족이라는 동질감이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에 돌아간 이들 가족을 고향 마을에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새봄이 한창 시작한 농장은 다시 주인을 만나 바빠 돌아갔다. 비닐 하우스에는 출하를 맞은 봄철 딸기와 토마토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지 꼭 두 달이 되었을 때였다. 쑨언의 베트남 친정 부모가 한국에 다니러 오겠다는 기별이 왔다. 갑작스럽지만 쑨언은 떨 듯이 기뻐했고 덕수는 기꺼이 모시기로 했다. 장인 장모가 처음으로 시집간 딸을 만나러 오는 나들이다. 먼 여정이고 어려운 발길이다. 정중히 모시기로 하고 7인승 밴도 새로 뽑았다.

5월 중순쯤 덕수 가족은 인천 공항으로 나갔다. 쑨언의 부모는 정시에 무사히 도착했다. 두 분 다 회수를 넘긴 연세이지만 건강했다. 적당히 마른 체구에 단아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틀 뒤 덕수가 사는 마을 회관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쑨언의 친정 부모가 한턱하는 날이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청과물시장 거래처 사람까지 많은 분이 와 주었다. 그 자리에서 쑨언의 아버지는 정중히 인사말을 했다. 통역은 마침 가까이에 국제 결혼해 사는 베트남 여인이 맡아 주었다.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온 우리 딸 쑨언을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는 말을 딸에게서 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쑨언의 부모는 새삼스럽게 차림새를 매만지고 나서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쑨언의 아버지는 말을 계속했다.

“인제 모든 걸 여러분에게 털어놓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실은 우리 딸 쭈언이 잘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빚돈을 보증 썼다가 배신을 당했어요. 우리 집으로는 매우 큰 액수의 돈이었지요. 도저히 갚을 길은 막막하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말았지요. 이런 난처한 처지에서 우리 따이한 사위가 그 빚을 깨끗이 갚아 주어서 다 죽은 목숨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지 우리 온 가족이 평생 잊지 못할 일이지요. 그러데 요 몇 달 전에 하늘이 다시 기적을 내려 주셨답니다. 십여 년 전에 빚돈을 들고 감쪽같이 사라졌던 쭈언의 친구가 나타나 그 빚돈을 갚겠다고 왔지 뭐니까. 그동안 캐나다에서 사업해서 크게 성공했다는군요. 글썄. 그래서 나도 사위라도와준 돈을 갚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계제에 우리 쭈언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은혜에 늦었지만 감사도 드릴 겸 해서요.”

베트남 노인 부부는 일어나 머리 숙여 합장을 했다. 장내에 박수와 환성이 터졌다. 이방인도, 팔려온 가난한 나라의 여인도 구분이 없어진 이웃사랑만이 넘치는 소리였다. 따뜻한 연대의 정감이 가득 감돌았다. 쭈언의 눈에는 내내 손수건이 가 있었다. 덕수는 전연 뜻밖에 벌어진 상황이라 어리둥절하면서도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쭈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전연 눈치채지 못했던 무심한 자신이 몹시 민망했다. 그러나 가슴 가득 촉촉한 물기가 돌았다.



, 수필가

충남 공주에서 출생. 1987년 캐나다로 이민. 단편소설 <눈 먼 말>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학국소설가협회 회원. 한카문학동우회, '해외문인협회' 회원. 단편소설집 <눈 먼 말> <눈 속으로 간 여자>, <검은 머느리>, <태아가 보이는 세상> 증편소설집 <손바닥 속 여인>, 장편소설집 <代孫>, <국밥 속의 민들레> 등 다수. 최근 장편소설집 <업녀(業女)> 출간, 수필집 <고독에 묻어둔 낙엽? 순수문학, 해외문학상 대상 수상, '해외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경화수월”

박 봉 금

인명재천이라!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실체도 없는 허공에 규친호지였다. 시간이 최고의 치료제라 누가 말했던가. 내내 실의에 빠져있는 마음속 시계는 멈추다 못해 자꾸만 거꾸로 달렸다. 문득문득 같이했었던 추억들을 되새기며, ‘그래, 이날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랬었지!’ 발길을 옮겨 다녔던 곳곳마다 무엇이 그리도 은혜가 충만하여 깔깔깔 웃어대며, 상냥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노소부정이라 하였지만, 겨우 불혹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떠나버린 비통함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절규하면서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가 때가 되면 먹어야 하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현실에 강력한 분노의 감정 상태에서 인간성에 대한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우울증, 정서장애 같은 문제로 강박관념에 대인기피증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집에만 틀어박혀 ‘딸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엄마를 기다리면 어찌나, 내가 하루 빨리 가야하는데!’라는 환각상태에 빠져있을 때, 환청이 들려왔다.

‘엄마! 정신 좀 바짝 차려. 쓰다 말은 소설을 마쳐야할 것 아니

야. 나와 했던 약속은 지키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만 믿고 있었는데.....'라고, 분명 딸의 목소리였다.

그만 깜짝 놀라워 지난 일을 떠올리며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동안 집필 중이었던 장편소설 '춤추는 미로'는 2001년 딸과 한국방문 중에 우연히 만났던 한 여인의 일대기였다. 고심참담했던 주인공은 정신이상으로 우리모녀 앞에 나타났었다.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몇 년을 틈틈이 집필해오다가 마치고도 전에 떠난 딸은, 좌불안석인 어미가 측은지심 하여 왜친 것 같았다. 그제야 컴퓨터를 열어 멈추었던 소설을 끄집어내었다.

그리고 나에 제2의 고향인 부산에 살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려 연락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먼저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옛날 우리가 자주 만났던 자갈치부둑가에서 갯장어에 소주한잔 하자고.....나는 부산에 도착해 주인공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아직 정상이 아닌데다 암까지 힘든 생활이 연속이었다. 요양보호사인 동생에게 그녀 과거를 보충하면서 내 설움에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었다.

처음 집필을 시작할 때는 그녀의 삶이 너무 억울해,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첫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때 만난 그녀의 앓은 미소 속 슬픔을 전해 받은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딸이 머무는 천국으로 보내려 마음을 정했다. 그만한 권리는 작가에게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갈치로 가면서 생각했다. 이민 떠나기 직전까지 만나 회포를 풀었던 친구들! 충무로에서 생맥주로 시름 달래고, 가끔씩 쌓인 스트레스를 남포동 광어회를 꼭꼭 씹어 날려버렸던 기억들.....먼저 도착한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가족들은 다 무사하고?”

“그래, 너희들 덕분에 잘 있지.”

나는 화제를 돌리고 숯불위에 지글지글 거품을 뿜어내며 익어가는 갯장어에 소주잔을 주고받았다. 정신없이 수다를 떨다보니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되어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지고 서울에 도착했

다. 형제들과 온양온천을 시작으로 제주도까지 두루두루 다니다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슬러져 시카고로 들어왔다. 그리고 집필에 매진하여 무사히 책을 출간해서 딸이 살아생전 원했던 대로 각 교회로 배포하여 판매금을 선교후원금으로 보냈다. 또 해가 바뀌어도 내 가슴에 남은 여운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1.

그래서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에 자연과 하나 되는 낙천적인 마음을 다짐했다. 이곳 노인아파트는 A, B, C, D 이렇게 넷 건물이었다. 동마다 다양한 인구가 입주하여 살고, 내 집은 C동3층이다. 주위에 호수와 공원이 있어 노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며, 특히 글을 써내려 가는 나에게 많은 사고와 지혜를 주는 강산지조였다.

처음엔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라치면 어김없이 내 귀를 따갑게 짝어대는 딱따구리가 있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딱 딱 딱 따~으~으~~~ 짝어대어, 나는 베란다에 나가서 앞 숲을 향해 보노라니, 어느덧 깊은 산골에서 강호지락 같은 느낌이다. 여명이 시작돼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건너편 D동 일층 베란다 앞에 내 시아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있었다. 밝은 초록색 원피스에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에 안개꽃이 만발해있는 하얀 스카프에 돋보기를 쓰고, 의자에 앉아 독서삼매에 푹 빠져있는 노인자태는 아주 고귀하고 눈이 부시어 마음속으로 속삭인다.

‘이른 새벽부터 책에 푹 빠져있는 모습이 저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처음 보는 저 노인 분은 누구일까!’

요즘, 책을 읽어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안기에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족하다. 그리고 그동안 작가로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 생각해보지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나는 곳곳마다 다니며 자연을 누리고, 사물을 관찰하기에 급급했던 것. 때론 유난

히도 밝게 비추는 달을 친구삼아 소설에 대한 삶을 나누기도 했다. 간혹 내마음속 렌즈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먹구름이 무겁게 들이 대어 수심에 빨려들 그 순간, 내 삶이 아닌 소설 속 주인공 삶으로 바뀌어 버리는 일쑤였다. 그때, 울어대는 암컷의 비둘기를 바라보며 말한다.

“누구를 기다리며 그리도 슬피 울고 있는가. 울지 마라, 네 설음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아~꿈같은 세월, 잊지 못할 시간들이여, 갈래머리 소녀시절 고향성산에서 날 위해 사랑노래 불러주었던 강군은 지금 어디쯤에서 살고 있을까. 구슬픈 가락이 아직도 내 귀가에 쟁쟁한데, 지금은 어느 하늘아래서 또 다른 여인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내 사랑 그리운 입, 보고 싶구나”

그리고 나는 독서에 빠져있는 노인 집을 방문하고 싶어 건너갔다. 그런데 모든 사물들은 그대로인데, 책 들고 미소 지었던 노인만 없다. 오른쪽 화단에는 성모마리아상과 수레를 끄는 한 농부가 놓여 있다. 왼쪽 화단에는 두꺼비와 오리 같은 형상들이.....나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데 빈집이다. 돌아 나오는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의자를 보면서 아마도 여기에 앉아있었던 것 같았다는 생각에 온몸이 오싹한 모습에 멈춘 나를 본 한 노인이 묻는다.

“거기는 지금 빈 집인데 어쩐 일이에요?”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습니까?”

“으~응 천국으로 간지 몇 달 되었어. 참 곱고도 고왔던 노인이었는데.....”

“그랬었군요.”

“그런데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아, 아무것도 아녜요.”

나는 복잡한 마음에 돌아오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독서를 즐기던 노인! 내가 이곳에 도착하기 이틀 전 세상을 하직한 분이 끈끈한 이승의 정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게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집으로 들어와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조금 전까지 곱게 비쳤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너무 허무해 차라리 확인하지 말고, 그냥 비취지는 대로 바라볼
것을 하며 후회한다.

2.

누구나 다 궁금해 하는 영혼의 세계가 진정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과연 어떻게
놓여있는 것일까? 의문이었다. 그리고 잠시 잊기 위해 내가 살아온
흔적을 끄집어낸다. 그 옛날! 서구적이면서 카리스마가 넘친
강군이 담배를 피우며 감상에 젖어있던 낭만적인 모습에 반하여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간담상조하며 벚꽃이 만발한 성산에서
강군이 불어대는 색소폰소리에 한없이 행복을 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광풍제월 했던 강군을 내 부모님께서서는 걸만 보고 무근의
풍문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모든 여건에 휘말린 우리는 결국 준비
없는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했다. 그때,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깊은 상처에 속세를 멀리하려 수덕사로 들어갔지만, 한분의
스님말씀에 위로가 되어 강군을 내 가슴 깊이 잠재우고 나왔었다.

일 년 후, 친구소개로 남자를 만났다. 하지만 진실 된 사랑이 아
닌 내 배경을 이용목적으로 다가선 고물이었다. 나는 그저 지난 아
픔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워있었다. 교제하는 동안 부모님께서
또 뒷조사에 모든 사실을 알고 반대했지만 듣지 않았다. 불효였던
나는 결혼 하자마자 불행이 시작되었다. 고물은 인간으로서 음하만
복을 깨우치지 못하고, 한없이 득룡망축 하여 매일 취중에 폭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세월이 가다보면 금슬상화 되지 않을까 몹시 애
를 썼지만 만족할 줄 몰라 이순이 가까워서야 과정을 맞게 되었
다.

나는 한동안 천도시비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마음속 깊이 잠든 강군을

다시 깨웠다. 황혼에 들어서면서 바람소리만 들어도 임의 목소리 같고, 흰 눈 위에 발자국마다 그리움이 쌓이다 못해 눈시울을 적신 적도 있었다. 유난히 외로움이 많았던 내게 사랑을 속삭이던 강군을 잊지 못해, 타국에서 겪는 외로움을 수많은 별빛 속에서 찾아 헤매다 ‘당신이 내 곁에 있음에’란 시를 지어 읊는다.

“서산에 걸터앉은 저녁노을에, 나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날들을, 하지만 당신은, 그 추억마저 간직한 채, 내 곁을 떠나고 말았었지요. 밤하늘에 뜬 수많은 별들 중, 어디쯤인가 머물 것만 같아, 소망을 얘기하며, 당신의 따스한 손끝이, 내 살결 스치는 느낌에, 잠시 행복해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기에 영원히 사랑합니다.”

또 잠자리에 들으려니 위~위~윙.....하고, 불어대는 바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

일어나서 바라본 시계는 새벽1시가 조금 지났다.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아파트 복도로 나가 걷기 시작한다. 그런데 승강장옆쪽에 살고 있는 엘리스가 복도 가장자리에 의지하며, 앞쪽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엘리스는 당뇨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똑바로 걷지 못한다.

“턱도 불면증에 시달려 이렇게 걷고 있군요.”라고, ‘.....’그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지나쳐간다.

나는 복도 끝을 돌아서서 걸으며, 다시 인사를 해야지 하였지만 엘리스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자기 집으로 들어갔겠지 하고 계속 걸었다. 그런데 뒤에서 저벅저벅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다가 갑자기 내 등에 찰싹 달라붙어 뒷골이 썩늘하며,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오싹한다. 내 눈 앞에서 볼 때와는 달리 신체에 직접 닿고 보니, 어느새 송골송골 뭏혀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린다. 그 짧은 시간 내 머릿속은 복잡함이 뒤엉켜있다. 그러다 이내,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것인가 하면서 딸에게 한발 앞

서가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쉬게 되어 묻는다.

“도대체 뭐야! 누가 내 등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야? 더우니까 좀 떨어져.”

‘미안해요.’하면서 빠져나온 여인은 이순 중반쯤 되는 유령이었다.

3.

“그래! 댁은 누구기에 이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것이요?”

‘그런 당신은 무슨 고민이 있기에 이렇게 걷고 있는 겁니까?’ 유령이 물었다.

“그러게요. 나도 댁과 같은 생각이겠지요!”

나는 잠시 주머니 받거나 하다가 그저 인사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문밖에서 덜그렁 덜그렁 하며, 문을 흔들어댄다.

“그만 돌아가시오. 나 잠 좀 자야해요.”

다음날 아침, 이층 빨래터에서 일층 제니를 만나 어젯밤 일을 말한다.

“제니, 어젯밤에 3층 복도에서 엘리스를 만났는데, 내가 인사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어서 기분이 좀 나빴어!”

“무슨 소리야?”

“엘리스 말이야.”

“정신 좀 차려! 그 여자 몇 달 전에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언제!”

“자네가 LA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 가서 그만 돌아오지 못했어. 그리고 혼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다들 말하던데, 뭘 일이 있는 거야?”

“누가 그래?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엘리스는 삶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하고 유령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하며 집으로 들어와 생각한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에 부닥칠 때마다 증명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목사님이다. 내일 교회창립기념일 저녁예배시간에 뵙자 하시며 끊었다.

다음날 밤, 여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와 찬송을 부르며 성령 충만 한가운데 예배를 마쳤다. 그리고 친교실에서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먹고 일어난 시간은 밤 11시10분 전이다. 밖은 늦은 밤이지만 구름 한 조각 없는 맑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약 30여분 걸린다. 그래서 차에 올라타면서 늘 그랬듯이 차안을 훑어보고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찬송을 틀고 출발한다. 교회주차장에서 빠져나온 길 왼쪽은 공립 공원 숲이었고, 오른쪽은 주택가이며, 조금 가다보면 큰 공동묘지가 있었다. 45마일로 한 십 여분 달렸을까. 밝은 불빛이 차안에 스며들어 눈이 부셔 도저히 운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렇게 눈이 부시지!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네.”하고. 양쪽 옆 백미러를 확인 했지만 뒤에 오는 차는 없었다. 그래서 차안 앞 밀러를 바라본 순간, 뒷좌석에 하얀 양복에 중절모를 쓴 불혹의 남자가 미소에 왼손을 흔들며 앉아 있다.

“어마야, 당신 누구야! 언제 내차에 올라탄 거야? 잠깐 기다려”하고. 오른쪽 방향지시를 키고 차를 멈춰 다시 돌아봤을 때, 남자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좌석에 손을 저어대며 또 다시 확인 후, “도대체 뭐야!”하고 주위를 살폈는데, 바로 공동묘지 앞이었다. 잠시 모골이 송연했지만 운전석에 앉아 생각해본다. ‘도대체 누구지! 웬지 낯설지가 않네. 오래전부터 자주 봐왔던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라고. 20여분동안 운전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다시 뒷좌석에 옮겨 앉아서 묻는다.

“도대체 닥은 누구기에 여기에 앉아있었으며, 혹시 나를 알고 있

습니까? 나에게 뭘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나 역시 맥을 어디선
가 본 것도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
다면 다시 한 번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4.

나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둘러본다. 혹여 날 따라오지는
않았는지. 허나 나직한 안개만이 깔려있다. 집으로 들어온 나는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궁금해 지난날 LA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본다. 둘째딸 병고에 도움주기 위해 큰딸이 이나다
마사지의자를 주문하여 보내왔었다. 잘 쓰다가 딸이 떠나간 후,
나는 유품정리에 마사지의자를 시카고로 옮기려고 구입했던 회사에
운송을 부탁했었다. 다음날 장정 둘이서 의자를 옮기려고 진땀을
흘리며 몸부림을 쳤지만 꼼짝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더 와서
힘썼지만 결국 가져오지 못하고, 장정들의 수고비만 지불하고
말았다. 딸 생전에 고가인 의자를 시어머니에게 드리라고 나에게
여러 번 얘기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도 필요했기에
가져오려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에게 주고 왔었다. 불가사의 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가 바뀐 내 생일날, 핸드폰이 울려 확인한
결과 딸 이름이 떠서 소스라치게 놀라웠던 나는 무서움보다 반가운
마음에 핸드폰을 키워 말한다.

“우리 딸!”

“.....”

더욱 이상했던 것은 아무런 소음조차 들리지 않아 그저 적막감만
흐르고 있었다. 한참을 들고 있다가 이내 핸드폰을 끄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아마도 평소처럼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벨이 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저런 생각에 뜬 눈으로 여러 밤을 새
운 적이 있었다. 생각 끝에 깜박 잠들다 깨어보니 어느새 새벽이었
다. 나는 기도를 마치고 마음속 온갖 번뇌를 깨끗이 씻어버려 대신
맑은 공기로 영혼까지 정화시키려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스산한 찬바람은 늦가을을 나무라듯 불어오고, 길가 화단에 진 코스모스는 멧힌 씨앗을 바람 따라 어디론가 자생하러 릴레이 준비가 한창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찬송가 리듬에 맞춰 공원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나는 그만 자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발길 닫는 곳마다 편백나무와 솔 나뭇가지에서 뿜어내는 향기가 바람에 밀려 내 콧등에 다소 곱하게 앉아 노크한다. 어젯밤부터 깔린 희뿌연 안개는 눈앞까지 널브러져 심연처럼 깊어있었고, 안개비는 호수에 떨어진 이슬방울처럼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다. 안개 사이사이 비추는 갈대의 풍경은 수채화 같은 애뜻한 여운에 행복과 번뇌를 갈등하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

우거진 숲속에서 그저 누군가가 나를 이끄는 듯 하염없이 빨리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아닌가. “누구야!”하고 뒤돌아선 순간, 숲이 많은 머리와 짙은 눈썹, 그리고 오흘한 콧날, 초생 달 모양인 입가까지 어쩔 그리도 멋지고 근사했던 내 첫사랑 강군과 똑같을까. 너무 닮아서 그대로 그의 품속으로 달려들고 싶은 충동이었지만 가까스로 진정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혹시 강군 아니십니까?”라고.

하지만 그는 미소로 답하며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문득, 어젯밤 차안에 증절모를 쓴 젊은 신사와 얼굴이 똑같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주 옛날, 강군은 늘 캐주얼 차림이었기에 지금 그의 간편한 옷차림에 모자를 쓰지 않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그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곧장 뒤돌아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사라졌다. 한참 망설이다 발걸음을 옮기며, 요즘 너무 그리움에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이 아닌가. 아니면 내 아픈 삶을 달래주려 온 천사인가! 하며,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한다. 나는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또 한편의 시를 읊는다.

“오늘 나는, 당신의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품안이 그림습니다. 내 곁에 없음을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슬퍼진답니다. 항상 가까이서, 아낌없이 준 사랑을,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옛날, 당신은 나를 미소 짓게 하였고, 외로움을 견딜 수 있도록, 차가운 내 손을 잡아주었지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행복은 없겠지요?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나직이 읊조리는 소리에 스산한 바람이 휘익 지나 자연의 품속에 안겨 있는 작은 잎 새들의 조락의 의미가 인생과 결부되는 듯하다. 고단했던 세월만큼 얻어진 조금의 여유와 자유로움으로 지나간 시간이 달아준 날개를 펴고 힘차게 걸을 때, 숲속에서 뚜벅뚜벅 발자국소리에 다시 나타난 그는 뒤에서 나를 꼭 껴안는다. 그의 품에서 내 등으로 옮겨 붙는 따뜻함에 소녀의 가슴처럼 뛰며, 이내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가 돌아 새워 껴안았을 때, 넓은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억제할 수 없는 눈물에 의미는 반평생 힘들었던 서러움을 다 쏟아내는 듯하다. 흐릿터분한 안개가 너울너울 다가와 내 눈물을 씻어내며 흘러가고 있을 때, 그는 내 귀에 속삭인다.

‘울지 마요. 당신이 읊조린 시가 나에게 하는 말 같아 너무 좋았어요.’

그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목소리가 슬픈 내 가슴을 더욱 애절하게 적셔준다. 곁에 여자유령 둘이서 싸늘한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예고해 주는 듯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들의 행동을 무시했고, 그의 품안에서 옛날을 생각한다. 서구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많이 받았던 그가 나에겐 더 없는 천재일우였기에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근데, 여자들은 누구며 내게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 그런 표정들이었을까! 란 생각에 그제야 관형찰색 하려는데, 그가 양손으로 몰아내듯 데리고 가버려 섭섭해 발길을 옮긴다.

안개는 그칠 기색 없어 앞쪽에서 남녀가 딱 붙어서 걸어오는 것을 본 나는 그저 또 다른 유령으로 착각한다. 이내, 바짝 다가선 모습을 보니 A동에 살고 있는 고물과 B동에 살고 있는 강안여자였다. 그들은 나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걷는 코스는 달랐지만 돌아 나오는 길이 같아 또 만나게 된다. 이때는 날이 훤히 밝으면서 안개가 걷혀 조금 멀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고물은 나와 별거중이면서 어찌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물론 부부라는 철통같은 울타리를 진즉에 허물어 고물상에 넘겨주어, 쇼 인도부부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왔지만 이건 아니다. 처음엔 나를 만날 줄 몰라서 지나쳤다고 하자. 양심이 있는 자라면 중간에서 각자 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지만 또 다시 교차로에서 만나니, 연인처럼 히죽거리는 모습! 나는 철면피를 쓴 인간들이기에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노인이 묻는다.

“이른 새벽부터 운동하고 오는 거야?”

“어~휴! 공원에 나갔다가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화가 너무 나요.”

“이제야 알았나. 그것이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께 성적 농담을 하다가 경을 친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곳 여인들은 잘 상대를 안 해.”

“처음 나한테 접근하면서 이곳 여인들이 자기를 왕따 시킨다고 했었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인간대우 해주었더니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네요.”

고물 역시 별성지부의 경력이 화려해 둘이서 만나면 성적이야기로 잘 통한다고 한다. 인간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라 생각하며, 그제야 조금 전에 만났던 여자유령들이 무산지몽에

6.

놀라워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집으

로 들어와 불행했던 과거에 또 심취된다. 고물은 오랜 세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나를 비교하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온갖 성병은 다 옮겨와 육체적 고통까지 안겨주었다. 그러나 애들한테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왔었다. 결국 내 생각과는 달리 자식들에게 상처만 안겨주어 이혼을 요구했지만 빙탄불상용에 그만 별거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듯 모진 운명에 맞닥뜨려야했던 나는 그런 고통을 글로 승화시키면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갈 수 있었다. 밤새 천둥을 동반하여 내린 비가 모자란 듯, 겨울을 재촉해 쏟아 부는다. 질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매달린 단풍잎을 떠나보냄을 아쉬워하며 복도로 나갔다. 중간 우측계단 있는 곳에 그가 걸터앉아 나에게 미소를 띄우며 말한다.

‘이젠 날씨도 추워지니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하고, 그의 곁에 앉았다.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염려했다.

내 일상생활에 그 누군가가 절실한 시점에 나타난 그는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감싸며 해주는 말 한마디가 내 심금을 울리며 삶에 희망을 주어 뿌듯한 마음이다. 온순한 성격에 이해심이 많아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준 강군을 닮은 그는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곤 한다. 매사 불면중에 시달릴 때마다 한밤중에 복도로 나가면 어김없이 나타나 말 상대가 되어준다. 처음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수치스런 얘기를 그에게 하기 시작했다. 두서없이 쏟아내는 내 말을 너무도 진지하게 들어주어 더욱 끌렸고, 또 집필중인 글이 막혀 답답할 때, 확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영감을 얻기도 했다. 욕심 같아서는 매일 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상대가 되어 달라 애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바란다면 안 되겠지.....

인간들마다 다 다르듯이 유령들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왜

나하면 LA 딸집에선 젊은 여자유령들이 옷장에 머물면서 몇 년 동안 시달림을 주다가 딸이 주님 곁으로 떠난 그 시간부터 안녕이란 인사 한마디 없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었다. 그 끔찍했던 일들은 두 번 다시 떠 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유령들마다 모두 내 사연을 잘 아는 듯이 사랑으로 대해주어 그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감흥을 자아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평생 받지 못했던 사랑이 그리워 세월을 자꾸만 되돌리려 안간힘을 써왔던 내게 그들이 베푼 사랑에 힘입어 활력이 넘쳤다. 오랜만에 잠을 푹 자서 인지 컨디션이 좋아 베란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밤새 첫눈이 내려 있었다. 길가는 눈을 깨끗이 치워있어 나가면서 계단 쪽을 쳐다보니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공원갈림길에 있었다.

“어~여기에 있었네요?”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이곳에 나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하면서 나를 끌어안으니 추운 날씨 때문이었을까, 그의 품은 너무 따뜻하고 내 허리를 감싼 손길은 부드러움만 하다. 그는 내 이마에 입맞춤으로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다.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줄 때마다 유령이 아닌 진짜 강군이라면 기꺼이 어떤 모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욕심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경화수월” ‘거울에 비친 꽃과 물위에 비친 달’처럼 볼 수 있으나 가질 수 없기에 아쉽기만 하다. 그렇게 따뜻한 그의 품에 안기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이내 헤어져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일층수지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것을 보면서 노인들의 안위는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 유쾌하지 못해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잠시 생각한다. 며칠 전부터 나가지 말라고 했던 그의 말뜻을.....

7.

그리고 복도에서 문을 열고 있을 때, 뚜벅뚜벅 걷는 소리에 돌아다보니 그가 웃으며 다가와 할 얘기 있다한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집 안으로 초대해 소파에 앉았다.

‘당신 마음이 안정된 것을 봤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합니다.’

“한동안 힘들었는데, 당신한테 받은 사랑으로 인해 행복해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 받지 말고, 이대로만 깨끗하게 살아가기 바라며, 특히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 더욱더 건강을 조심해야합니다.’

그는 포옹과 볼에 입맞춤을 끝으로 베란다로 나가 날개를 활짝 펴 훨훨 날아간다.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이는 별빛사이로 환한 웃음을 띤 딸이 이별을 고하고 있다. 고진감래, 고목생화라 했던가! 긴 세월 힘들었던 내게 찾아온 행운에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다. 내가 마음의 눈을 뜨고 나에게 속한 세상이나 삶속에서 뜻을 잃어낼 때, 비로소 슬프거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 수필가

1949년 전북 김제 출생.

2001년 자서전 파랑새 출간.

2005년 한국일보 여성생활수기 입상.

2009년 「해외문학」 신인상 소설부문 당선 등단.

2015년 「해외문학」 신인상 수필부문 당선

시카고문인회 회원.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

해외문학 신인상 당선작 발표

■시 부문

「사랑한다는 말」 「풀꽃」 김금자
「봄이 오는 소리」 「꽃샘추위」 김미정
「소나기」 「누군가 널 위해」 민유자
「침묵」 「소나기」 정복성
「도토리」 「병실에서」 조희자

■수필 부문

「어디 인생사 뜻대로 되던가」 박봉금

제19회 ‘해외문학’ 신인상 심사평

■ 시 부문

2016년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부문에 많이 응모해 왔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들이 주제가 있는지와 시를 설명하지 않고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김금자 씨의 「사랑한다는 말」과 「풀꽃」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시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형상화한 우수한 작품이다. 그의 다른 작품 「풀꽃」은 작은 풀꽃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정시이다. 이처럼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해 내는 시적 표현 능력이 높게 평가된다. 시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흔적을 김금자 씨의 시 5편에서 쉽게 발견되었다.

김미정 씨의 시 「봄이 오는 소리」와 「꽃샘추위」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봄이 오는 소리」는 희망과 꿈을 주제로 형상화한 감동적인 시다. 제 1연에서 희망과 꿈이 있기에 인생은 겨울같이 차갑고 버거운 삶을 견디어 낸다고 실토하고 있다. 표현력도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할 줄 아는 우수한 작품이라 평가된다. 그의 다른 한 편의 시 「꽃샘추위」라는 시를 읽어보면, 시적 주제 선택이나 표현력이 돋보이는 서정시라 감동이 크다. 이처럼 김미정 씨는 미주시단과 세계 시단에 큰 빛을 낼 것으로 기대를 걸게 한다.

민유자 씨의 「소나기」와 「누군가 널 위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시 「소나기」는 참 아름다운 서정시라 감동이 크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 거의 완벽한 이미지를 통해 시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다른 시 「누군가 널 위해」는 하루하루가 괴롭고 불안하며 외로운 인생이지만 ‘떠오르

는 해'인 꿈과 눈을 맞출 때 세상이 밝아진다는 시적 의미는 이 시가 얼마나 수준 높은 경지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정복성 씨의 「침묵」과 「소나기」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올해 당선된 시인들은 더욱 정진하여 세계 속에 우수한 한국시를 많이 보여주기 바란다.

심사위원: 조운호 김옥배 정화영 김희주

사랑한다는 말 외 1편

김 금 자

호수에 어리는 수많은 별
사랑한다는 말로 속삭이네

강물이 비바람에 물보라 쳐도
떠내러 오는 통나무 물길 막아도
사랑한다는 말로 가볍게 비켜가네

사랑은
추운겨울 하얀 눈 되어
여린 매화 꽃눈 덮어주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한다는 말은
아늑한 숲속을 당신과 함께 걷게 하네

풀꽃

개울가에 피어있는 풀꽃
스치는 바람에
풀꽃 향기 실어 보낸다

별과 나비가
친구 되어 주고

가냘픈 풀벌레 소리
외로움 달래주네

계곡에 맑은 물줄기
개울이 되어
세월만큼 흐르네

나는
그 개울가에
초연한 풀꽃

시는 내 인생의 단비

나는 시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삶이란 한 편의 시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명시를 감상하면서 나도 좋은 시를 써보고 싶었지만, 시상만 떠올리기만 했을 뿐 시다운 시를 한 편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허허로움을 달랠 수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글샘터”에서 시 창작 강좌가 있다 해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시인 조운호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토록 쓰고 싶었던 시를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외문학」 신인상에 시가 당선되어 기쁩니다.

신인상 심사 위원이신 조운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문예지 「해외문학」을 통해 “한국시”를 세계에 널리 펼치시고, 노력하시는 조운호 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글샘터”를 위해 애써 주시는 시인 최용완 회장님과 시인 강정애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시문학’은 언제나 내 마음이 삭막해 질 때마다 단비였습니다.



김금자 (Keum Ja Kim)

1940년 7월 25일 전북 순창에서 출생

2016년 해외문학 신인상 시 당선

전화: (714) 323-8866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

봄이 오는 소리 외 1편

김 미 정

두 눈을 감고
주위의 소리는
다 물리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당신의 신비한
푸른 노래 소리가 들려와요.

노란 개나리와 분홍 벚꽃들의
꽃망을 터뜨리는 소리,
마음을 비우니 들려와요.

봄비에 씻긴 꽃잎같이
내 눈을 반짝이며
추운 워싱턴의 하늘을 바라 보아요.

당신이 들려주는
푸른 노래 소리를
나는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1)봄이 오는 소리
김미정

그대여
봄이 오고 있는데
그대여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두 눈을 감아요.
주위의 소리는 다 물리치고
저어 멀리서 들려오는
신비한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요.

노란 개나리와 분홍 벚꽃들의
꽃망을 터트리느 소리들

지금은 색 바랜 금잔디 속
파릇파릇한 새싹들의 생명의 용솟음치는
태아의 심장 소리 같은 힘찬
봄의 기다림 소리를

그대여
이제 숙인 고개를 들어
아직은 추운 Washington의 하늘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평화스러운 파스텔 색들의
봄을 생각하며
눈부시게 노란 개나리꽃들같이
희망과 함께 환하게 웃어 보아요

꽃샘추위

조금만 기다려요
분홍 별 모양의 벚꽃들이
탐스럽게 피어날 테니

며칠만 지나고 나면
노오란 개나리꽃들이
서로 꽃 피우려 아우성칠 테니

우리 집 앞 정원에
노란 수선화가 피다말고
눈 속에 추위 떨고 있네요.

꽃을 시샘하는 겨울의 여왕
하얀 눈송이여,
이제 여왕의 왕관은 봄꽃에게 물려주어라.

선물 보따리

하늘이 파란 가을 어느 날
커피향이 그윽한 카페에서
친구가 건네준
선물 보따리 한 봉지
받고 보니 귀하게 키웠을

싱싱한 오이 하나
보랏빛 선명한 가지 하나
싱싱한 풋고추 조금
오이 보다 더 큰 오크라 두개
깻잎 베이글 상추
그리고 신선초 등등..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살펴보니
웃음이 가득~
행복이 가득 ~
선물 보따리 안에
담겨져 있었네

시를 쓰고 싶었던 나의 꿈

부족한 제 시가 ‘해외문학’ 신인문학상을 타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무와 숲이 울창한 사계절이 뚜렷한 미동부 Maryland 주로, 집 뒤뜰 주변에는 사슴과 가족 토끼, 여우, 다람쥐 너구리 그리고 온갖 예쁜 새들이 노래하는 자연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특히 온전히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차를 운전하는 시간을 좋아하며 즐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속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시도 한 수 지어보며 그렇게 늘 시를 쓰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게 시를 쓰고 싶었던 꿈이 저를 좋은 인연으로 두란노 문학회의 배은옥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도 쓰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 공부를 더 해서 사회에 한 사람이라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를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를 뽑아주신 “해외문학”의 조운호 발행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미정

1962년 부산에서 출생

George Mason University 미술학과 졸업

한국식물 미술화가협회 회원

두란노문학회 회원

해외문인협회 회원

Cynthia Kim E-mail/ mijung6k1@yahoo.com

(240) 498-5442

소나기 외 1편

민 유 자

소나기가 쏟아지면
서둘러 옷을 벗고
알몸으로 풀밭에 나가고 싶다

불호령 듣고
뒹굴며 매 맞고 싶다

소나기에 씻긴 조약돌처럼
말간 얼굴로
무지개도 보고 싶다.

누군가 널 위해

저만치 길옆에서
춥고도 긴 봄밤을
새도룩 떨었을 난쟁이 들쭉,
찬 이슬방울 소중히 받아 안고서
한 방울도 겨운 듯 떨군 고개

떠오르는 해에 눈을 맞출 때
세상이 화안이 열려

온 밤을 맘 조리다
얇은 웃음 머금고
살며시 물러나는
새벽별

“내 졸작 시들을 인정받고 싶었다”

오래 전부터 시를 잘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중심을 잡지 못 하고 뒤뚱대면서 지그재그 좌충우돌하는 중에 신인상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난 신인상을 받아서 시인이 되는 것보다는 더 노력하여 시다운 시를 쓸 수 있는, 내 맘과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사양할까 하다가 심사에서 내 졸작 시들이 인정을 받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인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좋은 시를 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유자 (Yuja Min)

1945년 7월 10일 서울에서 출생
2003년 미주 한국일보 수기부문 입선
2006년 문학세계 신인상 수필부문 당선
2007년 미래문학(한국) 신인상 수필당선
2016년 해외문학 신인상 시 당선
해외문인협회(미국) 회원

침묵 외 1편

정복성

침묵은 말 없어
고요를 찾는다

침묵은 심연을
소리 없이 만든다

침묵은 귀담아
들어야만 안다.

가을 맛

가을...

선선한 바람에
한동안의 장미는 가고
찬란하던 단풍도
곧이어 허전히 떠나네
곡식 걷어 텅 빈 들판
빈 손 되니 허탈하다
가을이 그렇게만 하다면
너무나 서운하다

그러나

가을철의 붉은 감
줄지어 신문지에 깔아 놓고
말랑말랑한 홍시가 되면
얼음 칸에 얼려 두었다가
겨우내 하나씩 꺼내어
이웃과 나누는 흐뭇한 맛
그 가을 맛에 나는 취한다

중국동포 문단

시

돌의 음악 외1편/ 김파

소리 외1편/ 김철호

즐거움 외1편/ 김영건

하늘 외1편/ 이연화

성에꽃2 외1편/ 허옥진

단편소설

고골리 송배자/ 정세봉

호수와 새/ 안미영

해외 평론

추락을 향유하다/ 장정일

『 해외시단 』 (중국)

돌의 음암 외 1편

김 파

돌을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
돌은 부서진 소리가
뭉쳐진 덩어리다

바이올린의 선율도
피아노의 절주도
돌의 부서진 소리 채쳐
빛어서 발효시킨 술이다

그래서
마시면 취한다.

유물

—여류 시인에게

새가 날고 꽃이 웃는 거울 속으로
파랗게 고여 오는 하늘 있어
해와 달도 그 안에서
돌고 돌아라.

한 천 년쯤 흘러간 후에도
어느 오는 이 비추어보며
고이 머리 빗고
눈물자국도 지우며
웃짓 바로 잡으리니

얼룩이 지고
먼지 낄까 저어해
노상 마음 하얗게 행구어
한생을 접어 닦고 닦는 거울—
언젠가는 떠나가는 날 오면
세월의 벽면에 두고 갈까 하네



김 파 시인

1942년 흑룡강 해림현 출생. 시집 《하얀 에어리 새》, 대하서사시 《천년고국 고구려》, 시론집 《림체시론》 등 출간. 국가, 성, 주 문
학상 다수 수상.

『 해외시단 』 (중국)

딸기 외 1편

김 철 호

심장을 먹는다
누이야, 나 너를 먹는다
붉은 심장을 먹는다

머리를 버리고 팔을 버리고 다리도 버리고
몸뚱이를 다 버리고 심장 하나만 갖고 있는 누이야
나 너를 먹는다 심장을 먹는다
찬란한 핏덩이를!

오빠 그러면 아파요
난 아직 너무 작은 심장이거든요
이슬 밭 태양의 자궁에서 나왔지만
뜨거워지려면 아직 더 자라야 하거든요
그러니 오빠 까약 깨물지 마세요

난 해를 품은 작은 심장
얼마든지 해만큼 클 수 있어요
그러니 기다려요
저절로 터질 만큼 붉게붉게 익을 때까지...

때가 다 되면 그 새하얀 치아로 나를 짹 깨주세요
그러면 붉은 피 빛이 되어 오빠의 눈에 박힐 거예요!
오빠도 나처럼 하나의 심장으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소리

가야금을 만든다는 건 소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침묵의 오동나무를 다듬고 줄을 메우면
가야금은 입을 열어 만든 이의 한과 원을 말한다
가슴에서 자란 엉겅퀴를 뜯으면서 신음의 말을 한다
예리한 끝에 꿰이면서 흘린 하얀 피 떨어지는 소리
하늘이 맑아도 늘 흐리기만 했던 한낮의 별 아래
아픈 소금물의 소리
먼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보내려는 고집의 소리는
음통音筒 속에 가득 채웠던 장인의 용기

소리야, 내 등을 밟아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담을 넘어라
새 세상으로 가거라
그러나 뿌리를 벤다면 죽는다
수원을 막으면 죽는다

산 너머에서 소리를 알아듣고 흰 얼굴 떠오른다.



김철호 시인

1951년 룡정시 출생. 연변대학 졸업. 연변인민방송국 문학편집, 연변일보사 문화부, 론설부 부장 역임. 제5회 연변조선족자치주진달래문화상, 제1회 중국조선족단국문학상 등 수상. 시집 《우리는 다 할을 바람 일지도 모른다》 등 출간.

즐거움 외 1편

김 영 건

세 잎의 산이
내려앉은 황토마을에
산맥을 지고 내려온 천년호랑이와
그 호랑이 베개 삼은
밭가숭이 아이 하나
대자로 누워 휘파람을 불고 있다.
그 소리에 깃을 접은
두 마리 까치새
파아란 잎사귀 따라 내리면
붉은 해 속으로
뿌리의 역사가 뻗어 나온다.
천년의 왕자
전설의 나무그늘 아래
장죽대를 물고 만면한 로인 하나
세월 태우며
흐뭇이 웃고 있는데
귀통이에 걸린 또 다른 해가
노을빛으로 그들을 색칠한다.
나도 그 풍경 속에 젖어 들어선다.

산동네

황토색 팔뚝의 아버지와
노란 얼굴의 푸른 세월 두른 엄마와
연붉은 가슴의 동년 하나가
동구 밖 황혼의 금모래 길을 오고 있었다.
화초 옆의 수양버들과
노란 사과 속살의 눈발이 보이고
해 저문 눈독길에
잠자리 쫓는 강아지 한 마리 있었다
물매를 놓던 농부의 걸쭉한
목소리가 먼 산으로 메아리쳐 가고
물차는 황소의 다리 사이로
알알이 여문 가을이 걸어오고...
강물소리 파도쳐 가는 산동네에
새끼오리의 울음소리가 처량했다.
그 위에 허기를 달래던 울 엄마
저녁마음이 안개꽃처럼 피어올랐었다.



김영건 시인

:1963년 화릉시 출생. 연변대학 졸업. 한국 연세대학, 중앙대영상대학원 수료. 전국 소수민족 준마상, 운동주문학상, 제1회 중국조선족 단군만학상 등 수상.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문화시대》 잡지 주필. 시집 《아침산이 안부를 묻다》 등 출간.

『 해외시단 』 (중국)

하늘 외 1편

이 연 화

엄마는 씨실과 날실로
우주 별들의 경도와 위도를 정성껏 짜고 있다

바늘과 실이 소재를 관통하는 동안
고즈넉한 밤가 라디오의 음계가 흘러나오는 동안
묵묵히 인고의 무게를 섬기고 있다.

엄마는 우주의 큰 구멍을 재봉틀로 메우고 있다
궁핍한 가난은 어느덧 노루발과 톱니에 의해
차곡차곡 희망으로 높이 쌓여간다
바늘은 계속해 내려오고
손등의 주름은 질어만 간다.
한땀 한땀
천둥과 번개를 침묵으로 엮어
목구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바늘이 산 구비 구비를 넘어 상승하고 있다.
더미로 쌓인 일감은 손목 아리도록 강요하는 사이
한번 숙인 고개를 좀체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점점 회색빛 감도는 눈빛...

슬픈 등
바늘은 그 휘어진 곡선을 헤쳐 가는 동안
고리와 고리 사이를 땀으로 엮어맨다

그녀의 서재

해살, 팔 저린 창문가...

그녀의 서재가 친절함을 푹푹 흘리고 있다

호수와 바다가 넘실대는 속으로 나는

활자 되어 활보하고 있다

물감들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감흥은 첫 장을 타고 흘러나온다

그녀가 남긴 퇴폐의 폐지를 넘기면

빈 의자 옆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꿈의 도시가

검은 점으로 사라지고 나는 선으로 곧게 뻗어있다

세련된 구슬 속에 갇힌

뽀족한 꼬리를 단 팔분음표들이 흘러나왔다

모퉁이 사이로 종이 밀리로...

나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무채색 고양이의 미끈한 검은 등 옆에서

비방울이 되어 백조의 한쪽 날개를 적시고

나는 동그라미를 토해냈다

한 조각의 해살, 그 해살은

외로운 사막여우를 찬란히 비취주고 있다

사뭇 진지하게 속삭이는 그녀의 일기에

나의 온밤을 허락했다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우울한 희극에

허기를 달래고 친밀한 은어를 마시고

마지막 폐지를 닫는다

가슴이 어지러운 날이면

가장 뜨거운 열기를 안고

그녀의 서재로 향한다



이연화 시인, 소설가, 수필가

1981년 연길시 출생. 연변대학 비교문학석사과정 졸업, 작가협회 회원, 시, 동시, 단편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 다수 발표. 제1기 문예춘 문학신인상, 제10기 길림성장백산문학상 등 수상.

성에꽃 2 외 1편

허 옥 진

심장의 여울목에 서 있는 동안
주름잡았던 기억의 얼음위로 수많은 뽕건들이 미끌어진다
몽게몽게 떠있는 무의식이 창백한 이마를 드러낸다
널어 말린 사색은 이젠 많은 것을 품게되었다
해변의 모래알에 엮드린 금빛 생각들이 심장을 따뜻하게 쬐여준다
태양의 뒤편은 채 읽지 못한 려행의 지나긴 노정이다
태양어로 닿은 타버린 기억의 숲들이 그림을 그린다
그림 속에 펼쳐진 숲의 밀림에는
성탄나무에 매달린 장식등처럼 오래된 기억들이 빛을 낸다
얼어붙은 사색들이 라르고 음악에 맞춘 환영의 시각에서 서서히 몸을 풀며 비구상의 형태로 자유로워진 색채를 얻는다
차가운 비단 필에 묻어있는 가벼운 의식의 포류물들이 가끔씩 얼굴을 간지럽힌다
잔잔한 물의 고리들
펼쳐든 의식이 낙엽을 떨군다
추켜든 두 팔 위에 지진대를 형성하는 무의식의 체계에서
반역의 공모자 트로반트가 자란다
부드러움의 공모, 완강한 절제의 공모, 정렬된 공모들
사시절의 공모 사이에 이탈되어 양화된 영혼들이 스치는 바람에 돌기를 보인다
굴러가는 의식의 잔해들이 가끔씩 빙판위에 얼음구멍을 낸다
그곳에서 열려진 다른 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강에 씻기고 바람에 흩어져버린 돌아붙은 강파른 몸이
겨울을 맞는 나무의 알몸이 되어 거기에 서있다

성에꽃

너의 화면을 열고 들어가면
한 세기 아득하게 굽이쳐간 내가
최초의 안팎이었던 본원으로 돌아와
유리창의 성에로 두 세상의 성벽으로 겹쳐진다.
소금가루 하얗게 내뿜친 너의 비릿한 살 내음으로 넘실대는 바다,
알싸한 너의 혼백이 자취 없이 물결쳐간 자리,
점지한 주술로 허공에 잡혀버린 소름 돋친 너의 혀가
열여섯 살의 나의 혀를 붙잡고
불투명한 음양의 길목에서 겹쳐져 무법의 선율로 너울 쳐간 그날,
가닿지 못한 세상의 끝가지에서
한 장 두 장 뜯겨져간 시집속의 마지막 페이지되어
모난 변두리에서 잘려나간 팔로 더는 너를 펼쳐들고
읽을 수 없이 된 나를
침엽의 무수한 가시로 찌르고 찌르며
그렇게 너한테로 침식되고 침전되어 풀어버린 0의 시간을,
가리킬 수 없는 시침이었던 영령의 어두운 밤을,
반원으로 돌아간 거울의 뒷면에서 시리도록 너의 뒷모습을 맞추는
나의 그림자를 덧그려 넣은 채 한땀 한땀 기워낸다.
너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그렇게 덧나는 너와 나의 상처는
지천으로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잠성으로 빈약해진 너의 혈이 다해질 때
이미 너와 합각^{合刻}되어버린 나는 그렇게 방울져서
또다시 널 읊고 읊는데
불투명하게 사라져가는 너는 이미 저 멀리 지평선에 선채
서서히 너의 아침을 밝힌다.



허옥진 시인

1972년 화룡시 출생. 제15회 연변정지용문학상, 두만강여울소리시
인상 등 수상. 연변작가협회 리사. 시집 《나에게로 돌아오는 너》
출간.

고골리 승배자

정 세 봉

절필絶筆을 결심했던 날 밤 영시零時, 노작가 니꼴라이 유庖는 어떤 희미한 경계를 넘어 미지의 광야에 들어섰다. 집을 나선 돈키호테의 시야에 열려 있었던 엄청나게 모호한 세상처럼 불확실한, 신비스럽고 적막한 세계였다.

길 잃은 미아처럼 니꼴라이 유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온통 어둡고 희끄무레한, 광대무변의 대지였는데 뜨거운 암장巖漿을 잉태하고 있는 듯 송엄하다. 넓고 축축한 안개 사이로 멀리 한 귀퉁이 트인 하늘을 배경으로 성당의 첨탑이 보인다.

(여기가 어디일까?) 니꼴라이 유는 문득 자신의 내면이 뜨겁게 깨어남을 느낀다. 그의 본능이 감지하고 말아내는 러시아적인 음울함과 거친 자연의 냄새!

(지간까 근교의 어느 지점일 것 같군.) “야화”를 읽었던 기억이 어느새 아련한 향수로 가슴을 적셔왔다.

이윽고 니꼴라이 유는 자작나무가 듽성듬성한 숲 가장자리 너른 공터에 모닥불을 피우고서 자신의 졸작 여덟 권을 불사르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굵다란 자작나무 가지를 꺾어서 연신 모닥불 속을 들추면서 한 권씩 한 권씩 게임을 즐기듯 집어넣는다. 수십 년

세월 속에 커커이 쌓이고 절은 고뇌의 찌꺼기와 앙금을 깨끗이 태워버리려는 듯 모닥불은 제법 활활 타오른다.

불길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사뭇 평온하다. 한 줄기 폭풍이 심혼을 흔들고 지나간 뒤의 초연함이었다.

지난 황혼녘에 니콜라이 유는 모처럼 무릉산 “잔디 언덕”을 찾아갔다. 때맞춰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그는 느닷없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었다. “소설사史의 장章” 밖에 쓰레기처럼 던져질, 한푼어치의 가치성도 없는 글을 쓰느니, 차라리 “현란한 추락”이라도 하리라 했던 그 자학적인 결단의 뒤끝이 그만큼 허무했던 것일까?

잔인한 것은 “잔디 언덕”이었다. 열혈문학소년 시절에 자주 올라와서 러시아문학을 읽었던 곳, 가끔씩 먼 하늘가를 바라보면서 니콜라이 와실리예위치 고골리 같은, “위대한 별”이 되리라 꿈꾸었던 곳이었다. 어떤 미련 때문에 “잔디 언덕”을 찾았던 노작가 니콜라이 유는 것처럼 영롱하고 찬란했던 자신의 어릴 적 꿈과 마주하자 “숙명”에 충실하고자 했던 자신의 인생이 지지리 못 나고 억울하기도 해서 실컷 설움을 쏟아내었던 것이다.

마침내 마지막 한 권이 불 속에 던져졌다. 부지깽이로 들추면서 그 한 권이 사라지고 있을 때 니콜라이 유는 “열혈문학소년” 폴라의 존재를 의식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폴라는 맞은쪽에 앉아서 어린 새끼사슴처럼 슬픈 눈으로 모닥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슨 객기에유?” 폴라의 트집스런 무성無聲의 질문이다.

니콜라이 유는 모르는 체 무시하고서 모닥불에다 연신 삭정이를 던져 넣었다. 불이 사그라져 재만 남은 불모지는 폐허처럼 보일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이 싫었다.

폴라는 여전히 미동도 않고 불길 속에서 소각되고 있는 책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 침묵이 비구름 같은 비애를 머금고 있었다.

폴라는 배불뚝이 목각인형 마뜨료쉬까처럼 늘 니콜라이 유의 내면에 옹크리고 있음을, 때론 내면의 “무의식의 늪” 속에 잠적해 있

음을 “노작가 니콜라이 유”는 알고 있다. 또한 반세기라는 아득한 세월너머에, 그 “잔디 언덕” 위에 “꿈의 실체”인 양 풀라는 존재해 있었다. 그러면서 가끔씩 자신의 존재를 암시하기도 하고, 향변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작가 니콜라이 유”는 “객기客氣”라는 표현에 분노하거나 모멸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표현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어쩔 수가 없다.

“니콜라이(НИКОЛАЙ)”라는 필명을 굳이 고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객기이니까!

광복 이태 전의 어느 추운 겨울날 밤, 그는 하얼빈시市 도리구 신안가府 24호에서 태어났다. 이웃으로 살고 있었던 한 백계 러시아인이 귀엽게 여겨서인지 “콜랴(Коля)”라는 애명을 지어주었던다. 러시아문학, 특히는 니콜라이 와실리예위치 고골리의 문학에 열혈의 녀을 빼앗기고 있던 시절, “콜랴”라는 애명과 “운명”이라는 치명적인 낱말을 어떤 음모陰謀처럼 연계시켜 본 적이 있었다. 그 순간에 느껴보았던 야릇한 환희와 감동과 전율!...

그런 숨은 야심은 여러 상황 때문에 불혹의 고개에 올라서야 낼 수가 있었던 그의 데뷔작부터 “수난 시대”를 겪게 만들었다. “니콜라이”라는 필명 사용을 편집기관마다 썩 반기지 않았고, 공개적인 빈정거림과 살벌한 구설이 난무했다. 러시아도 아닌 중국문단에서도 대체 가당한 짓거리냐?.....라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필명을 불허하면 그 자신이 발표를 거부했다. 차츰 “괴짜 작가”라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명칭이 뒷 잔등에 붙어 다니는 줄 알면서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영예의 훈장처럼 즐기리라는 오기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오직 소신껏 창작에 임하여 왔다. “숙명”이라는 긴 터널에서 온 심혼을 불살라 왔던 터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 도저히 초극 불

가능한 한계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모진 형벌 앞에 그는 굴복을 하였다.

혹여 미련의 불씨라도 남아서 부질없이 갈등하는 일이라도 생길까 두려워서 분서焚書를 결행하고 있는 니콜라이 유였다.

그런데 풀라가 나타난 것이다. 그의 뜬금없는 등장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꿈만 먹고 사는 철부지와 대화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을 것임을 그는 안다. 꿈과 낭만에 취해 있는 “열혈문학소년”이 수십 년 세월을 겪어오면서 피땀에 절은 심혼 속에 켜켜이 쌓인 늙은이의 고민과 방황과 인고의 아픔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풀라는 목을 뒤로 꺾고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매에 애절한 향연이 어려 있다.

“..... ‘별’이 되자 했지!”

니콜라이 유는 한참을 대꾸를 앓다가 한숨을 쉬듯 내심으로 독백을 했다.

“그래..... 난 패배자야! 너한테 미안하다.”

풀라는 갑자기 쿨쩍쿨쩍 울고 있는 듯 했다.

“내가 지금, 내 미래의 운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언의 향연이었다.

니콜라이 유는 일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아니지. 그건 아니야!..... ‘열혈문학소년 풀라’는 영원한 풀라이 구. ‘잔디 언덕’의 꿈은 영원히 영롱하고 찬란한 거여!”

니콜라이 유는 다급한 김에 꿈과 현실의 절대적 대립을 주장했다. “풀라”와 “니콜라이 유”, “열혈문학소년” 시절의 자신과 이미 “패배자로 된 노작가”로서의 자신은 그 무슨 “분신(分身)관계”가 아니며, 분명히 “타자(他者)”인 것이라고.

그렇지만 풀라는 얼토당토않다는 듯이 팔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칠 뿐이다. 니콜라이 유는 못난 자신으로 말미암은 풀라의 절망이

마음 아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회하듯이 속으로 횡설수설을 시작했다.

“한 때, 유럽에서 신음소리처럼 들렸던 ‘소설의 종말’에 대해서 난 믿지를 않았어. 그리 될 리는 없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지. 하지만 나 자신의 문학엔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 말하자면 ‘천재성’ 문젠데, 아무리 고심을 해도 고골리 작가의 그 우울하고 기지에 찬 유머와 통렬한 풍자적 기량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야. 페이지마다에 널려 있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디테일들, 그의 깃펜 끝에서 태어난, 미련하면서도 우습장스러운 수많은 인간(형상)들 앞에서 내 상상력은 빈곤 그 자체였음을 슬프게 받아들여야 했었지.

그렇지만 내 인생이 슬프고 절망적인 것은 아니야. 난 영원히 니콜라이 와실리예위치 고골리의 학생으로 살 거니까!……. 스승의 ‘문학 영지領地’를 산책하는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단언컨대, 끌라는 꼭 ‘별’이 될 거야! 러시아 하늘의 ‘영롱한 별’……. 세대가 틀리고, 시대가 다르니까!

니콜라이 유는 자신의 합리적 사유의 흔들림과 헛갈림을 의식하면서도 무작정 달래고 싶다. 그렇지만 끌라는 진작 빠져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는 사이, 모닥불은 사그라지고 있었다. 이제 니콜라이 유는 과거의 시간들과 깨끗이 결별을 하고서 씬 없이 흐르는, “현재”라는 시각의 연속성이라는 외줄 위에서 자신에게 남은 “미래의 시간”들을 맞이하리라 했다.

니콜라이 유는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절정이 없지만, 이제 내던져 될 자국, 자국은 “미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初入을 장식하는 경이의 족적으로 찍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변적인 첫 발자국은 그렇게 떼어졌다.

그렇지만 그는 몇 걸음 못 가서 어마지두 주춤 멈춰 섰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무질서하게 띄엄띄엄 이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행렬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은 어떤 축복처럼 그의 “새로운 시간” 속에 뛰어들었다.

니콜라이 유는 본능적으로 숨는 듯이 몸을 낮추면서 유심히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어떤 희열을 예감하면서 손등으로 연신 눈을 붙였다.

(아, 이 무슨 조화속인가?)

니콜라이 유는 가슴은 갑자기 씨비리 대지의 자작나무 숲처럼 거세게 설레이기 시작했다. 그 행렬의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니콜라이 와실리예위치 고골리의 산아産兒들, 그가 즐겨 표현했듯이 “고골리의 ‘형이상학’적 아들 딸”들이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서 맨 앞에서 걷고 있는 2인부터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다. 기호들을 알아맞히듯이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입속으로 호명을 했다.

이완 이와노위치. 이완 니끼포르위치.¹⁾

아파나시 이와노위치. 플헤리야 이와노브나.²⁾

이완 야꼬블레위치. 꼬발료브.³⁾

아까끼 아까끼예위치. 빼뜨로위치.⁴⁾

뽀뽀리시친. 소피 아가씨.⁵⁾

뽀스까료브. 뽀로꼬브 “검은 머리 창녀”. “금발머리 독일 미녀”.

.⁶⁾

1) “이완 이와노위치와 이완 니끼포르위치가 싸운 이야기”의 인물들.

2) “고풍의 지주들” 주인공들.

3) “쿄”의 주인공들.

4) “외투”의 주인공들.

5) “광인 일기”의 인물들.

6) “넵스끼거리”의 인물들.

“초상화”속 노인. 차르뜨꼬브.7)

홀레스따꼬브. 오씨브.8)

따라스 블리바. 오스따브. 안드레이.9).

니콜라이 유는 잠간 두 눈을 감았다. 고골리 소설속의 수많은 형상들이 다시금 영화 몬파쥬처럼 머릿속에 흐른다.

이어지는 행렬이 눈앞에 가까워지기를 느낌으로 가늠하면서 눈을 떴을 때, 두 대의 트로이카가 마치 의전행렬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꼴라!.....” 니콜라이 유는 무심간 꼴라를 불렀다.

“트로이카다!.....” 그의 어조는 환희에 젖어 있었다.

바퀴 달린 멋진 마차가 앞서서 달리고 있다. 거기에는 차양 없는 모자에 무지개 빛깔의 삼각 목도리를 두르고 들쭉나무 빛깔의 연미복을 입은, 미남자도 아니고 못생긴 남자도 아닌, 지나치게 살이 찌지도 않고 여위지도 않은, 또 늙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젊은 편도 아닌 사나이가 타고 있었다. 니콜라이 유는 금방 “죽은 농노”를 사들여서 일확천금을 꾀했던 천재적인 사기꾼 빠웰 이와노위치 치치꼬브¹⁰⁾임을 알아보았다. 그 곁에는 풍채가 당당하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달콤한 미소가 특징인 신사가 앉아 있었는데 부유한 지주 마닐로브였다. 서로 사양을 하다가 나란히 “모로 걸어서 입문入門”을 했던 전대미문의 퍼포먼스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리고 치치꼬브의 마부 켈리판의 곁에는 아리따운 러시아 처녀가 발랄라이카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7) “초상화”의 주인공.

8) “검찰관”의 인물들.

9) “따라스 블리바”의 인물들.

10) “죽은 녀”의 주인공.

두 마리의 작은 비둘기는

그대에게 보여주리라

나의 찬 시체를

괴롭게 꾸르르 울며

그대에게 말해 주리

그녀는 눈물 속에서 죽었노라고.....

“울린까!.....”

“무의식의 늪” 속에 빠져서 잠적해 있던 꼴라는 마침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꼬마마뜨료쉬까처럼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시를 읊듯이 열혈문학소년의 유치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아름다운 이상理想을 노래했던 아이디얼리스트 울린까!.....”

“그렇지, 울린까 맞아!.....”

그런 꼴라가 니꼴라이 유로서는 귀엽고 반가울 뿐이다.

그는 짐짓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면서 뒤쪽 트로이까를 살펴보았다. 활주부滑走部가 있는 썰매였는데, 치치꼬브의 다른 한 마부인 빼뜨루쉬까가 몰고 있었다. 썰매에 타고 있는 네 사람을 살펴보면 서 니꼴라이 유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는 듯한 얼굴이 되었다. 미련한 곰 같은 쏘바께위치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전문 남의 발등을 밟는 특기도 특기려니와 집안의 잡동사니들이 저마다 “나도 쏘바께위치야요!”, 이렇게 “자아 소개”를 하는 듯하다는 묘사가 떠올라서였다.

쏘바께위치 곁에는 머리에 나이트캡을 쓰고 목에는 플란넬의 천을 감고 있는, 십등관 과부 나스따샤 빼뜨로브나 꼬로보치까부인이 앉아 있었다. 언젠가 꿈에 그녀의 식사초대를 받았던 기억이 새로워서 그는 또다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굉장했지!..... 그 요리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서두.)

“살짝 구운 고기만두, 수우프, 완두를 곁들인 골요리, 케비지를 곁들인 소시지, 구운 거세한 닭고기, 소금에 절인 오이, 양의 넓적다리, 바투루쉬까, 달걀을 넣은 빠로그……”

니콜라이 유의 생각을 읽은 듯 꼴라가 얼른 끼어들어 줄줄 외위 대었다. 아마도 그 꿈만큼은 둘이 공유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송아지만큼 큰 기름에 튀긴 칠면조도 있었지, 그것만큼은 나두 기억 나. 후후훗”

니콜라이 유는 이 감동과 경이를 꼴라와 함께 향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썰매 뒤쪽에 서로 등지고 앉아있는 두 사나이에 대해서 물었다.

“노즈드료브와 뿔류스킨…… 저 왼손편 쪽을 향해 앉은, 머리가 까치둥지 같은 사람이 노즈드료브인 것 같아유”

“똥똥한 붉은 불에 검은 나룻이 자란 꽤 잘생긴 사내 말이지?…… 옹거니, 머리에 썼던 까르뚜즈를 벗어 쥐고서 썰매 언저리를 저렇게 두드려대고 있는 거동을 보니 어데 가나 사단만 일으키는 망나니 기질을 아직도 못 버렸나봐……. 장기 게임이거나 놀이에서 팔소매 부리로 공공연히 엉터리 쓰는 뻘뻘스러운 인간이니까……. 쫓쫓.”

니콜라이 유는 꼴라의 대화 동참에 신명이 났다.

“저 노즈드료브를 등지고 앉은 뿔류스킨의 행색을 봐, 예효!”

뿔류스킨이 입고 있는 할라트는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소매와 옷자락의 상반부가 어찌나 때가 오르고 반들거리는지 장화를 짓는 유프찌¹¹⁾와 비슷하였고, 등 뒤에는 자락 두 폭 대신에 네 폭이 너불거렸고 그 속에서 면사오리가 수두룩이 빠져나와 있었다. 그의 목에도 역시 양말짝인지 대담인지 혹은 배에 두르는 띠인지 하여튼 넥타이는 아닌 무엇인가 알아맞힐 수 없는 것이 감겨 있었다.

“저게 천여 명의 농노를 소유한 자의 주체꼴이라니! 후후훗!”

11) 검고 부드러운 가죽.

니플라이 유는 어이없다기보다는, 매양 그렇듯이 중독中毒 같은 어떤 인간애에 즐겁기만 하다.

플라는 반응이 없다.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듯 했다.

이윽고 엉뚱한 의문을 낚싯바늘처럼 허공에다 걸어놓는다.

“신기해. 책 속에서 걸어 나온 인간 행렬?”

“?!.....”

니플라이 유는 잠깐 어리둥절했다. 그것이 플라의 어처구니없는 우문愚問인 것인지? 아니면 신이 관장해 온 어떤 질서와 이치 밖의 어떤 진실을 물은 것인지?..... 혼돈이 왔다.

진작 선先 해석이 되어서 값싼 상식처럼 되어버린, 고골리의 소설세계는 러시아 전체가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식의 고리타분한 ‘반영론’ 같은 것은 오히려 선부른 우답愚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고의 심판관이 부재하는 이 세상의 ‘진리’는 이미 절대적이 아닌, 수많은 상대적인 진실들로 깨어져서 흩어져 버렸음에랴!

“글쭉 속에서의 삶이 갑갑하면 떨쳐 일어나서 넓은 세상으로 나오고, 세상이 지겨우면 다시 대열을 지어서 글쭉 속에 녹아들어 치명적인 테마들이 숨 쉬는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재현시키는 쟁쟁한 개성個性들!.....”

이런 가정은 니플라이 유의 기분을 무작정 즐겁게 만들었다.

“플라, 이건 진짜 놀라운 ‘발견’이야! 그야말로 ‘사변적’인..... 그렇지만 그것은 오직 고골리의 산아産兒들- 그분의 뜨거운 심혼 속에서 태동이 되고, 무서운 진통을 겪으면서 태어난 이른바 고골리의 “형이상학’적 아들 딸”들 한 테서만 가능할 것이야. 피처럼 토해 낸 ‘진실’들이니까!”

그러는 사이, 행렬은 멀어져 가고 있었다. 니플라이 유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슬슬 행렬을 따라 붙었다. 그들이 어디로, 무엇을 목적하고 가는 것인지 궁금증을 풀지 않고서는 건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미래의 시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니콜라이 유는 시간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낙엽이 갈수록 우수수 지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자연의 현상에서 계절의 무쌍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었다.

긴 행렬이 멈춘 곳은 자작나무 숲이 울창한 산자락 밑이었다. 거기에는 고골리의 상반신 조상彫像이 얹혀진 탑형塔型的 묘비가 우뚝 서 있었다. 일군一群의 무리를 이룬 그들은 뭔가 오래도록 의식을 치르는 듯 했다.

이어서 술 파티가 벌어졌다. 목을 뒤로 꺾고서 독한 보드카(vodka)를 병째로 마시는 모습들이 보였다. 차츰 난잡하면서도 들끓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혹자는 캥거루처럼 연속 점프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두 팔을 높이 쳐들면서 우라(ура)‘를 외치기도 하고, 발랄라이까 선율에 맞춰 마주르까를 추기도 하였다.

아마도 니콜라이 와실리에위치 고골리 탄생 206주년 기념축제인 것 같았다. 니콜라이 유는 묘비를 향해 경건히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와중에 니콜라이 유의 시야에 뛰어든 것이 드로이까였다. 치치코브의 마부 켈리판과 빼뜨루쉬까도 축제 분위기에 한 눈을 팔고 있었다. 그런 찬스는 무서운 유혹과 객기를 발동시켰다.

(눈 덮인 광활한 러시아 대지를 드로이까로 한번 질주해 보는 것이 꿈이 아니었던가!)

니콜라이 유는 사냥물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드로이까를 노려보면서 몸을 떨었다.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다가 날랜 동작으로 썰매 위에 올라탔다. 눈 덮인 대지를 질주하기엔 썰매가 제격일 것이었다.

드로이까는 곧 출발했다. 세필의 말들은 순순히 니콜라이 유의 의지를 따라주었다. 가운데 리더(leader)는 중심을 잡으며 속보로 달리고 양쪽에서 부챗살 각도로 끄는 두 마리의 휠러(wheeler)는,

한 마리는 씩씩하게 다른 한 마리는 교태를 부리며 달렸다.

마침내 니콜라이 유는 신호처럼 채찍을 올렸다. 연속 내리치는 채찍질에 말들은 네 굵을 안고 뛰기 시작했다. 썰매는 눈밭을 날리며 금방 가속도가 붙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우성소리가 들리건 말건 내친 김이었다. 그의 심혼은 이미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 루씨여! 루씨여! 그대는 빈약하고 산만하며 아늑한 데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하거나 경이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그런 자연의 분방한 기이도 없을뿐더러 위대하다 할 만한 인공의 미도 없다…….

그렇건만 그대에게 그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어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그대에게 쫓리게 하는 것인가? 국토의 모든 골짜기들과 광활한 평원,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대의 그 구슬픈 노래가 어찌하여 이다지도 그칠 줄을 모르고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이냐? 대체 이 노래 속에는 무엇이 스며 있는 것이냐? 무엇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부르며 흐느껴 울며 심장을 쥐여 짜는 것이냐? 그 무슨 음성들이 이렇게까지 안타까이 내 가슴을 때리며 마음속으로 파고들며 내 심장의 주위에서 맴도는 것이냐?”

쏟알같이 달리는 프로이카 위에서 니콜라이 유는 격조 높은 음성으로 주정主情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니콜라이 와실리에위치 고골리의 치열하고 안타까운 조국애는 그의 가슴을 격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별창하는 봄물처럼 뜨거운 눈물이 쉼 없이 앞을 가린다.

“루씨여!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그대와 나 사이에는 그 무슨 해득할 수 없는 연계가 숨어 있는 것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그렇게도 나를 쳐다보는 것이며 또 그대의 품에 있는 모든 것이 어찌하여 그다지도 기대에 가득 찬 눈을 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냐?

그 뿐이라, 내가 이렇게 의혹에 사로잡혀 멍멍히 서 있을 때에

뇌우雷雨를 담뱃 안은 무거운 비구름은 벌써 나의 머리를 가렸고 나의 사고력은 그대의 넓은 공간 앞에서 갑자기 둔해진다. 이 광활한 천지는 무엇을 예언하는 것인가? 그대 자신이 이렇게도 광대무변하게늘, 어찌 여기 그대의 품안에서 무한대의 위대한 사상이 싹트지 않을 것이냐?

아아! 이 얼마나 휘황하고 찬란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벽지이냐! 루씨여!

환상적인 무아無我的 경지 속에 니콜라이 유는 프로이카의 광란적인 속도를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이 새롭게 열어나가는 “미래의 시간”들이 감동과 경이로 그득그득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꼈다. 그리고 행복했다.

니콜라이 유가 허공중에 붕-뜨는 충격을 받은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급 스톱한 프로이카는 그의 몸뚱이를 절벽 아래로 뿌려 던졌다.

“아아!…….” 그는 분명히 폴라의 비명을 들었다.

“폴라! 꿈은 ‘잔디 언덕’에 영롱히……. ‘별’이 되자 했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었다. 자유 낙하의 현란한 속도감 속에서 니콜라이 유는 “잔디 언덕” 위에 무지개처럼 걸려있는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마지막으로 일별했다.

2015년 6월



정세봉(鄭世峰): 소설가

1943년 12월 07일(음력), 하얼빈市 도리구 신안가(府) 24호에서 출생. 작품집으로, 단편소설집 “하고싶던 말”(1985년 북경 민족출판사 출판) 중단편소설집 “볼셰위크의 이미지”(1998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출판). 단행본 “볼셰비키의 이미지”(2003년 서울 “신세림” 출판사 출판). 제1회 전국소수민족문학상, 미국 LA 所在, “해외문학상” 소설부문 대상 등 수상. “연변문학” 월간사 소설편집, “연변소설가학회” 회장 역임. 전화: 1870-433-2156 이메일: harbin4@hanmail.net

호수와 새

안 미 영

동트는 아침이었다. 날이 희붉히 밝아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진 붉은 아침노을이 동녘 하늘을 서서히 발갱게 물들였다. 새벽녘에 불어오는 쌀쌀한 가을바람에 호숫가의 키 큰 풀대들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고 밤새 잔잔했던 호수도 밤빛 물결을 살짝 일구며 아침을 맞이했다. 해가 뜨고 날이 점차 밝아오자 호수는 진정 제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 하늘과 흘러가는 흰 구름이 맑은 호수 물에 비껴 한결 아름다웠다.

해가 허공에 떴을 무렵, 흰나비 한마리가 훨훨 날아와 호숫가의 원추리꽃 위에 살포시 앉았다. 나르는 물잠자리 한 마리도 꼬리로 호수 물을 살짝 짚고 어디론가 날아갔다. 호수 밑의 수초를 요리조리 헤치고 숨바꼭질하는 물고기 떼들이 서로 뒤질세라 물 위로 튀어 올라 재롱을 부렸다.

호수는 이 모든 걸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었다. 이때, 저 하늘과 초원이 잇닿은 먼 곳에서부터 새 한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눈부신 햇빛을 타고 곧추 호수에게로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만 호수 가까이까지 날아와서 쿵 하고 곤질러 떨어지고 말았다.

쿵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호수는 덜컥했던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다가가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다.

땅에 떨어진 새는 날개를 푸덕이며 다시 비행을 시도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한쪽 날갯죽지에서 진 붉은 선지피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도 새는 포기를 하지 않고 또다시 날아보려고 갖은 애를 썼다. 푸덕, 푸드덕- 새는 지면에서 1미터 높이도 날지 못한 채 또 떨어지고 말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나머지 새는 날개를 어설피게 푸덕거리 호수 안으로 풍덩 뛰어 들었다.

왜 이러시지?

새의 당돌한 행동을 호수는 거절할 겨를도, 따질 겨를도 없이 모든 게 이미 발생해버렸다. 숨이 멎을 정도로 화들 놀란 호수는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매 한마리가 뒤쫓아 와서 두 눈을 꼭 부릅뜨고 호수우를 맴돌았다. 호수는 인차 새를 자기 치마폭 안으로 밀어 넣고 질식할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매는 호수주위를 한참 맴돌다가 새를 찾지 못하자 포기하고 날아가 버렸다.

오랜 시간 물속에서 잠자코 있다나서 숨이 막혔던지 새는 물 위로 불쑥 올라와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호숫가로 겨우겨우 헤엄쳐나갔다.

푹 젖은 몸으로도 새는 날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다가 끝내는 지쳤는지 호숫가에 가만히 엎드려 머리를 가웃거리며 사위동정을 살펴 자신의 신변안전을 확인했다.

호수는 기슭에 엎드려 있는 새를 살짝 훑쳐보다 새와 눈빛이 마주쳤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움찔했다. 맑고 부리부리한 눈빛, 매섭고 견정한 눈빛, 그럼에도 조금은 처량하고 슬픈 눈빛, 처음이었다! 호수는 처음으로 이런 눈빛을 봤던 것이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새는 온 오후 날다 떨어지는 좌절을 거듭한 끝에 기진맥진하여 혼곤히 잠이 들었다. 쉼쉼 잠들어있는 새를 바라보며 호수는 마음이 측은해났다. 호수는 해님의 마지막 한줄기 빛도 건잡고 싶었다. 어두운 밤이 되면 삭막한 지역이라 야수에게 물려가기 앞서 밤 추위에 이겨내지도 못할 것 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다행히 썩 추운 밤은 아니었다. 호수는 밤잠을 설치며 새를 지켰고 새는 잠결에도 상처가 아파났던 지 가끔 몸을 움직이며 날개를 푸덕였다. 그럴 때마다 호수는 정신을 부쩍 차리고 혹시 이상이라도 생길까 봐 가슴을 조이었다.

동녘에 붉은 해가 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날이 새자 새도 깨어났다. 그는 또 날개를 움직여봤다.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고 견정한 눈빛으로 날아보려고 용을 쓰는 그 모습이 펍 애처로웠다. 그런데 날아오를까 하더니 몸이 상처 입은 날개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면서 평형을 잃고 실패했다.

조금 더 쉬었다 가지.

호수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다.

아직도 날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새는 두발로 조금씩 걸어서 호수에게로 다가가 시원한 호수 물을 푹푹 들이켰다. 속까지 후련해나고 정신이 맑아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그제야 새는 배도 출출하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는 호수 안으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새가 호수의 치맛자락을 밟아가며 물속으로 발길을 움직일 때, 호수는 얼굴이 저절로 후끈 달아올랐고,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발목까지 들어간 새는 물밑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숨죽이고 한참 동안 주시하다가 불시에 예리한 주둥이를 물속으로 찔러 넣어 물고기 한 마리를 입에 문 채 고개를 들었다.

잡았다, 잡았다!

호수는 새의 뛰어난 포착 능력을 감탄하며 기뻐서 쑥스러움도 있고 뽕뽕 뛰었다.

새는 생선요리를 배불리 먹은 다음 다시 호숫가에 가서 주둥이로 촉촉이 젖은 깃털사이를 헤집어 가며 몸뚱이를 털었다. 그리고는 엎디어서 다시 휴식을 취했다.

해가 높이 뜨자 새는 갈증을 느꼈는지 또 서서히 호수에게 다가갔다. 물이 새의 다리를 넘어섰는데 새는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왜 이러시지? 뭐하시려고?

호수는 의혹스럽고 또한 걱정스러웠다.

새는 갑자기 머리와 몸을 앞으로 내밀고 두 다리를 뒤로 쭉 뻗치더니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호수의 긴 치맛자락을 헤치고 깊이 들어갔다.

호수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당황함을 가까스로 녹애했다. 그러나 얼굴에는 소녀의 부끄러움과 행복이 어려 있었다.

호수 물을 짹 헤가르며 물 위에 떴다 물속에 잠겼다 하면서 새는 연신 자맥질을 했다. 물 위를 한자 넘게 훌쩍 뛰어올랐다가 물속으로 침병 내리치는 그의 유영자세가 참 멋진 사나이다웠다.

호수도 은빛 물보라를 튕기며 어쭙게 새를 뒤따랐고 예쁜 파도무늬를 일으키며 하늘하늘 춤을 췄다.

새는 호수의 치마 속에서 몸을 담그고 요리조리 움직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와 수초, 자갈들로 판 다른 세상이었다. 물속에서 한참을 자유롭게 노닐다가 새는 호숫가로 나왔다. 그리고는 긴 날개를 짹 펴고 몸부림을 치며 몸의 물기를 털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또 날 준비를 했다.

1미터, 5미터, 10미터... 새는 높이높이, 멀리멀리 날아갔다.

금방까지도 자기의 치마폭에서 노닐던 새가 훌쩍 떠나갔다는 것을 뒤늦게야 인식한 호수는 가슴이 허전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

다.

이렇게 새는 호수와 한마디 작별인사도 없이 떠나버렸다. 새가 떠나간 후로 호수는 마음이 울적했다. 나비가 날아와도 잠자리가 노크를 해도 모두 관심이 없었다. 호수는 날마다 하늘과 초원이 잇닿은 곳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새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호수는 생애 한번만 더, 단 한번만 더 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한해, 두해 세월이 흘렀건만 새는 오지 않았다. 밤마다 그리움에 모대키며 잠을 설치는 호수를 보고 친구들은 다 헛된 짓이라 타일러도 귓등으로만 들을 뿐이었다.

그러다 7년째 되던 해에 이 지역에는 백년에 보기 드문 가뭄이 들었다. 술한 생명이 무리채로 죽어가고 호수도 날로 여위어서 대야만큼 한 체구밖에 남지 않아 근근이 목숨만 붙어 있을 따름이다.

이런 호수의 모습을 보기가 안쓰러워 해님은 구름 뒤에 숨어버리고 바람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허나 호수는 이번 가뭄을 달갑게 받아들이며 속으로는 되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래지않아 새도 물이 그리워 분명 나를 찾아올 테니까! 우리의 만남은 숙명인 걸!

이렇게 생각하니 호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보이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온 대지가 갈증에 빈 목젓만 홀쩍이고 호수도 더욱 수척해져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그렇지만 호수는 마지막 한줌의 물만은 사랑하는 이와 의 상봉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켜내리라고 장엄한 결심을 했다.

이러던 중 저 먼 곳에서 날개를 짝 펼치고 푸른 하늘을 휘날리며 다가오는 새를 호수는 한 눈에 발견했다.

드디어 오셨구나!

호수는 초채해진 모습으로 새 앞에 나서기가 아주 쑥스러웠지만 이 감격의 시각을 7년이나 간절히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

하니 모든 게 가볍게 생각되었다.

새는 호수 곁에 정확하게 착륙하여 날개를 접었다. 예전 그 풍만했던 호수가 지금은 피골이 상접해진 모습을 보고 새도 가슴이 뭉클해났다. 새는 호수에게 천천히 다가가 처음이자 마지막 키스를 해주었다.

그녀는 마지막 눈물을 빙어내며 숨을 거두었다.



안미영 소설가

1982년 1월 길림성 길림시 강밀봉 출생. 2008년 중앙민족대학교 조문학부 석사 졸업. 단편소설 "통증" 등 다수 발표. 2008년-현재 《장백산》 잡지사 편집.

를

환지

그날 따라 세 판을 연속 이겼다. 친구는 언젠가 나를 참패하게 만들겠다고 혀를 꼰꼰 차면서 돌아 갔다. 이튿날 나는 우리가 1년 넘게 자리잡고 장기에 빠졌던 그 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

새벽 잠 속에서 숨을 멈췄던 것이다. 그리하여 친구를 한판이라도 쳐주지 않은 것이 내 평생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마치 그 사람 인생을 실패로 종지부를 찍게 한 것 같아서 몹시 가슴 아팠다.

단 한번이라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친구를 무척 기쁘게 해 줄 수 있을 텐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어버렸다. 그 후 나는 공원에 다시 나가지 않았다. 행여 그 곳을 지나 갈 일이라도 생기면 공원을 피하여 발품을 더 팔았다. 장기에호가였던 나는 집에 있는 장기를 동네 뒷산 흙 속에 묻고 장기와 영영 이별을 고했다.

친구와 장기를 잃어버린 나는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를 뭘 하면서 보내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 했다. 매일 출근하다 싶이 공원에 다니던 내가 멍하니 집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늙은 마누라가 편잔을 줬다.

—영감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시오?. 혹시 갑자기 또

그 미친년 생각에 빠져서 그러시는 거요? 그 미친년 죽은 지가 수십 년 지났거늘 영감님은 왜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나 참, 쫓쫓쫓... 영감님 눈빛만 봐도 난 다 알아요. 다 안다구요. 나가요. 집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들어와요. 영감님은 지금 치매 걸리기 딱 좋은 분위기로 있는 거 아시는지요? 나가요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깐 어서 밖으로 나가요.

마누라는 내 등을 떠밀어 집안에서 쫓아냈다. 집에서 나온 나는 어디를 가야 할 지 몰랐다. 친구가 살아있을 때 함께 즐겨 찾았던 도서관에 가 볼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그만두었다. 그 친구를 떠올리면 세상 전체가 서글퍼져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때 마침 마누라가 아파트 입구에 나타났다. 나는 마누라 시야에서 몸을 감추고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파트로 들어섰다. 마누라는 매일 노인활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는 해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선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어떤 안정감을 맛보았다.

나는 커피 한잔을 타서 할일 없이 급하게 마셔버리고는 서재에 몸을 맡겼다. 서재는 나에게 깊고 따스한 고독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 고독이 마음에 들었다. 아마 그날부터 73세인 나는 그 어느 젊은 날 보다 서재를 더 심도 있게 사랑한 것 같다.

창문이 없는 내 서재는 오묘한 냄새를 풍겼다. 낡은 책갈피 속에서 뿜어져 나온 향기는 오래된 죽은 나무 냄새와 비슷했다. 나는 그 냄새의 묘한 맛을 그제서야 진심으로 음미할 줄 알게 되었다. 서재에서의 위대한 발견은 나를 더 깊고 더 따스한 고독 속에 잠기게 했다.

나의 20대 30대 40 대... 모든 젊은 날 그림자들이 불쑥불쑥 서재 여기저기에서 튀겨져 나왔다. 그런 환영들이 나를 학창시절 찍었던 사진까지 들춰보게 만들었다. 나는 싱싱하고 멋지게 생긴 사진 속 사내가 나왔다는 것이 때론 믿기지 않았다.

나는 매일 마누라가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나왔다가 마누라가

노인활동센터에 가게 되면 그때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친구와 장기가 없어도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가고 또 한번의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른한 여름이 고개를 잔뜩 떨구었다. 그리고 짙한 붉음과 누런 빛깔 속에서 자취를 감췄다. 아파트단지 내의 단풍나무가 시골처녀 같은 부끄러운 홍조를 띄우던 가을 아침이었다. 나는 집을 나갈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마누라는 친구인 황 부인과 전화로 수다를 떨다가 벽시계를 흘끔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나 저나 니네 바깥 양반은 건강하시지? 언제 시간 내서 니네 부부를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할게. 벌써 센터에 나가야 할 시간이 됐구나. 이만 끊고 다음에 또 보자

마누라는 제멋대로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선 저쪽에 있는 황 부인의 얼굴표정을 상상해봤다. 그리고 저도모르게 발을 동동 굴렀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지난 달에 우리 함께 그 집 양반 장례식에 갔었잖아요.

마누라는 친구 남편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마누라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종종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마누라가 뱉은 어이없는 그 말이 내 생애 있어서 멀쩡한 두 귀로 들은 마지막 언어가 될 줄이야. 그날 이후 왼쪽 귀가 차츰 먹먹해지더니 완전 멀어버렸던 것이다.

노인성 난청 탓에 오른쪽 귀도 가끔 말썽을 부렸다. 나는 어쩐지 그 사실을 마누라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되도록이면 마누라와의 대화를 피했다. 아침이면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고 있는 듯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함부로 누르고는 이런 말들을 지껄었다.

—어, 거기 말이요. 알지, 안다니깐. ...그래, 그래 일단 거기서 만

나자구. 알겠네 알았다니깐... 지금 바로 나갈 테니 기다리게나.

어떤 날에는 마누라가 안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집전화로 내 핸드폰 번호를 눌러 소리를 몇 번 울리게 한 다음 이런 말들을 한적도 있었다.

—오랜 만일세. 웬 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하셨수? 그럼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지요. 뭐라구요? 그 친구 죽었다고요? ...그래요 우리 차례도 금방 올 것이요. 지금도 그 동네에 산다면야 내가 언제 찾아가 보지 뭐... 알겠네. ...잘 지내게나. 그래그래 고맙네.

마누라가 안방에서 나오면 난 “그래요. 다음에 또 통화합시다.” 하고 부랴부랴 전화를 귀에서 떼내고 먼저 밖으로 나갔다.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깐 그것도 습관이 되었다. 그걸 하지 않고 집을 나서면 왠지 마음이 허전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따위 대화에 재미를 부쳤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즐기지 못하고 그만 끝내고 말았다.

그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 보다 길게 통화를 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마누라가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동안 집전화로 번호를 눌렀다. 핸드폰 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나는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이게 누구신가? 세상에 이른 아침부터 이토록 반가운 전화를 해주다니. ...그래요, 그래... 에이구, 그럼요. ...그때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요. 목소리를 높여 달라구요? 벌써 그렇게 안 들리면 어떡해요... 에이그, 난 아주 잘 들려, 잘 들린다니깐. 난

아픈데도 없고... 무엇보다 귀가 아주 밝아요.

나는 일부러 귀가 멀쩡하다는 걸 강조했다. 그리고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거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 밖 가을풍경이 내 감정을 자극했는지 목소리 톤이 점점 더 높아졌다.

마누라가 “영감님 어서 와서 커피 드세요!” 라고 세 번 씩이나 불렀다는데도 난 한번도 듣지 못했다. 마누라는 하는 수 없었는지 내 코앞에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따끈따끈한 커피잔을 내

밀었다. 그때까지도 난 핸드폰을 귀에서 떼내지 않고 통화하는 폼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마침 쥐고 있는 핸드폰이 난데없는 벨 소리를 요란하게 울려댔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진동 때문에 나는 핸드폰을 그만 놓아버리고 말았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집전화로 마누라 핸드폰 번호를 눌러놓고 희한하게도 마누라의 핸드폰을 들고 쌍썬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따위 실수를 다 하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통화 그만하시고 식기 전에 커피나 어서 드세요. 요새 영감님 때문에 전화요금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마누라의 위로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바로 서재에 숨어버렸다.

대학에서 국문과 교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나는 한동안 소설창작에 빠져 산적이 있었다. 장편소설 두 권을 출간한 후 허리 통증 때문에 의사의 명령대로 컴퓨터를 멀리했다. 그리고 소설을 다시 쓰지 않았다. 장시간 고된 작업이 어울리는 나이가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 머리 속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인의 외면을 당한 컴퓨터는 나처럼 고독해 보였다. 오랫동안 인터넷요금을 내지 않아 컴퓨터를 열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기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침울한 기분을 떨쳐내고자 나는 서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책을 한권 한권 바닥에 내려놓고 깨끗한 수건으로 서재 구석구석을 닦았다. 그런 후 책을 다시 한권 한권 원위치에 얹어 놓으니 마음이 한결 상쾌해졌다.

오랜 세월 한번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서랍장에 들어있는 잠동사니들도 꺼내어 다시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서랍장 구석자리에서 발견한 물건이 나를 한바탕 놀라게 만들었다.

내가 50살 때 손수 쓰레기통에 버렸던 소형 카세트녹음기가 생똥맞게 나타났던 것이다.

테이프는 그대로 안에 들어있었다. 나는 이것이 왜 이 서랍장 구석에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서재 바닥까지 깨끗이 치워놓고 나는 한참 멍하니 앉아있었다.

늙음의 속도는 현재 나이에다 더 늙어가고 있는 만큼의 가속도가 붙었다. 몸똥아리는 낡아빠진 오래 된 가옥처럼 언젠가는 마침내 허물어 질 수 밖에 없는 형태에 놓여있음을 말해 줬다.

마누라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그나마 소리를 감지 할 수 있는 내 오른쪽 귀도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녹음기 이어폰을 오른쪽 귀에 꽂고 볼륨을 끝까지 올렸다. 내가 마흔 일곱 살부터 삼 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이였다.

그리고 50살이 되어서야 마침내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이였다. 잔잔한 바이올린 협주곡이 귀속으로 잠깐 조용히 흐르더니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루의 담담한 깊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

—안녕하세요. 루예요.. 이 테이프에 내 목소리를 담아 당신에게 보내려고 결심을 내렸을 때 난 내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데 있어 이런 방법밖에 모르는 나를 용서해주세요. 뭐든지 더 이상 가지고 싶지도 주고 싶지도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참에 당신을 만났어요. 참으로 고약한 기분 에 휩싸였던 때였지요.

마치 한평생을 이미 다 살아버려서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심정에 놓여 있었어요. 내 자신조차도 날 이해 할 수 없는데 그 누가 날 이해해 줄 수 있었겠어요? 이유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지겨워졌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재미를 느낄 줄 모르는 사람으로 태어났나 봐요. 난 단 한번도 절박하게 무언가를 위해 본 적이 없었으니깐요.

부유한 교육자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난 다복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나는 남들처럼 갖은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누리고 싶은걸 다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여행잡지사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나는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풍경만 새겨져 있어요. 그건 바로 당신과 함께 휴가를 보냈던 v섬의 낙조예요.

<약 5초 동안의 침묵, 그리고 다시 말이 이어졌다.>

둥갑내기였던 우리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 마흔 두 살이 되어서야 낳 낳았어요. 작년에 82세인 부모님들은 연이어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참 나쁜 딸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결혼하는 모습을 그렇게 애타게 보고 싶어 했지만 난 마흔 살이 되도록 그걸 허락해주지 않았으니깐요.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준 재산을 난 모든 친척들한테 골고루 나눠줬어요. 나의 불행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있는 거 같아요.

말이 길어졌네요. 원래 이런 말들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 음... 그래요. 난 그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슬픔을 내어주고 싶었어요. 이 목소리는 내가 이 세상에 남기게 될 마지막 목소리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깐 그 누구인가가 바로 당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v섬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나란히 앉아 바라봤던 v섬의 그 낙조가 마음에 들어서요. 책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다들 신발을 벗어놓고 떠나잖아요. 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을 배신한 것도 이 세상을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는 것에 재미를 못 느껴서 떠나는 것 뿐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나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거 같아요.

당신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당신과의 추억을 안고 따뜻한 마음으로 떠나요. 그러니 당신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그 낙조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삶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당신, 부디

v섬의 낙조처럼 멋지게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살아가는데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우리 삶에 기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깐 가장 흉측해 보이는 크나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내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무엇인가가 차츰차츰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때 그 시절 루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목소리를 들으면서 늙음과 죽음은 사실 삶 중에 대단한 상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왔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세상 전체를 믿지 않았지만 또 한편 굳세게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다. 기적에 관한 존재 여부의 위대한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었던 것이다.

나는 이어폰을 귀에서 떼내고 녹음기를 원래 있던 서랍장 구석자리에 넣었다.

바로 그때 마누라가 서재문을 확 밀치고 들어와 내 얼굴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서재에 앉아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은 거군요. 영감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에이구, 허리야! 오늘 저녁 영감님 밥은 없으니깐 그리 아세요. 알았어요?

엄청 빨난 마누라는 서재문을 팡 닫아버리고 나갔다.

얼떨결에 봉변을 당한 나는 약간 추춌거리다가 영문을 알아보려고 나가봤더니 마누라가 “에이구 허리야 에이구 허리야” 하면서 시장에서 봐온 물건을 주방으로 옮기고 있었다. 노인활동센터에서 나오면서 시장을 봤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모양이었다. 우리 집은 9층이었다. 마누라는 계단 한층한층을 힘겹게 오르면서 나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그 시간 나는 47살로 돌아가 루의 세계에 한참 빠져있었던 탓에 벨 소리는커녕 지구가 폭발한다 해도 몰랐을 것이었다. 미안했다.

정말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그만 화를 풀라고 나는 진심으로 마누라를 달랬다.

—그것이 지금 미안하다는 얼굴이고 미안하다는 태도인가요? 알았으니깐 그만해요. 영감님 목청 때문에 아파트 지붕이 다 날라가겠어요. ...미친년한테 가려고 했던 못 쓸 영감쟁이 같으니라구. 결국은 그년한테 버림 받았으면서... 썸통이다 썸통...

마누라는 날이 갈수록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그 미친년만은 머리 속에서 지우면 절대 안 되는 존재로 치부한 것 같았다.

나한테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미친년 타령은 꼭 걸쳐야 하는 절차였기에 나도 익숙해 질 만큼 길들여졌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런 마누라가 귀여워 보였다.

마누라와 나는 공식적인 캠퍼스 커플이었다. 우리는 함께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나는 대학에 남았고 마누라는 신문사에 들어가 편집자가 되었다. 대개 캠퍼스 커플들은 졸업하고 나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는 별 탈 없이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이뤘다.

그녀는 모두가 인정하는 미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일부러 노력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모든 남학생들의 로망이었던 그녀를 나는 늘 덤덤하게 대했다. 그런 나의 태도에도 불과하고 그녀가 내 옆에서 떠날 줄 모르자 많은 이들이 이빨을 바둑 바둑 갈았다.

나는 그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줬지만 그녀 스스로 나한테 구속당한 셈이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이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빈틈없이 내 곁을 지켰다. 덕분에 쓸데없이 순진했던 나는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을 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내 감정은 이상했다. 그녀에게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없으면 안될 정도로 그녀를 향한 내 감정은 절박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녀를 얻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 했던 이들에게 욕을 먹을만한 노릇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그녀는 내가 만약 자기를 버릴 경우 자살 하겠다

고 농담조로 위협한적이 있었다. 나는 그 협박 때문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깊이 매혹 되었다. 내 자신이 것처럼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까지 할 정도였다.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녀의 마음을 해치는 일은 평생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부여했었다.

이십 몇 년 전에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자그마한 녹음기가 갑자기 나타난 바람에 단조롭기 그지없던 내 하루에 변화가 생겼다.

나는 그 테이프를 영영 듣지 못하는 날이 올까 봐 노인성 난청 예방법과 치료에 관한 책들을 사들였다. 책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귀안마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마누라가 집을 나서면 서재에서 테이프를 한번 꼭 듣고 나서 하루를 시작했다.

퇴직한 후부터 우리 노부부는 매년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한번씩 종합검진을 받았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마누라가 날짜를 예약해놓고 나한테 통보했다.

그날 우리는 몸 구석구석을 검사 받느라 기진맥진했다. 나는 그 와중에도 난청치료에 대해 빼먹지 않고 자세하게 알아봤다. 결과는 간단한 주사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내게 되었다. 나는 그 주사시술을 받아보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누구 때문인지는 지금도 우린 모르고 있다. 한때 아이를 간절하게 원했던 그녀였지만 병원만큼은 끝내 찾지 않았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까 봐 미리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외로 나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결혼 후 5년 뒤 우리는 서로의 합의하에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잘 웃지 않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집안에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 아이를 사랑했지만 아이를 낳아 보지도 못한 우리는 사실 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아이의 눈빛에는 행복감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그 애는 친부모를 찾았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결

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아이가 떠난 것을 내 책임의 부족한 탓으로 돌렸다.

난청수술을 받기로 한 그날 아침 마누라도 따라나섰다. 나는 큰 수술이 아니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큰 수술이 아니라도 수술이니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노인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옆집 영감 경우를 보시구도 그래요. 위 내시경을 하러 들어갔다가 영영 떠나고 말았잖아요. 노인네들은 조심조심 하느라 해도 늘 걱정이예요.

—내가 죽을까 봐 그러는 게요?

—혹시나 영감님이 죽지 않고 수술실에서 나올까 봐 그래요.

마누라가 먼저 웃었고 나도 덩달아 웃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병원에 들어서면 머리 속에 영안실이 떠오른다.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인 것이다. 삶이란 하나의 기회이고 놀이이고 아름다운 슬픔이다. 그것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느긋하게 감상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몫이다.

세상이 보여준 최상의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욕망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분출 할 수 있는 동물은 오로지 인간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에 와 닿지 않는데도 화를 내고, 즐겁지 않는데도 웃고, 황홀하지 않는데도 만족스러웠다는 표정을 짓고, 가슴에 맞닿지 않아도 관계를 맺고, 절망적이지만 밥을 먹는다.

수술이라고 해 봤자 그저 귀에 주사 한대를 맞는 것이었다. 의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한테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 주사시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시술 시 절대 침을 삼키면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할아버지, 알아들었지요. 침을 삼키면 절대 안됩니다.

의사는 침을 삼키면 위험하다고 여러 번 강요했다.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강요하자마자 이상하게 입 속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의사는 다시 한번 “침을 절대 삼키지 마세요” 라고 당부했다. 주사 바늘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루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그러자 입 속에 고였던 침이 입가로 흘

러나왔다. 간호사가 다가와 침을 닦아주었다.

난청시술 효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서재로 향했다. 아침에 듣지 못한 루의 목소리가 그리워서였다. 그런데 녹음기가 보이지 않았다. 서랍장에도 그 어디에도 녹음기는 없었다. 보물처럼 간직해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마누라는 서재가 따로 있기에 좀처럼 내 서재에 출입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마누라한테 물어 볼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루를 또다시 잃은 격이 되었기에 나는 매우 절망스러웠다.

테이프 덕분에 74세인 나이로 47살로 살았던 시간들을 그만 추억으로 둔갑시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직도 루를 처음 만난 그날을 잊지 못한다.

1983년 6월 12일, 스승의 장례식에서 루를 만났다. 나의 스승은 루의 부모님 친구였다. 몸에 짝 달라붙은 하얀 바지에 헐렁헐렁한 빨간색 긴 와이셔츠를 착용한 루의 차림새는 장례식장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다.

루는 마누라처럼 이쁜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그녀에게서 한번도 눈을 떼지 못했다. 옷 차림새 때문만은 아니었다. 루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여자였다. 장례식에서 나온 그녀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계속 걸었다. 목적도 없이 걷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묘한 분위기에 이끌려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렸다. 십 미터가 조금 넘는 거리를 두고 그녀가 나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똑같은 걸음거리 자세로 내 앞에 다가와서 한 글자를 내뱉었다.

—왜?

나는 “네?” 하고 되물었다. 그녀는 또다시 “왜?”, 나도 또다시

“네?”... 그런 식으로 “왜?”, “네?”를 다섯 번이나 주고 받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서 박장대소를 했다.

루는 유명한 여행잡지사의 사진작가였다. 루는 한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 시선과 몸동작 때문에 그녀는 소리 없이 신비한 이야기를 엮어내는 마술사 같았다.

루는 나에게 활짝 열려있는 유리 집을 연상시켜줬다. 내면 속 유리 집은 여러 가지 색채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루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누구에게나 최고 행복했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어느 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나의 그런 순간들은 루의 사진작업실 암실에 있었다.

나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공포와 황홀 감에 젖어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눈을 뜨고도 상대를 볼 수 없는 공간에서 나는 우리 몸 속 모든 세포가 육체를 관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어딘가로 급하게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팔뚝만큼 굵어졌다. 몸통은 걸잡을 수 없이 늘어지면서 집채만큼 커졌다. 나는 그 어둠의 무한한 속에서 스스로 무한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커져가면 갈 수록 나의 원형은 한없이 작아졌다.

두려웠다. 나는 속으로 그녀에게 외쳤다. 나를 꼭 잡아요 붙들어요 나를 길들이고 나를 나를, 나를 떼어내지 말아줘요...그리고 나는 루를 품에 꼭 껴안고 잠들었다. 눈을 떴을 때 주위는 여전히 암흑이었다.

루가 나처럼 잠들지 않았다는 걸 난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내가 깨어날 때까지 루는 꿈쩍하지 않고 내 곁에 붙어있었다.

루에게 있어 삶이란 본다는 것을 의미했다. 본다는 자체는 두 가지 극단(極端)을 통해 경계가 이어진다. 즉 눈부신 빛의 세계와 절대적 어두움의 세계, 그것이다. 루는 그 어떠한 극단도 경멸했다. 그러나 또 그러한 양극에서 헤매었다.

극단이란 경계를 표시한다.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삶은 저절로 끝장난다. 은폐된 죽음의 동경은 극단에 대한 정열에서 나온다. 흔히

예술가들이나 정치가들이 그런 정열에서 허덕인다.

슬픔이 가득 고여있는 루의 눈빛은 아마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데서 유래했을 것이다. 루의 눈은 별도 달도 없는 조용한 두 개의 깊은 밤 같았다.

나는 루를 내 옆에 영영 묶어두고 싶었다. 루를 생각하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같은 침대를 사용하는 마누라가 있다는 것이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루는 우리의 사랑이 나의 마누라로 인해 비밀로 해야 한다는데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유부남인 나에 대한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진실이란 불편한 존재였기에 루를 만나려면 마누라한테 거짓말을 해야 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루를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일을 도모했다.

마누라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루는 우리 둘만의 여행계획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차후 루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혼에 관한 생각을 숨겼다.

종합진단 결과 칠십 넘은 사람치고는 모두 그럭저럭 건강한 편으로 나왔다. 겨울만 되면 마누라는 늘 어지러움 증을 호소했다. 저혈압 때문에 겨울에는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새싹채소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시간을 보냈다.

2009년 겨울, 마누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자주했다.

설탕을 소금으로 착각하고 요리를 한적도 한 두 번 아니었다. 금방 전 일도 까먹기 일쑤였다. 심각한 치매 끼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를 늘 “영감님”이라고 불렀던 마누라는 가끔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아부지”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몸은 아이처럼 점점 작아졌고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난청수술은 받은 뒤 내 귀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이 효과라고 할 수 있었다. 늙음이란 초라하고 추한 것이다. 마누라 때문에 나는 노인복지시설에 도움을 청했다.

1983년 8월 10일, 루와 여행을 떠나기로 한 아침,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누라를 상대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 버리고 말았다.

—이번 휴가는 애인과 함께 보낼 것이요.

지나치게 뻔뻔한 말을 내뱉고 나는 마누라의 주름진 얼굴에서 절망을 읽어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렸다. 나는 내가 한 말이 마누라에게 곱잡을 수 없는 절망을 불러일으켰으리라고 믿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마누라가 입을 열었다.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이군요. 물론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잘 알았어요.

나는 이십 년 동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집에서 재빨리 뛰쳐 나와 마누라의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내 등뒤에서 야유적인 어조가 낮 설은 종족의 노랫말처럼 울렸다.

—다른 여자의 국부냄새를 머리카락에까지 묻히고 다니지 마세요.

그녀의 확고한 목소리에는 조금도 충격 받은 기색이 없었다. 나는 마누라가 너무나 큰 절망 앞에서 그나마 자존심이라도 지켜볼 예산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여겼다. 마누라는 곧 혼자서 통곡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편 무거운 진실을 토로한 뒤 생기는 역겨운 가벼움에 치를 떨었다.

얼마 뒤 나는 기차역에서 루를 만났다. 기차는 도시를 점점 더 멀리했고 내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부두에 도착했다. 우리가 선택한 여행지는 아름다운 섬, v섬이었다. v섬의 일출과 낙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루는 사진을 찍다가도 멍하니 어디론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별도 달도 없는 깊은 두 개의 밤 같은 루의 눈길이 나를 웬지 불안하게 만들었다. 루는 나의 남성적인 보호본능을 자극해줬다. 빨갛게 물들여진 낙조를 보면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흘리는 피 같
아요.

루만의 할 수 있는 언어였다. 소름 끼치는 말이었지만 어쨌거나
나는 루의 그러한 감성을 존중해줬다. 우리는 v섬에서 일주일을 보
내고 돌아왔다. 나는 마누라와 이혼수속을 마치고 나서 루에게 정
식으로 멋진 프로포즈를 할 심산이었다.

헤어지면서 루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머금고 나를 한번 포옹했다.
나는 루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루는 걸다가도 가끔 일
이 초췌 머뭇거리다가 다시 걸었다. 나는 루한테로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으나 참았다.

그저 맘속으로 내 시야에서 점점 흐려지는 루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루,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당신한테로 갈게...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마누라가 나에게 악을 쓸 준비를 마치고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마치 농담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 냉담하고 집요하게 내가 이사 나가줄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나는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간단한 짐을 먼저 챙기고 나서 나머지는 이튿날에 다 가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승낙했다. 순간 이상하게 화가 치밀
었다. 차라리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고 아무런 대꾸도 해주지
않았더라면 난 괜찮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야유 섞인 빈정거림
에 몸서리쳤다.

루의 집 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루를 그녀 집에서 만날 행운에
기뻐했다. 과란색 작업복을 걸친 사내들이 나타나서 루의 가구들을
차에 싣고 있었다.

나는 그 가구를 어디에 운반하냐고 물었다. 목소리 톤이 걸걸한

사내가 집주인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어서 말해줄 수 없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녀의 사진작업실로 달려갔다. 사진작업실은 텅 비어 있었다. 다시 루의 아파트에 되 달려 오니 짐을 다 실은 트럭이 떠날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나는 운전사에게 돈을 주어 비밀을 캐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만, 갑자기 그럴만한 힘을 상실했다. 너무나 큰 슬픔에 기운을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무 것도 해명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온 그 행복, 만족감과 자유로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쁨, 그것들이 루가 나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었다. 루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결심했던 바로 그 순간 루는 내 앞에서 증발해버렸다.

나는 길거리에서 썩어가고 있는 죽은 나무 한 그루를 껴안았다. 마치 그것은 나무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루인 것처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할머니인 것처럼, 아니면 선조인 것처럼 선조의 선조인 것처럼, 아니아니 거친 나무껍질의 모습으로 루에게 내 자신의 얼굴을 향하게 하기 위해 멀고먼 시간의 심연에서 온 이미 많이 늙어서 더 이상 늙어버릴 수 없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내 영혼은 발가벗겨진 버림받은 육체 속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루는 내 삶에 끼어들어 사랑을 빙자하여 나를 송두리째 훼손시켰다. 사랑은 무언가를 질식케 하는 파괴력을 지녔다. 나는 그 속에서 놀림 받았던 것이다.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도시의 밤은 네온 빛에 휩싸였다. 나는 목적 없이 무작정 걸었다.

그렇게 걷다가 내 시선은 통 유리로 된 한 카페에 꽂혔다. 그 안에서 마누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크게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분명 나를 비웃는 이야기로

생각되어 머리를 돌려버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원룸을 하나 얻었다. 휴가를 모두 마치고 출근한 첫날이었다. 정교하게 포장된, 어른 손바닥만한 양증맞은 선물박스가 내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그 안에는 소형카세트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나는 루를 증오했지만 삼 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루의 목소리를 들었다.

<육체와 영혼, 우연과 운명, 의미와 무의미, 부정과 긍정의 개념, 시간의 직선적 진행과 윤회적 반복,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기독교적 인류학과 생명체의 질서> 등등등등.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우린 단정지을 수 없고 결코 알 수도 없다. 우리에게 단 한번의 삶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정할 수 없는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이후의 삶 그런 것들이다.

나는 일에 온 정신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조용히 살고 있던 어느 주말 우리가 입양한 딸이 나를 찾아왔다. 그 아이의 말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웬지 그 아이의 그런 태도가 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느닷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인간에 대한 도덕성 의무를 회피한 죄책감이 들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격을 받은 셈이죠. 내 친부모한테 가겠다고 했더니...내가 나를 낳아준 친부모를 찾아냈어요. 병원에 같이 가지 않을래요?

그 차가운 말투 때문에 나는 문득 삶에 대한 총체적인 혐오감에 휘말렸다.

아이의 나를 마누라가 있는 병실 앞에 팽개치고 사라졌다. 나는 지극정성을 다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녀를 보살폈다.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마누라였던 것이다. 그녀는 이사센터 인부들을 동반하고 내 집에 들어섰다.

—모든 짐을 빼놓지 말고 포장해서 차에 실어요.

나는 대체 무슨 일인지 파악할 수 없어 어안이 병병했다.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나를 그녀가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잘 들어요.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어떤 명분이 필요할 뿐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명분! 어떤 남자의 부인으로 살고 있다는 명분! 그런 게 필요해졌어요.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부부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하여 다시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다. 마누라는 비어있던 방을 산뜻하게 도배하고 내 침실로 꾸며줬다. 나는 마누라의 그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짜증스러웠다.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그녀에게서 나는 늘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원룸을 떠나면서 나는 그 녹음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십 몇 년을 지나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그 녹음기는 내 인생에 있어 마치 당장 치과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치통 같은 그 무엇이었다.

마누라는 매일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호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토록 깔끔했던 마누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치매노인으로만 내 눈앞에 있었다.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만 빼고는 나름대로 건강했다. 기억력도 아주 좋았다. 나는 마누라가 안쓰러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려고 애썼다. 먹자마자 또 배고프다고 해도 인상을 쓴 적이 한번도 없었다.

마누라가 유난히 싫어하는 겨울이 지나가고 우린 또 하나의 봄을 맞이했다. 복지관에 가지 않으면 우린 집을 나서야 할 핑계거리가 없었다. 마누라는 이제 세수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녀 때문에 그토록 힘겨웠던 봄날도 쏠 살 같이 지나갔다.

2010년 5월 20일 아침, 그렇게도 밖에 나가기를 좋아했던 마누라가 복지관에 가지 않겠다고 아이처럼 떼를 썼다. 나는 맛있는걸 많이 사주겠다고 하면서 마누라를 겨우 달랬다.

복지관 전용버스 앞에서 마누라가 또다시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마누라와 함께 버스에 탔다. 버스 안에서 마누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괜히 가슴이 울컥했다.

복지관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도 마누라는 내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터라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맛있는걸 많이 사가지고 데리러 올 테이니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마누라는 머리를 끄덕끄덕하고는 양손으로 내 오른손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나를 한번 쳐다봤다

—영감님은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고마워요, 영감님. 영감님은 좋은 사람이예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요. 내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으니깐. 영감님은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나는 알았으니깐 이제 그만 들어가라고 말했다. 늙어버릴 대로 늙은 마누라가 복지관에 들어서서 모습을 지켜봤다. 마누라가 머리를 돌리고 나를 향해 치매노인 같지 않는 미소를 건넸다.

나는 손을 가볍게 흔들어주었다. 그것이 마누라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그날 마누라는 복지관 화장실에 쓰러져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녀가 없는 장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마누라가 생전에 부탁한대로 자작나무 한 그루를 사다가 골회함과 함께 뒷산에 심었다.

마누라가 떠난 자리는 이루 말할 데 없이 나를 허전하게 만들었다. 나는 마누라의 유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복지관 앞에서 내 손을 잡고 화장대 서랍장안에 뭐가 있다고 한 것만 살펴보기로 했다. 서랍장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집문서

와 은행통장 외에 분홍색으로 된 종이박스 하나가 있었다.

박스 안에는 이십 몇 년 만에 불쑥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녹음기와 더불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다. 루가 보낸 편지였던 것이다. 마누라를 평생 불안하게 만든 그 미친년은 바로 루였다. 마누라가 마지막 순간까지 뚜렷하게 기억한 사람은 오로지 루뿐이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사람이 어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말인가. 그때 그시절 루가 나를 떠나면서 보냈던 편지를 마누라가 가로채 숨겨놓았던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 우표를 살펴보니 2009년 8월 17일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루가 떠난 후 나는 그 어떤 일에도 감격스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편지를 봉투에서 꺼내든 순간 다시 47살로 돌아가 있는 나를 느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싶은 무한한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한참 울었다. 그리고 돈보기를 꺼내 들었다.

존경하는 서교수님께:

v섬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당신도 할아버지가 되어 건강하게 살아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삼월에 영감님이 돌아가고 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낸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편지는 내가 시작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왜 당신을 제일 먼저 떠올렸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던 탓이겠지요. 남편은 v섬의 원주민이었습니다. 낙조를 향해 바다에 뛰어든 나를 구해준 남자였지요. 그는 평생 내 목숨을 지키느라 갖은 애를 썼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했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어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40살에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나

에게도 늪음이 찾아왔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v섬의 낙조는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립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녹음기에서 테이프를 꺼내어 필름을 줄줄 끝까지 잡아당겼다. 편지는 천천히 한 가닥 한 가닥 길게 길게 찢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박스 안에 담았다. 나는 그 박스를 들고 자작나무를 찾았다. 자작나무 옆에 그 박스를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어줬다.

뒷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몹시 가벼웠다.

내 영혼은 단단해질 때로 단단해진 두꺼운 껍질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영혼은 하늘을 향해 손을 저으며 육체의 표면으로 솟아 올랐다.

매말랐던 내 입 속에 감자기 침이 가득 고였다. 나는 그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순간 감자기 양쪽 귀가 모두 뻥 뚫렸다. 공기 속에 울려 퍼진 온갖 세상소리가 갑작스럽게 내 귀속으로 날아 들어왔다.

나는 양손의 식지로 두 귀 구멍을 억세게 막아버렸다.



한지 본명 한명숙(韓明淑)

길림성육제학교 재무과 졸업. 공주령시 심수시 등지의 기업에서 재무사업. 현재 한국 강릉시에서 한어강사로 있음. 소설 “크로노스의 시간” 등 다수가 있다. 연변작가협회화림문학상 수상. 연변작가협회 회원.

추락을 향유하다

장 정 일

소설가 정세봉이 단편소설 "고골리 송배자"를 집필하였다.

이게 언제만인가? 십년? 이십년?

오랜 침묵 기를 뒤로 하고 고래회에 집필된 작가의 소설신작을 접하고서 나는 무심결에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예고 없이 돌아오는 바람을 떠올렸다. 시공간의 제약을 모르는 거침없는 바람, 자유로운 바람을 말이다.

하기야 기온차가 심한 무수한 나날들을 지나왔을 그 바람이 거침은 없다 해도 그렇게 가볍고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아마 작가의 통과의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모든 작가들이 특정 작가 작품에 중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다. 보르헤스의 말이 대표적이다. 웰스의 《타임머신》 등 책들을 두고 보르헤스는 말한다. "이 책들이야말로 내가 제일 처음 읽은 책들이었으며, 아마도 내 생애 마지막으로 읽게 될 책들일 것이다.

① 로신도 이와 유사한 심정으로 고골리를 대하지 않았나싶다. 고골리처럼 로신은 "광인일기" ("미치광이의 일기"라고도 번역됨)라는 제목으로 단편소설을 썼다. 허다한 사회비평과 문화비평 에세이에서 그는 고골리의 말을 자주 인용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로신은 자기 생명의 최후 2년, 즉 1935년과 1936년에 병환을 무릅쓰고 건강과 생명을 대가로 일어역본을 참고하면서 고골리의 독일어역본 장편소설 《죽은 녀》을 번역했고 관련 삽화를 수집해 《죽은 녀 백도百圖》를 자비 출판하기도 하였다.

정세봉의 신작 "고골리 송배자"가 다루고 있는 모티브가 바로 이런 집념, 즉 문학중독현상과 연관된 것이다. 소설제목이 단도직입적이다. 중독이 아니면 송배는 불가능하다. 소설 주인공인 노작가 니꼴라이 유는 이름부터 니꼴라이 와실리에위치 고골리의 이름을 닮았다. 로작가의 애명도 꼴라, 역시 러시아식이다.

허지만 작가의 시선이 주목하는 곳은 이런 외형적인 닮음이 아니다. 소설의 초점은 주인공 로작가의 분서(절필), 즉 작가 생애의 추락으로 압축되어 있다. 모두들 경쟁적으로 직선상승, 고속승진, 벼락부자를 꿈꾸는 들뜬 시절에 소설은 추락을 말한다. 가짜와 진짜가 뒤섞인 양적 팽창이 우려를 낳는 부박한 세월에 소설 주인공 니꼴라이 유는 스스로 자기 책을 소각한다.

오랜 시간의 간극이 무색하게 정세봉의 필치는 녹슬기는커녕 노련미를 풍긴다. 그의 신작은 환상성, 괴기성의 뉘앙스와 더불어 등장인물의 심리변화, 자아탐색에 치중하며 독자의 구미를 자극한다. 무척 신선한 어법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생경하지 않고 독자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푸근한 분위기 속에서 열독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고골리 송배자"의 작중인물은 니꼴라이 유와 꼴라라는 열혈 문학소년들이지만 주인공 심리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꼴라는 기실 주인공의 분신으로 읽히며 묘한 기분을 자아낸다. 꼴라는 소년시절 자주 올라가 러시아문학을 읽었던 "잔디언덕"이라는 장소와 더불어 로작가 문학 꿈의 상징으로, 그의 내면 "무의식의 늪"속에 숨어 있다가 출몰하곤 하는 또다른 자아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둘이면서도 하나인 이

소설은 주인공의 분서행위를 계기로 현실성과 환상성, 상상 속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교차시키면서 인물의 내면풍경을 실감 있게 그려내 이채롭다.

소설에서 분서는 순간적인 상황이지만 주인공의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라는 상상의 가치를 타고 소설은 종횡으로 뻗어나간다. 꿈 많은 소년시절 니콜라이 유는 러시아 문학을 탐독하면서 고골리 같은 별이 되고자 소망한다. 문학을 숙명으로 알고 창작에 정진해 반향이 큰 작품들을 내기도 했었지만 그 공적을 성취하느라 기력이 소진한 듯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주인공 로작가는 "혹여 미련의 불씨라도 남아서 부질없이 갈등하는 일이라도 생길까 두려워서 분서를 결행한다." 자학적인 결단에 실컷 설음을 쏟아낸 뒤였다.

분서는 이처럼 주인공의 "과거의 시간들"과의 비장하고도 깨끗한 결별이었던건만 정작 자신에게 남은 "미래의 시간"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시간"속으로 뛰어드는 일군의 낮익은 인간 행렬을 본다. 그것은 라태하고 비속한 이완 이와노위치, 이완 니끼포로위치, 마닐로브, 영웅적인 따라스 불리바, 협잡꾼 치치꼬브 등등 고골리 중 장편소설 등장인물들의 긴 행렬이다.

소설 주인공과 고골리 책속 인물들과의 만남이라는 장면설정 자체가 벌써 희극적이고 괴기스러운 뉘앙스를 풍기는데 소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두 술을 더 뜬다. 그 책속 인물들은 기상천외하게도 봇나무숲이 울창한 산자락 밑에서 짐짓 "고골리 탄생 206주년 기념축제"를 열고 있다. 술 파티도 벌어지며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사이 소설 주인공은 치치꼬브의 마부들이 축제에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것처럼 부러워하던 드로이카를 잡아타기에 이른다. 그는 무아의 경지에 몸을 맡긴 채 밀려오는 격동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혹시 "항상 깊은 비애와 우울감이

지배적인 희극적 활기가 그의 개성적인 특징"②인 고골리의 소설에 대한 경탄이고, "그 자신의 산 녀"를 통하여 죽은 녀를 묘사하며 이 묘사를 통하여 "그의 산 녀를 고취하여 주는"③ (벨린쓰끼) 고골리의 문학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된 희열이 아닐까? 그는 저도 몰래 《죽은 녀》에 나오는 고골리의 그 유명한 주정토로 대목을 격조높이 되뇌인다.

"오 루씨여! 루씨여!... 그대 자신이 이렇게도 광대무변하거늘 어찌

여기 그대의 품안에서 무한대의 위대한 사상이 싹트지 않을 것이냐!"

뜨로이까를 탄 채 눈 덮인 광활한 로씨야 대지를 쏘살같이 달리며 주인공은 새롭게 열어나가는 "미래의 시간"들이 쓸쓸함도 허무도 아닌 감동과 경이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끼며 행복해 한다. 허지만 그것도 잠시, 소설 속 인물과 책속 인물, 과거와 현재가 환상 속에서 원무를 추듯 잘도 어울리다가 소설은 다시 급커브를 하면서 주인공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치지 말고 류의할 점이 있다. 추락의 그 현란한 속도감 속에서도 니꼴라이 유는 집요하게 “잔디 언덕” 위에 무지개처럼 걸려있는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율배반, 풀길 없는 내면 갈등을 안고 있는 주인공의 추락은 이처럼 자신의 한계로 인한 비애가 비껴있으면서도 시종 그것을 메우려는 꿈과 함께 한다. 니꼴라이 유는 꼴라와 함께 한다.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과 함께 한다. 추락은 날개가 없다지만 꿈에는 날개가 있다고 할까, 성대한 기념축제 뒤 추락하는 니꼴라이 유는 결과적으로 추락을 초극하고 추락을 향유한다. 그 향유가 새로운 가능성의 열림이고 새로운 비상의 잉태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니꼴라이 와실리예위치 고골리의 학생", "스승의 문학 영지"와

함께 하는 소설 주인공은 여유 있고 태연자약해 보인다.

소설 "고골리 송배자"의 유희적인 환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단순사유의 협소한 골짜기를 벗어나 분서, 절필, 추락의 이미지와 화해를 하며 친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정신적인 승화와도 같은 그런 해방감을 느낀다고 할까?

그렇다. 소설 주인공의 추락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주인공의 대단한 용기를 본다. 분서라는 행위도 이미 이뤄놓은 공적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자존일 것이다. 이런 용기와 자존을 우리는 자신의 최고상태일 때 은퇴를 선언하는 스포츠계 명선수들한테서도 자주 본다. 문학대가, 이를테면 고골리도 《죽은 녀》 제2부에서 이상적인 인물 형상을 창조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서슴없이 원고를 불사르고 나서 며칠 뒤 별세했다. 자기 작품을 세상에 서빨리 내놓기를 꺼렸던 카프카는 친구에게 보낸 유서에서 자신의 모든 글을 불태워 줄 것을 부탁했을 만큼 자신에 엄격했다.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작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사람은 조을거나 날마다 미루며 살기가 일쑤이다. 위기대처의 자각은 벼랑 끝에서 제대로 이뤄진다. 절필, 분서와 같은 극약처방은 아니더라도 작가라면 누구나 답답할 때면 간간이 니폴라이 유와 유사한 추락의 체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기 작품이 답답하고 구태의연한데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범작을 되풀이하는 치명적인 관습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라도 작가에겐 이런 추락의 체험이 필요할 것이다.

소설 "고골리 송배자"가 보여주는 추락의 이미지는 경전, 즉 작가의 정신적 고향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문학, 그리고 문학을 하는 작가적 행위를 보다 넓고 깊은 견지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정세봉 특유의 벼랑 끝 사유와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소설 속 니폴라이 유와 정세봉은 출생년도, 출생지가 겹쳐진다. 니폴라이

유가 고골리의 문학령지에서 탐구를 거듭하고 있다면 정세봉은 남미문학을 비롯한 경전의 세계에서 배움의 정열을 불사른다. 깊이 있는 디지털생활의 모범이라 할까, 정세봉이 운영하고있는 사이버 공간-인터넷카페 "대지"와 개인 블로그에 담긴 방대한 문학 정보량은 네티즌들을 놀래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세부가 추가된다. 지난 세기 80년대, 그러니까 정세봉이 화룡 농촌 룡수평 초가집에서 살던 시절 한 일간지에 발표한 에세이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진실로 글다운 글을 써내고 진실로 작가다운 작가로 되려면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고심히 예술기량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명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때론 심각한 고민과 좌절, 벼랑 끝에 선듯한 극한상황을 겪어보는 것도 작가로서는 다 유익한 일일 것이다...

작가의 인생은 작품의 편수거나 '노력 훈장'으로 빛나는 것이 아닌 만큼 한두 해 작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심지어는 몇 해를 깊이 침잠해있더라도 자신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진실로 '맛'을 돌친 작품을 써내기 위한 고초를 겪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다가 맥이 진하면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거나 폭탄처럼 작렬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그 무슨 미련과 유감이 있겠는가!"④

보다시피 "고골리 숭배자"는 작가 내면의 깊은 우물, 작가적 사고의 진지함에서 유래한 희귀 작이다. 영국 사람이 베니스 상인이나 단마르크 왕자를 쓰고 일본사람이 노르웨이를 운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골리 숭배자"를 통해 러시아의 자작나무 숲속을 거닐어본다. 현실적인 진지함, 그리고 다함없는 경건함을 지니고 말이다.

정세봉이 마련한 숲속 고골리기념축제에 초대 되었다가 현실로 돌아와 보니 뜨로이까는 안보이고 지금은 고속철시대라고 한다. 스마트폰시대라고도 한다. 허지만 속도에만 정신을 팔면 깊이를

놓칠 수 있다. 속도의 현란함속에서도 마음의 깊이,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균형을 향한 인간의 욕구, 인류의 지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두들 고속철 탑승객으로 되어 먼 길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러시아 대지를 달리던 트로이카를, 그리고 아름다운 심장을 가진 고골리의 《죽는 녀》과 산 녀를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버지니아 울프도 경탄해마지 않던 러시아 작가들의 그 "심령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인간 정신에 대한 그들의 "천연적인 숭경"^⑤의 녀를 말이다.

주: ① 열린 책들 간, 보르헤스 에세이집 《만리장성과 책들》, 제168페이지.

② 조소출판사 간, 《벨린쓰기선집》 4, 제58페이지

③ 조소출판사 간, 《벨린쓰기선집》 4, 제110페이지

④ 정세봉의 수필 "맛을 돋구는 문제 - <김학철작품집>을 읽고". 연변일보 1988년 3월 26일 해란강부간.

⑤ 버지니아 울프의 평론 "현대소설". 호남인민출판사 간, 류병선역문집 (중문) 《책과 화상 (画像)》, 제98페이지



장정일 張正一 문학평론가

1943년 중국 룡정시에서 출생. 연변대학 어문학부 중문학과 졸업. 연변 일보사 부총편집,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역임. 칼럼집 「사색의 즐거움」, 평론집 「변방—또 하나의 시작」 출간. 「연변문학」 운동주문학상 평론부분 본상, 장백산문학상 수상.

▣ 배정웅 시인 타계

‘바람의 시인’ 세상을 떠나다



고 배정웅 시인(사진)

‘바람의 시인’ 배정웅 재미시인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본지 「해외문학」 창간 멤버이며 자문위원을 맡아온 고인은 미주 한인문단의 원로로 지난 2015년부터 재미시인협회 회장을 맡아왔다.

▲고인의 약력

고 배정웅 시인은 1941년 부산에서 출생. 경북대 정치학과 졸업,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1970년대 「현대문학」 추천완료로 문단에 데뷔.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 미국으로 재이민, 시 전문지 ‘미주시학’의 발행인으로 해외문학 대상(해외문학사), 해외한국문학상(한국문인협회), 민토헌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시집 「길어올린 바람」 「강과 바람과 산」 「바람아 바람아」 「새들은 페루에서 울지 않았다」 「반도네온이 한참 울었다」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시집 「국경 간이역에서」가 있다.

■ 추모시

편히 잠드세요!

조 윤 호

우리는 잠시 보이는 아침 이슬같이
이 땅을 떠나야 할 줄 알지만
당신과의 슬픈 이별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바람의 시인’으로 유명했던 배정웅 시인,
한국을 떠나 남미로,
미국으로 떠돌면서도
시를 생명보다 사랑했던 당신.

메마른 세상에 가는 곳마다
한국의 시를 꽃처럼 뿌리며
한민족의 시혼詩魂을 불태웠던
당신의 아름다운 시편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빛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시던
미주의 문인들을 남겨두시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시다니
우리는 너무도 안타깝고 목이 맵니다.

이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세요.

국경 간이역에서 외 2편

고 배 정 웅

아르헨티나 국경으로 가는 험케열차가
정말 노새의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조랑말이랑 망아지랑 들개 떼가 철로를 막아서면
체 가바라 모자를 삐뚜름히 쓴 늙은 차장이 나서서
위이위이 쫓고
이름 모를 간이역에선 잡상인들이
마적 떼처럼 핏빛 화톳불을 피워놓았다
시든 패랭이꽃을 머리에 꽂고 귀고리가 별처럼 흔들리는
눈 큰 행상 소녀 하나가 차창 틈으로 손을 내밀고
한사코 조른다
이름이 실바나라고 했다
그때는 내 머릿속에 이름이 똑 같은
집에 두고 온 어린 딸아이가 생각이 나서
행상 소녀의 때 절은 손을 슬며시 쥐어 보았다
마른 꼬마늬이 내 손 안에서 퍼석거렸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시인에게

어느 날 헌 책방에서 표지가 새 책 같은
시집 한 권을 샀네
책갈피를 넘기자마자
맨 처음 미지의 세계를 열듯이 이 책을 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하나
범행의 흔적처럼 손때와 지문과 채취 한 줌
깊이 남겨놓았네
한 마리 악어가 산다는
거품 부결 거리는 잉크의 늪에서 수분을 길어 올려
시의 행간 사이사이 군데군데에
내가 본 험궤열차의 레이 같은 물뱀 꼬리 같은
좁고 긴 선도 그어놓았네
내가 아는 서울의 한 여류 시인은
시와 이별하기만 하면 자신의 불행은
끝이 날 것이라고 어렵게 어렵게 고백했는데
아마도 이 시집의 자궁을 열어
대담하게 언어의 처녀막을 건드리고 간 사람은
이제 막 불행을 맛보려고 했던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불행의 가시에
몸과 마음이 찢려서
낭자한 피 같은 밑줄의 흔적을 이렇게 남겼으리
그런 그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전혀 알길 없지만
차마 시와 결별하지 못해 고뇌와 슬픔이
하마 더 깊어진 나처럼
어쩌면 짧디 짧은 생의 잠
밤이면 숲의 어둠을 쫓는 붉은 가슴 울새처럼
불면으로 뒤척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 이승의 숨 놓거든

서장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로
피리를 만들어 분다고
남미의 히바로 인디언은
죽은 사람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들어 즐긴다고
오랫동안 침향목처럼 여울에 담그고
햇빛과 바람과 지빠귀 울음소리로 건조시킨 사람의 한 생애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입을 꿰매어
상품으로 내어다 팔기도 한다고
사람이 죽어서도 때로는 그 육신이
슬프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내 이승의 숨 놓거든 내 뼈에 다가는
구멍 몇 개 되는 대로 뚫어
온전한 소리꾼이 되지 못한 내 허허한 노래를
그대여 한 두 소절만 읊조려 주었으면

에밀레야 침묵하는 에밀레야

한 영 남

1

수년전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에서 사다새(鸕鶿)사건이 터졌다. 굳이 사건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본래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는 몬트레이 주민들로 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일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몬트레이는 사다새들의 천국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다새들이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생물학자들은 새들 속에서 온역이 돌지 않나 의심하였고 환경학자들은 바다물의 오염에서 문제를 찾아보려고 애썼다.

과학자들은 후에 그 원인이 그곳에 새로 선 고기미끼공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본래 몬트레이에 사는 어민들은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손질하면서 내장을 사다새들에게 던져주곤 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다새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따라서 사다새들은 더는 생존을 위해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고기미끼공장이 서면서 물고기내장은 그 공장에서 원자재로 회수해가기 시작했고 물고기내장이 돈으로의 환산이 가능해지자 어민들은 더는 사다새들을 위해 내장을 던져주지 않았다. 사다새들

은 여전히 어민들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이제나저제나 내장을 던져주기를 바랐으나 그들에게 무상급식은 더는 생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대로 어민들이 던져주는 내장에 의해 번식해오며 이미 포획능력을 상실한 이 사다새들은 그만 굶주리다못해 무리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요즘은 세계가 지구촌으로 불리면서 세상나들이가 가능해졌고 돈만 있으면 어디라도 관광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각 나라는 나라대로 특색건축물, 조형물, 예술 조각 등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색적인 맛 거리까지 동원하여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아보려 애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 도시의 아무리 못난 광장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유유히 날아예는 비둘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나라는 그만두고 우리 나라 그 어느 도시에 가보아도 이 평화의 비둘기들의 모습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둘기들 역시 인간이 던져주는 빵부스러기가 아니면 생존이 어렵다고 한다.

지어 얼마 전 뉴스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환경문제로 더는 빵부스러기를 던져주지 못하게 하자 비둘기들이 굶어죽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굶겨죽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비둘기들이 영국정부 측으로 말하면 일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한다.

인간들의 손에 의해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어진 비둘기들이 필요 이상(?)으로 번식하여 정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비둘기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란단다.

지어 어떤 사람은 비둘기들의 먹이에 피임약을 섞어 먹이자는 제의까지 했으나 그것은 동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3

인류는 스스로의 작은 허영심 만족을 위해, 예쁜 짐승들이 평화

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단순히 눈으로 즐기기 위해 동물들의 생존능력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4

어미산양은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일부러 벼랑으로 내몬다고 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거친 산양들은 벼랑을 잘 타고 그래서 승냥이를 비롯한 다른 큰 짐승들로부터의 추격을 거뜰히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독수리의 토사물이란 말이 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면서 땅에서 기어 다니는 독사나 전갈 등 극독 물들을 먹이로 하는데 독수리는 그런 독성이 강한 뱀이나 전갈을 먹고도 살아남는다.

알고 보니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독수리들은 독사나 전갈들을 잡은 후 잘 찢어 삼켰다가 그것을 토해 새끼들을 먹인다. 그것을 먹은 새끼들은 더러 쇼크도 하고 더러 죽기도 하지만 그중 살아남은 새끼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독물을 먹어온지라 성장한 후 웬만한 독은 먹어도 중독되지 않는다.

사실 독수리의 토사물은 응구(鷹嘔)라고 하는데 독수리 역시 오래 동안 독이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다나면 위낭 속에 독이 뭉치게 된다. 그것을 일정 기간이 되면 토해내야 독수리가 살아남게 되고 그것을 토하지 못하면 독수리는 죽게 되는 것이다. 그 독수리가 토해낸 토사물이 바로 응구로 독단(毒丹)이라고 한다.

건실한 새끼들을 키우기 위한, 그야말로 사활적인 어미독수리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5

인간은 날이 갈수록 신체적으로 퇴화되어 간다고 한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다리가 점점 힘을 잃고 가늘어지는가 하면 컴퓨터 등에 맛 들여진 나머지 손가락의 기능이 엄청 발달하고 갈수록 새록새록 거듭나는 맛 나는 음식물들에 중독(?)되어 배는 점점 커지며 두뇌가 발달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커진다고 한다.

반면 본래 거의 본능적이던 일부 기능들 예하면 면역력(기실 감기 따위는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인간 신체내부의 조절로 치료가능

하다고 한다)이 퇴화되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일부 감지능력들도 퇴화되는 등 꽤 쓸 만한 기능들이 점차 사라져간다고 한다.

언젠가 한국의 한 시인은 주둥이와 생식기만 고도로 발달한 생물이라고 인간을 걸쭉하게 욕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의 사람들은 사막 복판에, 망망대해에, 원시삼림 속에 내려놓으면 혼자서 힘으로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은 신체적으로 퇴화되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구조대 따위에 의존하려는 생각이 본능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말이다.

몇 해 전 중국과 일본의 어린이들이 함께 삼림 속에서 어른들 도움이 없이 일주일동안 자체로 숙영숙식을 챙기는 캠프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나마 일본의 어린이들은 삼림 속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중국의 어린이들은 부모를 찾거나 아예 포기하는 모습이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의 허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실례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의 한족들은 그래도 방송국 취재팀이 마이크를 들이대면 자기의 생각을 대충 표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선족 아이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서일까 취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방송국 지인들의 이구동성이다.

어른들이라고 자유로울 수가 없다. 조선족 성인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보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의견 따위를 뜻대로 표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선족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교육 중에서도 조선족교육은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조선족이 소수민족가운데서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 질이 높다고 했던 것은 이제 대단히 낡은 옛말이다.

물론 자기의 문자마저 없는 몇 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거나 비교적 낙후한 민족들과 비하면 아직도 가슴을 내밀고 큰소리 쳐도 괜찮다. 그러나 한족들한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민족? 축구 잘하는 민족? 어느 것도 이

제 중국이라는 무대에서 내노라할만한 큰소리거리가 못된다.

시험 치는 기계로만 만들고 있는 교육실태, 한국을 닮아서 명문 대학만을 노리는 학부모사정, 자유 활동시간을 모조리 끊어모아서 학원에 보내야 시름 놓는 오늘의 현황이 이런 악순환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이런 현상을 개선해보려고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아니, 아예 나서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6

한족들한테는 맹모삼천의 이야기가 있고 조선족들한테는 한석봉의 이야기와 더불어 에밀레종의 이야기가 있다. 부모의 실없는 한마디로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의 혼이 에밀레종을 울리고 있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은 안다.

그 에밀레종은 이제 그냥 종으로, 기념물로만 남아버리고 말았다. 아무도 에밀레종이 울지 않는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사실 요즘의 우리에게야말로 에밀레종은 가장 큰 경종으로 울려 정신들을 번쩍 차리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저 에밀레종은 울리기를 그만두고 말았다.

에밀레종이 울지 않는다고 평화롭다고 착각하면 대단히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비둘기의 생존능력을 박탈하듯이 동심과 더불어 그들의 생존능력을 무지막지하게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7

떠영— 떠영—

에밀레종이 운다.

마지막 목 갈린 울음이 정처 없이 비 아래처럼 부서진다.



한영남 시인, 수필가, 소설가

1967년 중국 길림성 안도현 출생. 연변작가협회 회원. 중국소수민족 작가학회 회원. 시, 수필, 소설, 평론 등 다수. 현재 흑룡강조선민족 출판사 “꽃동산” 편집부 주필. 연변일보 『해란강』 문학상, 도라 “장락주” 문학상 등 다수 수상했다.

자신과의 싸움

정 희 정

우리는 결코 길 위에서 설 수는 없음이라.

—요제프 크네히트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은 하늘이 숨을 뱉는 모습이기도 하다. 사람에게 들숨과 날숨이 조화를 이루어 호흡이 완성된다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다. 하늘에겐 날숨이 들숨보다 깊다. 그 깊이는 마치 가시를 살다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뱉은 날숨과도 같다. 그 속엔 그 사람의 파란만장이 담겨져 있고 이른 새벽을 수없이 적신 입자들의 초심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믿고 있다. 하늘의 속이 늘 푸를 수 있는 이유는 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영혼이 절대로 빛바래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가 바라보기만 한 많은 밤들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날들이 있었다. 아련하게 고여 있던 빗물들이 언제 빠였는지조차 모르게 희망과 미래에 답이 없는 시절이 있었다. 그땐 내안의 우울이 깊었고 한숨이 길었다. 항시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들은 매번 낙방의 현실 속에서 무너졌고 나는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또 방황했다. 한때는 글을 쓴다는 것이 나에게겐 자부심으로 될 만큼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곤 했는데 자부심이 현실에 억눌려 내게 꼭 가야만 하는 길에 가지발을 수놓았을 때 그것은 오만과 편견으로 되어버렸다. 잃어버린 아침을 맞이하면서 세안을 하다 마주한 텅텅 부은 거울 속 내 모습이 늘 내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이봐, 자네 지쳤군.”

지쳤다는 게 한숨이 길어졌다든 얘기 같기도 했고 도피의 메커니즘 속에서 의미 없이 허우적대는 몸짓 같기도 했다. 내가 왜 지쳤는지 왜 지쳐야만 하는지 그 지침에 겹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아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밤이 져도 그 밤은 내겐 마냥 하얗었다. 하얀 밤을 한숨으로 흘날리며 눈부심을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더 하얀 낮을 내려주던 우울한 오후, 1시 15분을 가리키던 태양의 위치로 검은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갑자기 끼어든 먹구름은 마치 거울 속 흐린 나의 또 다른 얼굴 같았다.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이 나였다면 이럴 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만약 다른 사람 역시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생각을 어떻게 고쳐 했을까? 낯선 그들의 인생이 궁금해지게 되었던 순간이었다. 나는 침대에 무겁게 붙어 있는 몸을 겨우 일으켜 세우며 2년 전부터 책장 속에 고이 꽂아두었던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를 집어 들었다.

주인공 요제프 크네히트의 인생은 길고 길었으나 나에게는 단 다섯 밤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카스탈리엔의 유희 명인으로 된 그에게도 사명을 거스르게 할 만큼 지치고 우울한 시절이 있었다. 유희명인이라는 딱지를 벗어던지지 못했던 그는 속세에 관한 일체를 단념해야 했고 연구에 몰두하기 위하여 그 작은 도시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 모든 까탈스러운 일에도 평온해 지게 된 노년에 와서야 끝없는 방황과 갈등 끝에 유희명인이라는 귀한 자리를 내놓고 속세로 들어가 친구의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유희 명인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고 운명하

졌다. 주인공의 시야에서 하늘이 점점 흐릿해질 때 그의 가냘픈 마지막 한숨이 내게는 이 지상 저 높은 곳에서 유일하게 빛바래지 않는 하늘이 내뿜은 날숨 같았다. 생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숨이 음을 울릴 수 있는 입자로 분해 되어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된 것만 같았다. 그에게 꼭 가야만 하는 길에서 가시밭이 보였을 때 에돌아가지 않고 꺾끗이 밟고 지나가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던 것이다. 분명 발바닥에 피가 고이다 못해 흘러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그는 말한다. 주인공의 일생을 다 읽고 난 뒤 내게 남은 것은 그가 일생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연구시절 그리고 노년 때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써놓은 작은 시들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구들이지만 그 속엔 그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 평이로운 그의 시를 전기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시들이 곧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요제프뿐만 아니다. 항일투사 리륙사 시인도 그것을 말해준다. 젊은 나이에 운명하셨지만 그의 시가 널리 읽힐 수 있었던 것 또한 그의 마음 때문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때에만 빛바래지 않는다. 마음을 듣고 마음을 읽고 마음을 거스르고 하는 것은 투쟁인 게 분명하다. 자신과의 투쟁에서 살다간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 그들은 쉽게 한숨을 내 쉬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감미로운 음악은 자신과의 투쟁을 이겨서 내뿜 마지막 날숨 속에 있다. 그 마지막 날숨이 입자로 분해되어 그 사람의 주법에 의해 미세하게 흔들려 만들어진 게 곧 음악이고. 그 주법이 곧 진심이자 마음이다. 그리고 밤하늘에 고스란히 박힌 별들은 날숨이 입자로 변하면서 하늘로 데려간 배꼽이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온 날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라보기만 한 많은 밤들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던 날들, 아련하게 고여 있던 빗물들이 언제 빠였는지조차 모르게 희망과 미래에 답이 없었던 시절들, 음악으로 되어준 그들의 이야기가 있어 방황길이 그리 어둡지 않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어찌면 인간이란 참 간단한 동물인지도 모른다. 한번 내 것이라고 주먹을 움켜쥐면 당체 다

시 주먹을 피려하지 않는다. 끝까지 내 것인 양,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고 한다. 자존심은 진심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될 일이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투쟁인지 깨달았으니까. 나의 오만과 편견을 버리지 못한 내 방황들, 긴긴 한숨들은 얼마나 로상방뇨에 불과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선택 받지 못한 내 글들은 아마 마음이라는 게 부족했을지도 모른다. 화려한 권모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없는 거니까.

소중한 깨달음에 부드러운 입김을 부쳐 나는 노트를 펼치고, 아래와 같은 글들을 천천히 적어본다.

“언제 어떻게 운명했든 그들은 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진심을 갖고 갔고 그 진심이 입자로 되었으며 입자들은 이른 새벽에 또 자신과의 새로운 투쟁을 하다 음악으로 되었겠지. 그래서 가시를 살다간 입자들이 이른 새벽에 얼마나 아팠겠냐고? 아니, 전혀 마음으로 전하는 글은 아프고 따뜻해도 그들은 아픈 것보다 따뜻한 것을 더 기억하려는 입자들이니까. 그게 자신과의 투쟁 속에 살다간 자들이 깊은 하늘처럼 빛바래지지 않는 이유니까. 나는 결코 길 위에서 설 수는 없으므로, 이 생의 끝에서 꼭 한번 음악으로 되어보리라.”



정희정 시인, 수필가, 소설가

필명 저스트키딩. '푸르게 난 너에게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벗꽃을 울리는 봄날 나는 걸기로 했다', '눈물을 기다렸더니 이내 내려주는 한살' 등 시, 수필, 소설 다수 발표했다. 연변일보 해란강문학상(2013) 등 수상.

현재 연변대학 재학 중.

목사와 석사에게서 애염을 배우며

김 춘 택

십여 년 전, 절강에서 잠깐 체류할 때 나는 목공 하나와 석공 하나를 비즈니스 때문에 잠깐 거래해본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그들에게 소형사이즈(높이 40센티, 직경 20센티)의 목사(木獅)와 석사(石獅)를 100개씩 주문했는데 그들은 사은품인양 자신들의 출중한 기예로 특별히 제작한 아이들 주먹크기의 목사와 석사를 나에게 하나씩 선물했다.

“사장님 덕분에 목사를 많이 팔았는데 그로 인해 저의 목조공방(木彫工房)이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사장님의 그 은혜를 따로 갚을 길이 없어 조상으로부터 넘겨받은 기예(技藝)로 목사 하나를 깎아 선물하니 소납(笑納)해주세요. 사장님은 문인이시라 특별히 목사의 기부(基部)에 사장님의 문호를 새겨두었으니 작품을 쓰신 후의 판인(判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공이 자신이 손수 깎은 아이들 주먹크기의 목사를 나에게 사은품으로 선물할 때 예의와 격조를 갖추어 하던 말이었다. 나는 목공의 손에서 목사를 받으며 고맙기도 하고 황송스럽기도 했다.

목공의 말대로 목사의 기부에는 나의 문호인“백록씨(白鹿氏)”가

전자체(篆字体)로 적혀있었다. 나는 아주 흡족했다.

“사장님 덕분에 석사를 많이 팔았는데 그로 인해 저의 석조공방(石彫工房)이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사장님의 그 은혜를 따로 갚을 길이 없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예로 석사 하나를 깎아 선물하니 소납(笑納)해주세요. 사장님은 문인이시라니까 글을 쓰실 때 이 석사로 가볍게 휘날리는 원고지를 눌러두시면 유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석사의 기부에 노자(老子)의 말씀‘상선약수(上善若水)’를 덕담으로 새겨두었으니 사장님께서 부디‘상선약수’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등 여섯 가지 덕목을 갖추어 문학에서 대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석공이 자신이 손수 깎은 아이들 주먹크기의 석사를 나에게 사은품으로 선물할 때 역시 예의와 격조를 갖추어 하던 말이었다. 나는 석공의 손에서 석사를 받으며 또다시 인생최대의 고마움과 황송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석공의 말대로 석사의 기부에도 노자의 말씀인“상선약수”가 해서체(楷書體)로 적혀있었다. 나는 아주 감지덕지했다.

그때로부터 나는 목사와 석사를 아주 애지중지했는데 목사와 석사는 늘 나의 집필이 이루어지는 책상 위의 양편에 놓여 나의 문학창작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 목사는 한 결 같이 나의 시작품이나 소설작품이 완성될 때마다“백록씨”라는 판인을 팍팍 찍어주면서 내 문학의 지기가 되었고, 석사도 한 결 같이 나와 함께 빠른 세월을 줄 당기기하면서 내가“상선약수”의 여섯 가지 덕목을 잊지 않도록 조용히 채찍질해주었다.

몇 년 후, 나는 옛 오월(吳越)의 땅—절강에서부터 옛 제(齊)의 땅—산둥으로 북상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와 석사도 나와 함께 북상을 했다. 그러나 산둥으로 북상해온 목사와 석사는 나와서의 인연을 다했던지 반년을 간격으로 천변지변(天變地變)을 겪고 모두 내 곁에서 소실되고 말았다.

먼저 목사가 분쇄(焚毀)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분쇄로 나의 서재에서 크게 일변 했던 화재를 막아주어 내가 애지중지하던 수많은 도서들을 보호해주었다. 절강에서 산동으로 복상한 후, 목사와 석사는 나의 집필이 철저한 컴퓨터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더 이상 비좁은 컴퓨터책상에서 나를 동반하지 못하고 서재의 한 모퉁이에 설치된 조명등의 양옆에 올라앉아 겨우 조명등을 장식해주는 사명을 받아 안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의 깊은 밤, 나는 서재에서 갑자기 치달은 불길에 놀라 선잠에서 화닥닥 깨어났다. 내가 선잠에서 깨고 보니 서재의 한 모퉁이에 설치된 조명등의 왼쪽에 있던 목사가 불에 타고 있었다. 본래 목사와 석사는 조명등의 양옆에서 조명등에 연결된 전선을 깔고 앉아있었는데 전선이 합선되면서 점화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석사는 몸체가 돌로 되었기에 자신의 몸에 불길을 당길 수 없었지만 몸체가 나무로 된 목사는 자신의 몸에 불길을 당겨 스스로 분쇄가 되면서 서재에 화재가 일고 있음을 나에게 신호할 수 있었다.

내가 다급히 목사의 몸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제압하긴 했으나 목사는 이미 거의 타버려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목사의 덕에 서재에서 크게 일변 했던 화재를 피면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지만 분쇄된 목사에 대해 별로 아쉬움을 두지 않았다. 이미 나의 애착이 목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나의 애착이 닿지 못한 목사는 서재의 한 모퉁이에서 조명등이나 동무하던 보잘 것 없는 신세였다.

목사가 분쇄되어서 꼭 반년이 되어가던 어느 여름날밤, 목사가 분쇄된 후로 서재에 외롭게 남아 늘 책이 뿔히는 곳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서재의 책 틈서리를 메워주던 석사마저 옥쇄(玉碎)되었다. 그때 나는 산동에서 『백연·연해문학』 지를 꾸리고 있었으므로 서재의 창턱에는 몇몇 시인들이 『백연·연해문학』 지에 두고 해운 얇은 시 원고들이 쌓여있었는데 나는 창턱바람에 그 시 원고들이 휘날릴까봐 석사를 시 원고더미 위에 올려놓아 그 시 원고들을 지지누르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서재의 창문으로 도적

이 침입하면서 시 원고더미를 다쳐놓아 석사는 시 원고더미와 함께 창턱에서 서재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석사가 창턱의 시 원고더미와 함께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 나는 선잠에서 깨어났고, 도적도 석사가 창턱에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 침입을 포기하고 줄행랑을 놓았다. 나는“석사의 턱에 서재의 도난(盜難)을 피면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또다시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지만 옥쇄된 석사에 대해 미련을 별로 두지 않았다. 역시 나의 애착이 석사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나의 애착이 닿지 못한 석사는 서재의 책 틈서리를 메우거나 창턱에 쌓인 원고더미를 지지누르느라 먼지를 뒤집어쓰는 거의 버림받은 신세로 되었던 것이다.

목공과 석공에게서 목사와 석사를 받은 지 꼭 석 삼 년이 되던, 목사와 석사가 분훼·옥쇄된 지 꼭 여섯 해가 되던 금년 설전에 한국의 옛 지인으로부터 또다시 목사와 석사에 대한 주문이 나에게 위탁되어 나는 다시 옛 거래처인 절강의 목조공방과 석조공방에 연락을 취했다. 거의 10년 만에 다시 연락을 취했건만 목공과 석공은 여전히 나에게 감지덕지한 감정을 지닌 채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옛날 자신들이 나에게 사은품으로 선사했던 목사와 석사에 대해 안부를 물었다.

나로서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이었다. 그것은 내가 목공과 석공에게“목사는 여차하여 분훼되었지요.”나“석사는 여차하게 옥쇄되었지요.”라는 변명을 마음 편하게 구사(驅使)할 처지가 못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목사와 석사의 분훼와 옥쇄에 대해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어 그들에게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다.

그래도 그들은 나에게 아주 관대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제가 사장님께 사은품으로 선물한 목사가 사장님과 그와 같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사장님이 목사의 도움으로 서재의 화재를 피면할 수 있었다니 저의 사은품이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로 옥사(玉獅) 하나를 깎아 사장님께 다시 보낼 터이니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옥사의 기부에 사장님의 문호를 새겨둘 테니 사장님께서 주옥같은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시길 미리 기원하겠습니다.”

생각 밖으로 목공은 목사의 분회에 대해 커다란 긍지를 던지면서 이번엔 옥사 하나를 손수 깎아 나에게 기꺼이 선물하겠다고 약속을 해왔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사장님께 사은품으로 선물한 석사가 사장님과 그와 같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 고마운 일입니다. 사장님이 석사의 도움으로 서재의 도난을 피면할 수 있었다니 저의 사은품이 자기의 몫을 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만간에 동사(銅獅) 하나를 깎아 사장님께 다시 보낼 터이니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동사의 기부에 노자의 말씀‘상선약수’를 덕담으로 새겨둘 테니 사장님께서 부디‘상선약수’의 여섯 가지 덕목으로 문학에 더욱 정진하여 큰 성취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상상외로 석공도 석사의 옥쇄에 대해 기쁜 심정을 토하면서 이번엔 동사 하나를 손수 깎아 나에게 사은하겠다고 약속을 해왔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목공과 석공에게 한국 지인이 부탁하는 목사와 석사를 허가분한 기분으로 다시 주문시키고 또다시 옥사와 동사를 사은품으로 받게 된 나의 마음은 지금까지 설을 쇠고 있는 내내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설 휴가가 거의 끝나고 있을 요즘에는“오늘일까? 내일일까?”하는 심정으로 목공과 석공이 보내줄 옥사와 동사가 더욱 기다려진다.

목공과 석공이 보내줄 옥사와 동사를 기다리면서 나는 이제 한 인간의 사물에 대한 진정한 애염(爰染)을 배워야 할 것이다. 10년 전에 목공과 석공이 사은품으로 나에게 선사했던 목사와 석사는 분회와 옥쇄의 형식으로 나의 장서(藏書)를 지켜주었지만 실은 그들이 분회되고, 옥쇄된 것은 썩 오래 전에 나의 애착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었다. 목공과 석공이 고마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예술

과 성의를 다하여 나에게 목사와 석사를 선물했지만 나는 그 고마운 사은품에 대해 쓸모없는 체면을 내세우면서 잠시나마 애착했을 뿐 시간이 지난 후에 스스로 목사와 석사에 대해 염증(厭症)이 생겨 그들을 멀리 했던 것이다.

목공과 석공에게서 사은품으로 목사와 석사를 선사받았던 초기처럼 그들을 여전히 애지중지하고 먼지가 앉을세라 닦고 챙겼더라면 목사와 석사는 지금도 건재하여 내가 목공과 석공의 고운 마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애초에 목사와 석사에게 놀려 전선이 합선되어 점화되면서 목사가 분쇄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원고더미에 올라앉은 석사가 도적의 침입으로 바닥에 떨어져 옥쇄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등하록(燈下錄)』에서는“불교의 시조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어머니의 오른쪽 늑골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걸으면서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하늘과 땅에서 나는 유아독존(惟我獨尊)이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로부터 사자는 석가모니의 가신(家臣)적 상징으로 장엄한 길상(吉祥)의 신령이 되었다. 석사는 바로 유아독존—석가의 형상을 담기에 반드시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형태로 만든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제 며칠 후이면 나는 목공과 석공이 선사하는 옥사와 동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들도 바로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형태의 유아독존일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는 친우주의 섭리를 배워주는 명물이 될 것이다.

애착은 사랑과 정성을 불러오는 근원이 되고, 염증은 미움과 버림을 불러오는 근원이 된다. 이제 설후면 목공과 석공은 또다시 나에게 옥사와 동사를 보내줄 것이다. 옥사는 목사처럼 불에 타지 않을 것이고, 동사는 석사처럼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애엽이 또다시 염증으로 바뀐다면 옥사와 동사는 또다시 부서지거나 흠집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엔 목공과 석공의 예술과 성의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옥사와 동사에 대해 참된 애염을 해야 할 것이다.



김춘택 수필가, 동화작가

1972년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서 출생했다. 연변작가협회 회원. 중국 소수민족작가학회 회원이다. 동화집 『날개 달린 산새 알』 (한국), 『닭털 비를 맞고 무너진 로마제국(중국)』 출간했다. 중국 하얼빈 『송화강』 문학지 편집을 역임했고, 현재 『백천문학』 사장 겸 주필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일 년, 상큼한 인연

이 화

굳이 오래도록 가까이 지낸 사이가 아니더라도 가슴 한구석에 잔잔하게 차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인연들은 내 후반생 내내 상큼한 향기를 가져다줄 것 같다.

상큼한 인연 하나: 화분에 잡초를 함께 키우는 심성

지난해 11월, 언니가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다년간 온라인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 몇 년간 언니의 맑은 심성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물결쳐 와 내 가슴을 많이 적셔주었다.

정작 만나고 본 언니는 온라인에서보다도 더 여성스럽고 포근하게 다가왔다. 첫 만남의 포옹으로부터 내 나이 삼십대 중반에도 어울릴까 주저심이 들 정도로 달콤한 향수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은 그 뒤 반 년 후, 어느 문학행사에 서였고 우연하게도 나란히 한 무대에 설수 있는 인연으로까지 이어졌다. 행사전날 밤늦게 홀로 도착한 내가 이곳저곳에 신세를 진 사실을 알고 언니는 내손을 꼭 잡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인

사를 했다.

“우리 동생 잘 챙겨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아... 그때 나는 후배들이나 동생들을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이 있었던 가고 반성해보았으며 나에게 어른의 자세를 배워주고 있는 언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행사가 마무리되자 나는 오랜만에 복행을 한 덕분으로 언니네 집까지 들릴 수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안겨오는 화분들, 그때 나는 언니가 가꾸고 있는 화분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화분에는 잡초가 꽤 “무성”했던 것이다.

“애 네도 생명인데... 어떻게 뽑아버리겠어요? 가슴 아프잖아요. 이렇게 함께 키우니까 더 예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하찮은 잡초들이겠지만 이 잡초들마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함께 키우는 선한 심성이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그 도시에 있는 언니 친구가 여유만 있으면 낚시하러 다니는걸 알고 “저러면 안 되는데... 물고기도 생명인데... 왜서 남 목숨 앗아가는 일을 저렇게도 즐기나?”하면서 걱정해주는 심성이며...

며칠 동안 언니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으며서도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된 적이 한두 번만 아니었다.

“할머니, 이빨 어떠세요? 아직도 아파요?”

“아니, 영 좋소. 편안하고 밥도 잘 넘어가요.”

“아프면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오세요.”

...

그렇다. 언니는 치아를 전공한 치과원장이다.

그 작고 고운 손으로 피 뚝뚝 떨어뜨리는 치아를 뽑거나 교정한다고 생각하면 참 매치가 잘 되지 않는 구석이 크다.

“이렇게 아플 때까지 어떻게 참았습니까?”

... ..

“조금 아플 겁니다. 좀만 참으세요.”

... ..

언제나 상냥한 말씨와 차분한 몸짓도 그러하겠지만 언니는 연세

가 있는 할머니들이 오면 치아 뽑는 일은 거의 무료타시피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요즘에 있었다. 여성관련 행사였지만 우리에게도 또 나란히 한 무대에 설수 있는 기막히게 놀랍고 행복한 일이 생겼다. 이것 참 무슨 우연일가? 일 년에 두 번이나 함께 무대에 서다니... 우린 참 인연이 있는 거다. 기적 같다는 생각마저 들면서 서로의 가슴에 흥분을 가져다준 만남을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꼭 안고만 있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마음에 흘러들어 이어지는 이 인연 하나...

그런 언니가 참 고운 자작시도 보내온다.

... ..

세월의 비늘이 부서져 녹슬어도
사랑으로 나는 늘 예쁠 수가 있었네

... ..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랑을 휘이휘이 수놓는
사랑스런 바보

스치는 바람조차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나 또한 행복을 누리더라

... ..

따스한 해살줄기 같은 손길로
세상을 쓰다듬어주는

나는

사랑요정이여라

상큼한 인연 둘: 애완건을 십 년째 키우고 있는 정성
친구가 책 한권을 선물했다.

받아보니 나의 취향과는 빗나간 책이었지만 은근히 나한테 어울리는 책을 고르느라고 무척 고심했던 것 같았다. 한참은 지나서 알게 되었지만 이 책 한권 고르느라고 서점에서 거의 두 시간은 소모했다는 후문이다.

가끔은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온다.

“등산가요.”

“놀러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구워줄게요. 지금 데리러 갈게요.”

... ..

친구는 새물새물 미소 짓는 외모에 왼쪽 귀 방울에는 귀걸이 두 개씩 꽂고 다니는 꽃미남이다. 평소에는“출랑”거리는 것이 여간 귀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스타일과는“어울리지”않게 항상 친구들이 앉은 뒤 좌석 에어컨을 꼭 체크해보는 속 깊은 사람이다.

이 나이에도 모임을 가지면 소싯적으로 돌아간 듯“어깨동무 내 동무”를 하면서 한밤중 인행도를 쓸기도 하는, 소꿉친구인 듯한, 지기 같은 사람.

그러고 보면 친구란 눈빛만 보아도 서로 알 수 있는, 이유 없이 좋기만 한 그런 사람인거다. 그런 친구가 따스한 마음까지 가졌으니... 떠올리기만 하면 저절로 미소가 어린다.

언젠가 한번은 친구와 화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다.

“머리나라(친구는 헤어숍 원장)”에서 화분을 많이 키우고 있었다.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좋지만 친구는 화분에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던 차, 집사람이 잡초를 깨끗하게 제거

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왜 그 풀들을 제거 했냐고“항소”를 했단다. 그일 후로 친구의 집사람은 화분에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풀마저 사랑하는 남자의 가슴은 말랑말랑한 눈물방울이나 보송보송한 사랑송이로 만들어진 것일까?

친구는 책을 보다가도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티비를 보다가도 슬픈 장면을 보면 울어버리는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이다. 그런 친구를 보면서 속으로는“남자가 이래서 되겠느냐?”고“꾸짖어”보지만 펜스레 마음이 더 가닿기도 했다.

포장마차에서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눈이 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큰개 한마리가 담 너머로 우리의 식탁을 기웃기웃 거리자 친구는 얼른 내 손목을 이끌고 담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느새 들고 왔는지 내 오른손에 소고기요리 몇 점을 놓아주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소고기요리를 큰개 입가로 가져갔다. 꼬리를 살살 저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노라니 재미있기만 했다.

“개를 가까이 할 때는 꼬리를 먼저 봐야 해요. 꼬리를 살살 기분 좋게 저어주면 가까이 해도 된다는 신호예요.”

제법“멍멍 박사”가 된 어투였다.

그털 만도 했다. 친구는 애완견—“유리”를 키우고 있었다. 하얀 털을 가진 푹푹푹푹하게 생긴 강아지였는데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친구의 딸애보다도 5살은 더 큰“언니”인 셈이다.

“유리”가 임신해서 새끼를 낳을 때 일화 또한 내 가슴을 울려주었다.

한밤중에“유리”가 끽끽대며 신음한지 오래 지났지만 웬걸 새끼들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아차, 난산이구나!”를 알아챈 친구는 그 밤중에 동물병원을 찾아 헤맸으나 영업을 하는 병원은 하나도 없었고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연락이 닿은 한곳에서 제왕절개로“유리”를 살려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허둥지둥하던 모습들이 선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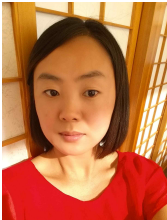
이제는 나이가 제법 있는“유리”를 두고 친구는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유리”가 곁을 떠나게 되면“장례”도 치러주고“묘지”도 마련해주겠다고 울먹이는 친구...

이 따스한 가슴에는 무엇이나 다 들여놓을 수 있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가게에서는 가위를 놓을 새가 없이 바삐 돌아치는 헤어디자이너인 친구, 친구의 굳은살이 앉았을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아마도 우린 전생에 형제였나 보다.”

그리고 늘 좋은 하루가 내 친구 곁에 머물기를 빈다.



이화 수필가

1979년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했다. 2002년, 연변대학 역사학부 졸업했다. 현재 연태은하한글유치원 근무.

파도의 주연

리 런 화

붉은 해빛이 서서히 구름을 헤치고 푸르른 건판우에서 노닐고 있었다. '짜~ 짜~' 하얀 음률의 조화속에서 산뜻한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 계단마다 칸칸이 착륙한 노트에는 씨앗들이 살랑이고 있다.

어렴풋한 추억들이 돌돌 말아 끝없이 부서지는 그 자리에는 닳아지고 아름다운 길이 나있다. 잠들지 못한 가슴은 운치 있는 파도사이로 어제와 오늘을 쓰고 또 지운다. 뜨겁게 부서지는 푸르른 파도는 잔잔한 늪지에 한줄기의 혈기 왕성한 피줄을 선사한다.

피줄로 파생된 단단한 힘줄이 광활한 우주마저 껴안는다. 수면을 보듬는 파도의 절벽은 눈부신 수평선을 낚고있다.

파도의 현은 지난밤 폭풍을 어루만지고 래일의 아침을 맞이할 요량으로 넓은 가슴에 다달았다. 오색령롱한 물방울이 잠들지 않는 령혼에 광기를 심어 아득한 수평선으로 열망의 물감을 풀어해친다.

산토끼마냥 쫓긋 귀를 세운 촉각이 고독의 섬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위로를 실은 모래들의 숨소리는 완벽한 화음이다. 고독의 섬은 채 읽지 않는 소설같았다. 검고 맑은 바다를 닮은 눈동자들이 미로의 섬을 떠올렸다.

암울한 음절들이 한동안 외로운 섬에 정착했다. 파도의 슬럼프는 수심이 깊었다. 잠잠한 파도는 시종 일렁이는것을 잊고 침몰의 표류가 계속 되었다. 파도의 외로운 몸부림이 들렸다. 신음소리는 끊기지 않았다. 파도는 이미 심연으로 들어와 있었다.

안에서 용암처럼 세차게 흐르며 벽을 긁어대는 그 소리에 묶여버렸다. 어느새 파도는 도약하기를 포기하고 신음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순간 초심의 창문을 열어제긴다. 살금살금 파도는 긴 해안선을 배회하며 삶의 리치를 찾고있는듯했다. 넘실넘실 푸른 기운이 파도의 폐포로 흘러들어왔다.

오묘한 색채가 바다의 혈관을 통해 찰싹이는 해조음의 그래프와 찬 공기, 꿈결을 스친 바다바람은 부단히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기타현을 닮은 잔잔한 파도의 음률에 실려 일렁거렸다. 끊임없이 희망의 밀물과 썰물이 아찔하게 도약한다.

섬에 당도한 절망의 주파수는 희망의 노래와 사투를 벌리고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파도의 포효는 자유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조금씩 인고의 물결은 재기의 의지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그렇게 새벽을 맞이해 해가 떠오를 때까지 파도는 꿈꾸듯 열망으로 부풀어오른다.

이제 파도는 점점 더욱더 강해지며 바위에 찰싹찰싹 부딪쳐 웅장한 음절을 토해내고있다. 중간중간 화음의 삼입도 멋있다. 긴 밤을 찢어내고 날아오른 큰 파도는 기암절벽 위에 소나무 한그루가 되어

푸르싱싱한 풍경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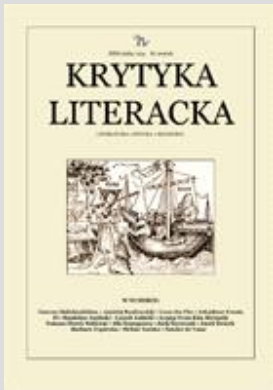
바다가에 묶여 있는 자유가 파도의 물동에 맞추어 사뿐사뿐 약동하고 있다. 삐걱삐걱 역경의 벽이 부딪치고 사나운 비줄기가 퍼붓고 시간이 갈수록 파도는 더욱 굳세여진다. 파도에서 주렁주렁 잉태한 꿈들이 해역의 바다를 온통 물들여 놓는다. 파도는 언제나 넉넉하고 있다. 려명속으로...



리련화(李蓮花) 소설가

연변대학 비교문학석사과정 졸업했다 단편소설 “김녀사의 재볼트” 등 다수가 있다. 작가협회회원 회원이다.

폴란드 문예지 미주한인 시인 특집



Arts and letters quarterly founded in 2009, independent and politically incorrect, with international and Polish perspective, presents essays, interviews with artists, poets, writers and intellectuals, poems, short stories, art, social and literary criticism. On its pages were published poets and writers from Bangladesh, Chile, China, Germany, Greece, Denmark, Finland, Indonesia, Iran, Iraq, Island, Israel, Italy, Kurdistan, Lithuania, Netherlands, Poland, Russia, Spain, Ukraine, UK and the USA.

폴란드 문예지 한국시 번역 소개

김경년 시인의 시 5편 게재

조운호 시인의 시 10편 게재

